

연구보고 14-R02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책임연구원

**임희진**

공동연구원

**송병국**

IN

Y

P

II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 ▶ 책임연구원 : 임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송병국(순천향대학교 · 교수)
- ▶ 연구보조원 : 안지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 발 간 사 ■ ■ ■

---

최근 몇 년간 청소년들이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급속히 증가하였지만, 잇따른 야외활동 사고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단체 및 시설들이 큰 타격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전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시급해보이지만, 안전하면서 보다 질 좋은 청소년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질 좋은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는 정책환경과 청소년들의 요구, 그리고 지역이나 운영기관의 여건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하는 것으로 다른 아닌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한 정책의 추진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첫출발은 엄밀하고 과학적인 데이터의 생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청소년들의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 등 국가기관차원에서 보다 엄밀한 데이터 생산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활동만을 모니터링하는 조사시스템은 간헐적으로는 있었지만 지속적이지 못하거나 청소년활동을 모두 포괄하지 못해왔었고, 이러한 이유로 정착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는 청소년활동이라는 영역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합의되지 못한 채 논쟁의 영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지난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안정적인 조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청소년활동정책과 관련된 통계지표도 다시금 재정비해야 하며, 각종 조사들의 상호관계나 효율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5년간의 연속과제로 추진되는 본 연구에서 그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연구가 청소년활동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귀중한 연구자료로 발전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노 혁



##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의 참여 실태를 조사하여 과학적 정책 지원의 근거를 제공하고, 청소년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은 한 개 영역 이상의 청소년활동을 경험하고, 절반 정도의 청소년들은 4개 영역 내외의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체험활동의 참여 경로는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하는 방식이 가장 많았다. 양부모가정, 학업성적 상위, 경제수준 상층에 속한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았고, 이러한 경향은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및 참여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청소년의 진로체험은 간접 체험 경험률이 높았으나, 청소년들은 직접 체험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관련시설 이용률도 높았다. 또한 다양한 체험활동이 청소년들의 긍정적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으며, 특히 체험활동의 폭과 정의적 특성의 관련성 분석을 통해 4개 이상의 체험활동을 경험하는 것이 청소년의 발달에 긍정적이고, 적어도 2개 이상의 체험활동 영역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정책 추진계획의 수립, 청소년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질 관리, 타 부처 정책사업과의 연계, 지역사회 연계와 학교와의 협력 강화,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선도적 사업의 추진, 과학적인 청소년활동정책 추진시스템의 구축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청소년활동, 체험활동, 문화활동, 진로체험, 체험활동의 폭



## 연구 요약

###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의 참여 실태를 조사하여 과학적 정책 지원의 근거를 제공하고, 청소년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는 청소년활동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기준을 제공할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정책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음.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의 역량함양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재학 중 체험활동의 활성화 방안과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국정과제 「46.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66.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108. 문화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를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정책추진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임.

### 2. 연구방법

- 청소년 체험활동, 문화활동, 직업체험활동에 대한 문헌을 수집·분석하고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와 주요 국가의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에 대한 문헌자료를 검토하였음.
- 청소년활동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지문회의를 통해 설문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였음.
- 두 차례의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음. 5월에는 설문문항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집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하여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였음. 10월에는 정부의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청소년활동의 참여 실태와 효과성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4년 조사에서는 체험활동, 문화활동, 직업체험활동을 주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를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4,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협의하였음.

### 3. 주요결과

#### 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율은 99.3%로 대부분의 청소년은 한 개 영역 이상의 청소년활동을 경험하고 있었음. 참여율이 높은 체험활동 영역은 「문화예술활동」(92.1%), 「직업체험활동」(79.8%), 「건강·보건활동」(79.0%)이었으며, 2013년에 비해 「문화예술활동」, 「건강·보건활동」, 「직업체험활동」이 증가하였고, 「모험개척활동」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수준별로는 유의차가 있는 모든 영역에서 양부모가정, 학업성적 상위, 경제수준 상층에 속한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았고, 이러한 경향은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및 참여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음. 이러한 결과로부터 청소년활동 참여의 기회가 계층별로 불균등함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청소년활동이 문화적 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지원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임.
- 체험활동의 폭을 살펴보면, 절반 정도의 청소년들은 10개 영역 중 4개 영역 내외의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4개 영역 이상의 체험활동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의 70%였음. 체험활동의 참여 경로는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하는 방식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방식이 모든 활동 영역에서 많았음. 여자 청소년, 초등학생, 학업성적이 상위인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체험활동에 참여하였으며, 특성화계 고등학생들의 적극적 참여율이 낮은 편임.
- 청소년의 진로체험은 「진로캠프」, 「직업인 초청 강연」, 「시청각자료를 통한 체험」 등의 간접 체험 경험률이 높았으나, 청소년들은 「직업모의체험」, 「직업현장 업무 체험」, 「학교에서의 실습 및 견학」 등 직접 체험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음.

-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매년 교육을 받았다는 청소년은 각각 5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하였고, 사전·사후교육은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계 고등학교,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에서 특히 미흡하였음.
- 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은 참여하고 싶은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고, 참여하고 싶은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라고 응답하였고, 체험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흥미 있는 구성」, 「프로그램의 다양성」, 「시간확보」라고 응답하여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화와 질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였음.

## 2) 청소년활동 참여의 관련 요인

-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관련시설 이용률도 높았음. 또한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경우보다 전업주부인 경우에 더 많은 종류의 체험활동을 경험하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전·사후교육을 받은 청소년이 체험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사전·사후 교육은 프로그램의 안전과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전·사후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참여방식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하거나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등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방식일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이 많았음.
-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수록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내재적 동기, 진로성숙도, 행복감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옴. 진로성숙도 중에서는 특히 진로에 대한 계획성과 진로행동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음. 또한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에 비해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내재적 동기, 진로성숙도, 자아존중감, 행복감이 높았음.
- 이상의 결과로부터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긍정적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체험활동의 폭에 따른 정의적 특성 변인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특히 체험활동 폭 2와 4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음. 따라서 10개 영역 중 4개 영역 이상의 체험활동을 경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2개 이상의 체험활동 영역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4. 정책제언

-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정책 추진계획의 수립: 청소년활동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청소년활동정책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함. 또한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정책요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활동 개념을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수정하고, 청소년활동정책을 전반적인 청소년정책과 연계시켜야 함.
- 청소년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질 관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의 중복성 검토와 신고제로 인한 청소년활동기관의 불편함 해소 등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전면적·전폭적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함. 또한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및 검정 과목을 강화하고, 검정과목에 현장실습을 포함시키며, 필기시험을 제도입할 필요가 있음.
- 타 부처 정책사업과의 연계: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 등 교육부와의 연계를 위해서 청소년지도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이 필요하며, 청소년활동시설을 통해서 문화예술정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연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업무협의회나 워크숍 등의 기회를 만들고, 교육청이 청소년활동정책사업,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지도인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 지역사회 연계와 학교와의 협력 강화: 청소년기관의 담당자가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등 학교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중앙차원에서의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지도노력이 필요하며, 청소년지도자들의 교육정책과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함.
-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기존의 지역사회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체험활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청소년기관을 거점화하여야 함.
-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선도적 사업의 추진: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를 핵심가치로 청소년활동정책이 전반적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의 요소에 청소년의 참여라는 요소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매체를 통한 참여의 폭을 넓혀가야 함.
- 과학적인 청소년활동정책 추진시스템의 구축: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 실태조사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고,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검증하는 체계적인 연구기획이 필요함.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	7
3. 연구방법 .....	8
II. 이론적 배경 .....	11
1. 청소년활동의 개념 정의 .....	13
1) 청소년활동 .....	13
2) 청소년수련활동 .....	16
3) 창의적 체험활동과 체험활동 .....	17
4) 청소년의 역량 .....	18
5) 청소년사업·청소년육성 .....	18
6) 문화활동·문화예술활동 .....	19
7) 종합 및 시사점 .....	20
2. 국내 청소년활동정책 동향 .....	21
1)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활동정책 .....	23
2) 교육부의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 .....	25
3) 문화체육관광부의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 .....	28
4) 종합 및 시사점 .....	29
3. 국외 청소년활동정책 동향 .....	30
1) 미국의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 .....	31
2) 호주의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 .....	34
3) 네덜란드의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 .....	36
4) 노르웨이의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 .....	37
5) 유럽연합의 Youth in Action .....	39
6) 종합 및 시사점 .....	44

4. 청소년활동 관련 연구 동향 .....	45
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관련 조사연구 동향 .....	45
2) 청소년활동 참여 효과 관련 연구 동향 .....	49
3) 종합 및 시사점 .....	50
<b>III. 실태조사 개요 .....</b>	<b>53</b>
1. 조사개요 .....	55
2. 조사대상 .....	55
3. 설문지 개발 및 조사내용 .....	57
4. 조사방법 .....	69
5. 표본설계 .....	69
1) 모집단 분석 .....	69
2) 표본설계 .....	73
3) 가중치와 모수추정 .....	79
6. 무응답 현황 .....	82
<b>IV. 조사결과 .....</b>	<b>85</b>
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	87
1) 체험활동 참여율 .....	87
2) 체험활동 참여의 폭 .....	92
3) 체험활동 참여의 방식 .....	95
4) 체험활동 참여의 강도 .....	98
5)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99
6) 문화예술행사 참여율 .....	104
7) 진로체험 경험률 및 도움정도 .....	107
8) 사전·사후교육 경험률 .....	111

9) 체험활동 장애요인 및 요구 .....	114
10) 체험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	118
11) 종합 및 시사점 .....	120
2. 청소년활동 참여의 관련 요인 .....	122
1) 사회경제적 요인 .....	122
2) 사전·사후교육 실시 여부 및 참여방식 .....	125
3)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 .....	128
4) 동기 .....	130
5) 진로성숙도 .....	132
6)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	134
7) 종합 및 시사점 .....	136
<b>V. 정책제언 .....</b>	<b>137</b>
1.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정책 추진계획의 수립 .....	140
2. 청소년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질 관리 .....	142
3. 타 부처 정책사업 및 지자체, 교육청과의 연계 .....	144
4. 지역사회 연계와 학교와의 협력 강화 .....	147
5.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	149
6.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선도적 사업의 추진 .....	150
7. 과학적인 청소년활동정책 추진시스템의 구축 .....	151
<b>참고문헌 .....</b>	<b>153</b>
<b>부록 .....</b>	<b>161</b>

# 표 목 차

〈표 II-1〉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영역별 분류 .....	15
〈표 II-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 활동·문화 활성화 관련 과제 개요 ...	22
〈표 II-3〉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원시스템 내역 .....	26
〈표 II-4〉 자유학기제 운영 및 지원체계 .....	27
〈표 II-5〉 진로교육 운영 및 지원체계 .....	28
〈표 II-6〉 문화예술교육 일람 .....	29
〈표 II-7〉 Youth In Action의 프로그램 개요 .....	41
〈표 II-8〉 청소년 활동·문화 관련 선행 실태조사의 개요 .....	47
〈표 III-1〉 설문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	56
〈표 III-2〉 예비조사를 통한 수정내용 .....	58
〈표 III-3〉 2014년 실태조사 항목 구성 .....	59
〈표 III-4〉 체험활동 참여방식과 참여도 설문형태 .....	60
〈표 III-5〉 청소년활동 관련 시설 이용 경험 설문형태 .....	61
〈표 III-6〉 문화예술 행사 관람경험 설문형태 .....	62
〈표 III-7〉 문화예술 행사 참여경험 설문형태 .....	62
〈표 III-8〉 진로체험 유형 .....	63
〈표 III-9〉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 및 인식 문항 .....	64
〈표 III-10〉 동기 문항 .....	65
〈표 III-11〉 자아존중감 문항 .....	66
〈표 III-12〉 진로성숙도 문항 .....	67
〈표 III-13〉 행복감 문항 .....	68
〈표 III-14〉 지역별 학생수, 학교수 .....	70
〈표 III-15〉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성별 학생수 .....	71
〈표 III-16〉 고등학교 지역×학교유형×성별 학생수 .....	71

〈표 III-17〉 지역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	72
〈표 III-18〉 학교급×학년별 모집단크기, 목표 표본크기 .....	74
〈표 III-19〉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수 .....	76
〈표 III-20〉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수 .....	76
〈표 III-21〉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수 .....	77
〈표 III-22〉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수 .....	78
〈표 III-23〉 단위 무응답률 .....	83
〈표 III-24〉 항목 무응답률 .....	83
〈표 IV-1〉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율 .....	91
〈표 IV-2〉 청소년활동 참여의 폭 .....	94
〈표 IV-3〉 체험활동 참여방식별 참여율 .....	95
〈표 IV-4〉 체험활동 참여방식별 참여율(교급별) .....	96
〈표 IV-5〉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101
〈표 IV-6〉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103
〈표 IV-7〉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 .....	103
〈표 IV-8〉 문화예술행사 참여율 .....	105
〈표 IV-9〉 문화예술행사 참여횟수 .....	106
〈표 IV-10〉 진로체험 경험률 .....	109
〈표 IV-11〉 진로체험 도움정도 .....	110
〈표 IV-12〉 사전교육 경험률 .....	112
〈표 IV-13〉 사후교육 경험률 .....	113
〈표 IV-14〉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 .....	115
〈표 IV-15〉 체험활동에 대한 요구 .....	117
〈표 IV-16〉 체험활동 관련시설 이용률 .....	119

〈표 IV-17〉 체험활동 관련시설 이용빈도 .....	120
〈표 IV-18〉 체험활동 참여방식별 적극적 참여율 .....	127
〈표 V-1〉 정책과제와 도출근거 .....	140

# 그림 목 차

【그림 I-1】 연도별 연구추진 계획 .....	6
【그림 III-1】 설문지 개발과정 .....	57
【그림 IV-1】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율 .....	88
【그림 IV-2】 2013~2014 체험활동 영역별 비교 .....	89
【그림 IV-3】 체험활동 참여의 폭 .....	93
【그림 IV-4】 체험활동 참여의 강도 .....	99
【그림 IV-5】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100
【그림 IV-6】 문화예술행사 참여율 .....	104
【그림 IV-7】 진로체험 경험률 .....	108
【그림 IV-8】 진로체험 도움정도 .....	110
【그림 IV-9】 사전·사후교육 경험률 .....	111
【그림 IV-10】 희망하는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비율 .....	114
【그림 IV-11】 경제수준에 따른 체험활동 참여폭과 참여강도 .....	123
【그림 IV-12】 경제수준에 따른 체험활동 관련시설 이용률 .....	123
【그림 IV-13】 부모 직업 유무에 따른 참여폭 .....	124
【그림 IV-14】 부모 직업 유무에 따른 참여강도 .....	125
【그림 IV-15】 사전교육 및 사후교육 경험에 따른 적극적 참여율 .....	126
【그림 IV-16】 사전교육 경험에 따른 적극적 참여율(교급별) .....	126
【그림 IV-17】 사후교육 경험에 따른 적극적 참여율(교급별) .....	127
【그림 IV-18】 체험활동 폭에 따른 태도 .....	129
【그림 IV-19】 체험활동 강도에 따른 태도 .....	129
【그림 IV-20】 체험활동 폭에 따른 동기 .....	131
【그림 IV-21】 체험활동 강도에 따른 동기 .....	131
【그림 IV-22】 체험활동 폭에 따른 진로성숙도 .....	133

【그림 IV-23】 진로체험 경험의 다양성에 따른 진로성숙도 .....	133
【그림 IV-24】 체험활동 강도에 따른 진로성숙도 .....	134
【그림 IV-25】 체험활동 폭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	135
【그림 IV-26】 체험활동 강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	135

# 제 I 장

---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 I 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구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은 1993년에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이 수립된 이래 제2차, 제3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과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거쳐 2012년에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제5차 기본계획)이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청소년정책의 비전을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로 제시하고 있는 제5차 기본계획(2013~2017)의 5대 영역 중 첫 번째 영역인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영역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요한 역량을 균형 있게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여건을 조성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 영역의 정책방향은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확대,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청소년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및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인성·배려·나눔 함양을 위해 청소년 시기에 꼭 필요한 자원봉사활동, 기부활동 및 인성, 민주시민 교육 강화 지원이다(관계부처합동, 2012). 이를 통해 청소년정책 상의 청소년활동의 목표는 청소년의 역량강화임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이 강조되고 쟁점화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입학사정관제가 화두가 되었고, 문화예술활동, 진로체험활동 정책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는 자유학기제 도입이 검토되면서 청소년 체험활동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2011년부터 도입되어, 2013년부터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참여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아, 창의적 체험활동 시행에 따라 체험활동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김현철, 임희진, 정효진, 민경석, 2013).

이명박 정부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청소년활동인증제, 국제성취포상제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재량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시도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선 핵심공약이었던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여 중학교에서의 체험활동의 기회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다음 2016년에 전국의 중학교에 도입될 예정인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학생들에게 더 많은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따라서 자유학기제 도입 전후의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에 대한 상황 변화를 비교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매우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자유학기제 이외에도 최근 몇 년간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문화예술활동, 방과후활동, 주말체험활동, 진로체험활동 등 공적인 부문에서의 다양한 체험활동 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이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고(추미경, 강현석, 박종효, 신동호, 2011), 박근혜 정부도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국정과제 주요 추진계획에는 학교 문화예술 교육 및 토요·방학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꿈의 오케스트라’ 등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공연장, 박물관, 경기장 등의 할인·면제를 위한 청소년패스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관계부처합동, 2013). 직업체험활동에 대한 기회제공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이 각종 체험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어 체험활동이 청소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체험활동 참여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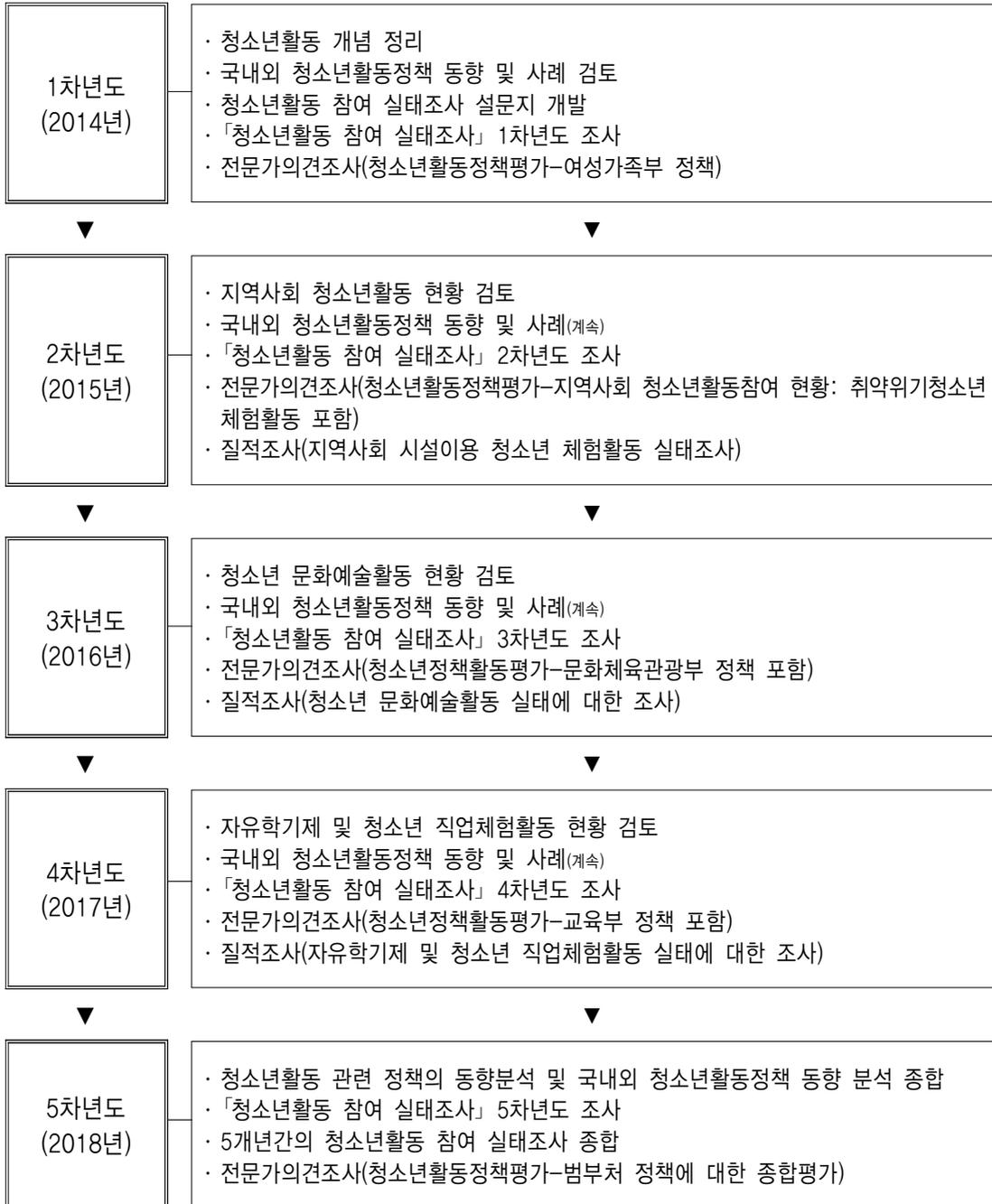
과거에는 체험활동의 기회가 학교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활발하지 않았고, 현재에는 학교에서의 기회도 많아지고, 지역사회와 가정에서도 기회가 많아지고 다양화되어 학교 안팎의 체험활동과 문화활동, 직업체험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근거 중심의 청소년활동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기회는 많아지고 있지만, 청소년 체험활동이 영역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청소년활동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 실태 조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기실태조사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참여의 변화양상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과학적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의 참여 실태를 조사하고,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청소년활동의 참여 실태와 효과성을 파악함으로써 과학적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청소년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학교에서의 교과중심 학습만으로는 청소년 역량을 증진하기에는 한계가 많음을 인식하고, 창의적 체험학습과 진로·직업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학기제 등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학습의 장을 제공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이 과학적 기반 위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이를 위해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문화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와 같은 국정과제의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2016년에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되기 때문에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적어도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되는 2016년을 기점으로 한 전후 2년, 즉 향후 5년간의 변화를 추적하는 일은 정책의 효과를 검증한다는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통해서만, 모든 상황을 다 검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질적인 조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향후 5년간의 연구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1차년도(2014년)에는 청소년활동 개념의 정리 및 국내외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동향과 청소년활동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설문문항개발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차년도에는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의 실시와 더불어 부가적으로 정책제언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의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차년도(2015년)에는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청소년활동정책의 동향 등을 계속해서 분석할 것이며, 2차년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의 실시와 더불어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참여 및 취약위기 청소년 체험활동 현황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등 지역사회 청소년시설을 이용한 체험활동 실태에 관한 질적인 조사를 부가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3차년도(2016년)에는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청소년활동정책의 동향 등을 계속해서 분석할 것이며, 3차년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의 실시와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을 포함한 청소년정책활동 평가를 위한 전문가의견조사, 그리고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실태에 관한 질적인 조사를 부가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4차년도(2017년)에는 자유학기제 및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청소년활동정책 동향 및 사례를 추가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4차년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의 실시와 더불어 교육부정책을 포함한 청소년정책활동 평가를 위한 전문가의견조사, 그리고 교육부 정책과 관련한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에 관하여



【그림 1-1】 연도별 연구추진 계획

질적인 조사를 부가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2017년은 자유학기제를 전면 도입한 2차년도이기 때문에 자유학기제와 진로체험활동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5차년도(2018년)에는 청소년 활동 관련 정책 동향과 청소년활동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이며, 5차년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의 실시와 더불어 5개년 간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를 종합하고, 부가적으로 범부처적으로 추진되는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활동정책의 활성화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1차년도에는 청소년활동정책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2차년도~4차년도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정책제안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이며, 5차년도에는 청소년활동정책의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그림 I-1]과 같다.

## 2. 연구내용

### 1) 청소년활동의 개념 정의

본 연구의 목적인 청소년활동 참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내용을 구성하기에 앞서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이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 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의 설문문항 개발

청소년활동 참여의 실태와 효과성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방식에 따른 참여도, 장애요인 및 요구, 관련시설 이용경험, 인식 및 태도 등의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 3) 실태조사 실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 참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향후 5년간 실시하여 반복횡단 통계자료를 구축한다. 조사는 학교급별로 한 개 학년에 대해 실시하며, 각 학교급에서의 체험활동 경험 기간 및 문항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 4)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조사결과 이외에 청소년활동정책의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해 학계 및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활동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3.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청소년 체험활동, 직업체험활동, 문화활동에 대한 문헌을 수집·분석하고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와 주요 국가의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에 대한 문헌자료를 검토하였다.

#### 2) 전문가 자문

청소년활동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내용 및 방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였다.

#### 3) 전문가 의견조사

청소년활동 관련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정책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조사할 설문문항의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의뢰하고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2014년 5월 15일~22일에 이메일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조사에 응한 15명의 전문가 의견을 분석하여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10월에는 정부의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청소년 활동 관련 학계 전문가 및 현장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7개 정책 관련 항목에 대해서 만족도와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조사는 2014년 10월 1일~8일에 실시되었으며, 조사에 응한 18명의 전문가 의견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청소년활동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 4) 설문조사

청소년활동의 참여 실태와 효과성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4년 조사에서는 체험활동, 문화활동, 직업체험활동을 주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모집단으로, 층화다단계집락추출법으로 4,500명을 목표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2013년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모집단을 교급(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으로 분류하고 16개 광역 시도별로 집락화하였다. 표본을 표집하기 위해 1차 추출 단위를 학교로, 2차 추출 단위를 학급으로, 3차 추출 단위를 학생으로 하고 학교별 학생 수를 반영한 규모비례확률표집법(PPS)을 적용하였다. 학교당 1개 학급을 선정하여 선정된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전수 조사하였다. 조사는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였으며, 2014년 6월 12일 ~ 7월 25일 기간 중에 조사원이 조사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학급단위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개요 및 표본설계에 대해서는 3장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 5) 전문가 워크숍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10월 29일에 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 워크숍에서는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을 협의하였다.



## 제 II 장

---

# 이론적 배경

1. 청소년활동의 개념 정의
2. 국내 청소년활동정책 동향
3. 해외 청소년활동정책 동향
4. 청소년활동 관련 연구 동향



## 제 II 장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활동의 개념 정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활동”은 매우 포괄적·다의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학계에서도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의견과 해석이 다양하며, 정책적으로도 혼돈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김민, 2010, 박철웅, 2010, 이종원, 장근영, 김호순, 2007). 청소년활동,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체험활동, 청소년역량, 청소년사업, 청소년육성, 창의적 체험활동, 문화활동, 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용어들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각 개념들은 상호배타적이지 않고, 많은 부분 중복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진할 실태조사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도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이 절에서는 각 용어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이러한 개념정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 1)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의 개념은 청소년정책 분야에서는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그렇지만, 청소년활동 개념은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기타 부처의 정책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결국 청소년활동 개념은 청소년정책 분야에서 사용되는 의미로 정의할 수밖에 없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본 절에서는 청소년활동의 개념을 청소년활동의 목표, 청소년활동의 내용, 청소년활동의 방법론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활동의 목표는 ‘발달과업의 수행’ 또는 ‘역량계발’로 요약될 수 있다. 지금까지

지 청소년활동은 주로 청소년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소년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에 필요한 발달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활동”(구태익, 2000), “청소년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개인적 또는 사회적 가치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정신적·육체적 행위 일반을 지칭하는 것”(한승희, 1994) 등으로 정의되어 왔다. 이 개념들은 대체로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그 목적을 대체로 ‘발달과업’이나 ‘개인적’ 또는 ‘사회적’ 가치나 목표의 실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적인 가치나 발달과업의 실현,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까지 매우 포괄적이다. 그렇지만, 발달과업도 결국은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청소년활동의 목표를 ‘발달과업의 수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발달과업의 수행’이라는 목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발달이론의 성과를 종합함으로써 제시될 수 있겠지만, 여러 발달이론의 성과를 하나로 종합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대표적인 발달과업의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블룸(B. Bloom)의 학습목표는 발달과업의 목표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대표적인 지표에 해당하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이기도 하다. 블룸은 발달과업을 ‘인지적인 발달’과 ‘정의적인 발달’ 그리고 ‘심체적인 발달’로 구분하였다. 세 가지 영역의 발달과업 역시 매우 포괄적인 영역에 걸쳐 있다. 최근 개발된 역량지표들은 발달과업의 수행여부를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가 될 수 있다. 김현철 외(2013)는 블룸의 학습목표와 여러 역량지표들의 관계를 하나의 틀로써 제시한 바 있는데, 향후 보다 진전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청소년의 발달과업이나 청소년역량 개념은 청소년활동과 동일한 수준의 개념이 아닌 목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목표는 프로그램의 효과로 나타날 것이며, 따라서 청소년활동 실태를 조사할 경우에 청소년활동의 목표달성 또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물론 어떤 지표나 도구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 또한 매우 난해하다. 김현철 외(2013)가 체험활동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청소년활동의 효과는 단기적인 체험활동보다는 장기적인 체험활동이거나 자발적인 경우에 보다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시점의 횡단조사를 통해서 그 효과를 엄밀하게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청소년활동의 내용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소년활동을 구성하는 하위의 범주들은 주로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분류되어 왔다. 현재로서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서 사용하는 청소년활동의 내용분류가 청소년단체나 시설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표 II-1>).

<표 II-1>의 9가지 활동영역은 매우 포괄적이지만, 각 영역은 완전히 배타적이지 않다. 뒤에서

살펴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분류나 문화활동의 영역분류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론적인 논의의 부족 때문에 조사도구에서 어떤 영역구분을 활용할지는 어떤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자료를 산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가 된다. 그러나 어떤 조사도구를 활용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활동의 내용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중복의 문제를 피하지는 못하더라도 활동의 내용은 충분히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내용분류는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참조할 수 있는 좋은 분류기준이 된다.

표 II-1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영역별 분류

영역	영역별 활동 예시(안)
건강·보건활동	신체단련활동, 약물예방활동, 흡연·음주·약물·비만 예방활동, 안전·응급처치활동, 성교육활동
과학정보활동	모형 및 로봇활동, 인터넷활동, 우주천체활동, 정보캠프활동, 영상매체활동 등
교류활동	청소년국제교류활동, 남북 청소년교류활동, 도농간 청소년교류활동, 국제이해활동, 다문화이해활동, 세계문화비교활동, 한민족청소년캠프 등
모험개척활동	탐사·등반활동, 야영활동, 해양활동, 오지탐사활동, 극기훈련활동, 호연지기활동, 수상훈련활동, 한국의 산수 탐사활동, 안전지킴이활동 등
문화예술활동	지역문화, 세계문화, 대중문화, 역사연극활동, 어울마당, 전통예술활동 등
봉사활동	일손돕기활동, 위문활동, 지도활동, 캠페인활동, 자선·구호활동, 지역사회개발 및 참여 활동 등
직업체험활동	청소년모의창업, 경제캠프, 사회생활기술, 진로탐색 활동, 직업현장체험 등
환경보존활동	생태활동, 환경탐사활동, 자연지도 만들기, 숲체험, 환경음식 만들기, 환경살리기 활동, 환경·시설 보존활동 등
자기(인성) 계발활동	표현능력개발 수련활동, 자기탐구활동, 자기존중감향상 프로그램, 자기표현활동, 심성수련활동 등

\* 원자료: 여성가족부(2011).

\* 출처: 여성가족부(2012b), 「2012 청소년백서」

셋째, 청소년활동 개념의 정의에 활동의 방법론적 특징이 반영되기도 한다. 긍정적 발달이나 자발적 참여를 청소년활동의 개념을 반영한 정의는 “실생활에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반 체험중심의 활동”과 같은 정의이다(김정명, 임상숙, 손미라, 윤혜영, 오순근, 1991). 청소년활동의 목표나 내용 못지않게 청소년활동에 대한 참여의 방식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정책이나 정책사업의 수준에서 보면, 청소년들의 참여활동은 청소년활동과 별개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다(박철웅, 2010). 청소년참여활동이 청소년활동정책에서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는 점도 청소년활동 개념을 혼돈스럽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청소년활동에서 자발적 참여나 참여적인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이러한 가치가 충분히 함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는 청소년활동의 방법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청소년활동 개념을 요약하면, ‘청소년의 발달과업이나 사회적 가치구현 그리고 역량개발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참여적인 일련의 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

## 2) 청소년수련활동

지금까지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서는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수련활동 개념으로 등치시켜 이해해 왔다(김민, 2010). 청소년활동진흥법 상 청소년수련활동의 외연이 너무 넓게 설정된 것도(김현철 외, 2013)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수련활동으로 등치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수련활동은 수동적이거나 훈육적인 의미가 강한 개념이어서(권일남, 오해섭, 이교봉, 2010), 자발성이나 자기주도성 그리고 참여라는 방법론적이고 가치론적인 의미를 청소년수련활동의 개념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는 것은 모순된다. 그렇지만, 청소년수련활동은 이미 교류활동이나 문화활동까지를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뒤에서 살펴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구분에서 수련활동이 매우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청소년수련활동 개념을 어떻게 평가하든 청소년수련활동 개념의 넓은 외연 탓에 청소년활동개념과 내용적으로 차별적이지 않다. 적어도 조사문항에는 두 개념 간의 차이를 반영할 수 없다. 설문대상자들에게도 이러한 점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는 청소년활동의 영역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활동내용 구분에 따랐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수련활동의 개념을 동일한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 셈이다.

### 3) 창의적 체험활동과 체험활동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도입되어 2013년에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개념은 내용적으로는 기존의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통합한 것이다. 2010년에 발표된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10)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창의적이고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나뉜다.

자율활동은 크게 적응활동, 자치활동, 행사활동, 창의적 특색활동으로 구분되며, 각 하위영역은 다시 더 세분화된 활동영역으로 나뉜다. 수련활동은 자율활동 중 행사활동에 속하는 활동에 불과하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수련활동이 매우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리활동은 학술활동,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실습노작활동, 청소년단체활동, 스포츠클럽활동, 또래조력활동 등으로 구분되고, 봉사활동은 교내봉사활동, 지역사회봉사활동, 자연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으로 구분되며, 진로활동은 자기이해활동, 진로정보탐색활동, 진로계획활동, 진로체험활동 등으로 구분된다(교육부, 강원도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네 가지 창의적 체험활동 역시 상호배타적인 영역이 아니며, 오히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이 네 가지 활동 간의 통합활동이나 교과와의 통합활동이 강조된다(교육부, 강원도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각각의 활동이 별개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기보다 통합적이거나 융합적인 활동으로 운영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체험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청소년활동과 구분되기 어렵다(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경, 2011). 창의적 체험활동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운영주체 등을 볼 때에도 두 활동내용 간에 유사성이 많다.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연계를 주요 수단으로 삼았고, 여성가족부도 교육과학기술부와 MOU를 맺는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두 부처의 연계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든 창의적 체험활동이 내용적으로는 학교교육과정으로써의 체험활동과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활동내용의 분류방법이나 운영주체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수요자인 청소년의 입장에서 볼 때 청소년활동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4) 청소년의 역량

청소년역량 개념은 청소년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부터 중요한 정책목표 중의 하나로 청소년역량개발이 강조되기 시작했고(국가청소년위원회, 2008),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관계부처합동, 2012), 현재는 학계와 현장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정책목표로 설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역량 개념은 청소년활동 개념의 목표 또는 성과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청소년활동의 결과로 인식하는 것은 최근에는 현장이나 학계에서 보편적인 일이 되었지만, 일각에서는 청소년역량 개념이 지나치게 교육편향적인 개념이라거나 청소년활동 본연의 목표달성에 혼돈을 가져온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청소년역량이 상당부분 학교교육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청소년활동을 교육활동과 분리하려는 의도를 가진 초기 청소년활동의 지향점과 최근 청소년활동을 교육활동과 통합하거나 연계하려는 입장 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중요한 개념으로 다뤄지고 있는 반면, 청소년 역량개념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규정되고 있지 않아 학계와 현장의 혼돈을 불러오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청소년의 역량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개발된 다양한 청소년역량지표를 어떻게 학문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또 정책적으로 어떤 지표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다. 김현철 외(2013)의 체험활동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다양한 내용의 청소년활동들은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효과들로 나타난다. 효과들은 정의적인 발달과 인지적인 발달 그리고 심체적인 발달에 걸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아직까지 투입요인과 결과요인 간의 명확한 관계, 즉 어떤 활동의 내용이 어떤 역량으로 발현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청소년활동은 최소한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역량개발의 결과를 낳거나 또는 기대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소년역량개념 또는 청소년역량지표는 청소년활동의 결과요인 또는 종속변수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각의 청소년역량지표가 방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는 제한적인 문항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 5) 청소년사업 · 청소년육성

최근에는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사업의 개념으로 대체시키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이광호, 2012, 전명기, 2010). 이는 청소년활동 개념이 갖는 모호성에 대한 지적에서 출발한 것이며, 구미 국가들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한 마디로 청소년활동의 대상을 보다 보편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경향은 구미 국가들이 청소년들의 참여나 시민성계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동시에 소외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이라는 이슈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며, 역사적으로도 청소년사업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박선영, 2013, 이민희, 2013, 민전순, 2013). 청소년활동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사업이라는 개념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사업 개념은 청소년육성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청소년육성에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만큼 학교교육의 한계가 명확한 것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것이다(조영승, 1998). 학교교육을 통해서도 체험활동이 이전보다 크게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참여기회는 충분하지 않으며, 따라서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청소년활동을 강조하는 것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구미 국가에서는 청소년사업, 그리고 일본에서는 청소년육성 개념을 통해서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활동이나 체험활동을 청소년사업이나 청소년육성 개념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청소년활동이나 체험활동은 청소년사업이나 청소년육성의 하위개념으로 강조되고 있다. 구미 국가들의 경우에는 시민으로서의 참여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미 국가 청소년활동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김현철 외, 2013).

청소년사업이나 청소년육성의 개념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은 청소년활동이 일반 청소년들은 물론 취약위기 청소년들의 보호나 예방적 차원의 활동으로서 중요하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는 계층과 같은 사회적 배경에 따른 경험의 양적 질적 차이를 밝히기 위한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6) 문화활동 · 문화예술활동

문화활동의 개념은 청소년활동 개념만큼이나 포괄적이고 복잡한 개념이다. 문화활동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 청소년활동이나 교육활동, 스포츠활동, 여가활동 등 거의 대부분의 활동이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문화활동은 청소년수련활동과 병렬적인

관계에 있다. 반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서의 활동들은 많은 문화활동의 내용들을 포괄하며, 문화예술활동을 하나의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문화활동의 하위영역으로 볼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만 해도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체험활동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활동개념은 문화활동과 상당한 부분이 중첩된다. 그렇지만, 문화활동은 때때로 문화예술활동에 한정지어 활용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표조사 연구들을 보면,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임지연 외(2009)는 문화활동을 청소년활동의 하위 개념으로 두고, 청소년활동을 집단활동, 봉사활동, 문화활동, 야외활동, 스포츠활동, 교류활동, 시설이용 등으로 국한하여 사용하면서, 문화활동을 순수예술문화, 대중예술문화, 정보문화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문화자본지표로서 문화활동지표를 활용한 최섯별, 이명진(2013)은 문화활동을 ‘미술 전시회 관람’, ‘클래식 음악회/오페라 공연 관람’, ‘문학작품 읽기’, ‘연극 관람’, ‘뮤지컬 관람’, ‘무용 공연 관람(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의 여섯 가지 항목으로 제한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활동을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면, 문화활동은 주로 문화예술활동에 국한된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활동영역 구분에서는 문화활동의 개념을 사용하기보다는 문화예술활동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문화활동을 문화예술활동으로 한정짓는다면, 분명 문화활동은 청소년활동의 하위개념으로 봐도 무관하다. 그렇지만, 문화활동을 문화예술활동에 한정짓지 않고,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할 때는 청소년활동과는 더 많은 공통의 분모를 갖게 된다. 따라서 문화활동을 문화예술활동에 국한한다면 개념의 혼돈은 비교적 적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서 분류하는 청소년활동(청소년수련활동)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광의의 문화활동 개념 역시 거의 대부분 청소년활동과 중첩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청소년활동 실태조사에는 동시에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실태조사의 내용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 7) 종합 및 시사점

지금까지의 청소년활동 개념 및 관련 개념들에 대한 논의를 종합할 때, 청소년활동 실태조사에 반영될 청소년활동에는 활동의 영역, 참여의 방식, 활동의 결과라는 세 가지 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청소년활동 개념은 내용상으로는 청소년수련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문화활동의 개념과 유사하다. 내용상의 차이보다는 운영주체에서 차이가 난다. 운영주체가 학교인지, 청소년 단체 또는 시설인지 아니면 문화단체인지의 차이지만, 각각의 주체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운영주체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은 유사한 정책영역에서 활용하는 체험활동이나 문화활동의 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활동의 영역 분류방식은 분류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의 내용을 거의 대부분 포괄하고 있다. 다만, 동아리활동이나 봉사활동 등 활동 참여방식은 영역구분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활동 참여의 방식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가능한 참여방식이며, 따라서 참여방식은 활동의 영역과의 별도의 조사항목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활동의 결과 또는 목표 개념은 ‘발달과업의 수행’ 또는 ‘청소년 역량의 계발’에 있다. 청소년역량 개념은 청소년활동 개념과 혼돈스럽게 사용되기도 하고, 청소년역량 계발을 목표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청소년역량 개념을 발달과업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때, 청소년역량을 청소년활동의 목표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실태조사는 청소년활동의 결과인 발달과업이나 청소년역량을 측정하는 항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 2. 국내 청소년활동정책 동향

청소년활동을 비롯한 청소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주관 하에 관계부처합동으로 수립된다.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은 많게는 19개 부처에서 분산되어 실시되고 있지만(김현철 외, 2013: 116), 본 절에서는 국내의 청소년활동정책을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통해 개괄한 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활동정책과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정책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비전은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핵심인재로 양성, ②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권리증진, ③ 청소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④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목표로 설정하고, 2017년까지 26개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청소년의 역량, 참여, 균형, 안전을 목표로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삶의 만족도’, ‘청소년의 행복감’을 비롯한 12개의 주요 지표를 선정하고 전망하였는데, 이 중 체험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표는 ‘청소년수련시설 체험활동 인원수’와 ‘청소년 단체활동 참여율’이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체험활동 인원수를 2017년까지 48백만명(‘11년 42백만명)으로 증가시키고, 청소년 단체활동 참여율도 2017년까지 50%(‘11년 37.5%)로 높인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2)

15개 중점과제 중 청소년활동과 관련이 있는 과제는 1-1.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3-3.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 지원, 5-2.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의 3개 과제이다(<표 II-2> 참조). ICCS(2009)의 조사 결과를 보면(관계부처합동, 2012 재인용), 15세 청소년의 기부단체 참여활동율은 조사 대상 36개 국가 평균이 29%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8%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활동 인프라도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읍·면·동(전국 3,477개)별로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2011년 현재 215개소로 설치율은 6.2% 수준으로 설치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성교육과 체험활동 증진을 위해 청소년 시기에 꼭 필요한 건전한 성장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등 활동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진로체험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강화되고 지역사회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양질의 청소년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자의 역량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직무환경 전반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청소년지도자의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임금을 현실화하는 등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역량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청소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II-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 활동·문화 활성화 관련 과제 개요

영역	중점과제	정책방향	정책과제
01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1-1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 확대</li> <li>-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li> <li>- 청소년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및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li> <li>- 인성·배려·나눔 함양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2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li> <li>1-1-3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li> <li>1-1-5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li> <li>1-1-6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li> </ul>

영역	중점과제	정책방향	정책과제
		위해 청소년 시기에 꼭 필요한 자원봉사활동, 기부활동 및 인성, 민주시민 교육 강화 지원	1-1-7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
03 청소년의 복지 및 자립 지원	3-3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 지원	- 청소년 진로체험 및 진로교육 활성화	3-3-1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진 3-3-2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3-3-3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
05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5-2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및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처우 개선	5-2-1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 5-2-2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 자료: 관계부처합동(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1)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활동정책<sup>1)</sup>

최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활동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동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지난 2년 동안의 잇따른 사고<sup>2)</sup>로 인하여 빚어진 상황이며, 다른 하나는 청소년역량계발을 목표로 한 청소년활동정책의 변화, 나머지 하나는 교육정책과의 연계활성화이다. 이 세 가지 모두 논쟁적인 사안들이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활동정책을 혼돈스럽게 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근본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첫째, 청소년활동은 잇따른 청소년활동 관련 사고의 여파로 적지 않은 청소년시설들이 도산위기를 맞았고, 잠재적 도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김민, 2014). 최근 몇 년간은 사회전반적으로 청소년체험활동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안전에 대한 무대응은 오히려 더 큰 걸림돌이 되어 버렸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그간 너무 많은 임의규정으로 청소년활동을 진흥시키는데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던 상황에서 잇따른 사고로 인하여 규제관련 조항(예, 제9조 청소년수련

1) 본 절은 전문가 의견조사(제5장 참조) 결과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2) 국토수련대장정 수련활동 폭행 및 성추행사건, 태안 사설해병대캠프 참사, 세월호 참사 등

활동사전신고제)은 오히려 강화된 양상이 되어 버렸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의 중요성은 강화되었다. 그렇지만,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김차연, 2014). 청소년활동정책의 전반적인 재구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지금까지의 모든 청소년활동정책을 되짚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청소년활동정책이 태동한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가 더욱 가속화될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될지는 아직 속단하기 힘들다. 분명 작금의 위기상황은 가장 주목해야 할 정책환경변화이지만, 쉽게 결론지을 수 없는 혼돈의 상황이다.

둘째, 청소년활동정책에서 역량개발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보다 한층 청소년의 역량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청소년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역량강화’,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2). 청소년의 역량개발은 분명히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다. 그렇지만, 청소년활동진흥법 상의 청소년활동과 역량개발을 강조하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오랫동안 청소년활동정책의 이념으로 강조되어 왔던 청소년육성개념은 아직 상호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역량개발이라는 목표와 기존의 사업들이 부자연스럽게 매칭되어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역량을 목표로 하는 것이 청소년활동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청소년육성에 반한다는 입장과 청소년역량이라는 목표의 설정은 타당하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재정리되어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청소년역량이라는 목표설정이 새로운 정책목표로서 타당하다는 입장 등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셋째, 최근 몇 년간 그 어느 때보다도 청소년활동정책과 교육정책이 활발히 연계되고 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도입된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는 2016년에 전면도입될 자유학기제와의 연계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진로교육과의 연계 노력도 활발해지고 있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도 이미 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한 진로교육 지원강화가 주요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다(관계부처합동, 2012). 자유학기제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중앙 공공기관 협업체로 참여하고 있으며(최상덕, 2013), 진로교육중앙협의체에도 관여하고 있다(김승보, 진미석, 한상근, 이지연, 이운진, 2013). 지역 차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운영과 관련해서 이미 많은 청소년기관들이 학교와 협업을 이루고 있고, 일부 청소년기관들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들과도 협업하고 있다(최상덕, 2014). 청소년기관들이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연계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입장이 갈려 있는 상황이며, 교육정책과의

협업관계에는 좋은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다. 분명 교육정책과의 협업관계를 통해서 청소년기관의 지역사회에서의 위상과 인지도는 높아졌지만,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연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 2) 교육부의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

교육부가 추진하는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은 크게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그리고 진로교육으로 나뉜다.

첫째, 창의적 체험활동은 2009년 개정교육과정으로 신설된 후 2013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학교급 또는 학년에 따라 주당 3~4시간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2009년 국가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몇 차례 부분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012년에 중학교 과정에 신설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활동으로 편성되었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네 가지 영역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통합적인 활동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가 도입됨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자유학기제와 연동되어 운영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중앙단위조직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며,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창의인성교육넷(www.crezone.net)의 운영을 통해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며, 창의체험자원지도(CRM: Creative activity Resource Map)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부센터(www.teachforkorea.go.kr)를 운영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는 학교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100대 교육과정우수학교, 창의·인성모델학교, 창의경영학교, 학교문화개선 연구·선도학교 등 다양한 실험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기록하는 에듀팟(edupot)은 나이스(www.neis.go.kr)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교육부, 강원도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표 II-3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원시스템 내역

항 목	내 용	운영주체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주당 3~4시간 운영	단위학교(초·중·고)
창의인성교육넷 www.crezone.net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정보제공	한국과학창의재단
에듀팟 www.neis.go.kr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록	교육부
교육기부센터 www.teachforkorea.go.kr	교육기부 자원발굴 및 연계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의적 체험활동지원센터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시·도교육청
모델학교운영	교육과정우수학교, 창의인성모델학교 등	교육부

\* 출처: 교육부, 강원도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체험활동(중학교)」에서 재구성

둘째, 자유학기제는 2014년 현재 80개의 연구학교와 732개의 희망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에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자유학기 중에는 오전에는 교과수업(공통과정)이 운영되고, 오후에는 체험활동이 중심이 되는 자율과정이 운영된다. 자율과정은 진로체험활동,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학생선택프로그램활동으로 구분된다. 자율과정은 학교에 따라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 교과수업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현재는 연구학교와 희망학교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역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중앙차원에서는 17개 공공기관이 자유학기제 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활동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법제처, 문화재청 등 8개 범부처 차원의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중앙차원에서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는 한국교육개발원 내에 자유학기제지원센터(freesem.moe.go.kr)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시·도교육청 단위에서는 자유학기제장학지원단이 구성되어 학교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자유학기제 역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이 성패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등 지역의 청소년기관과의 협력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교육부, 2014, 교육부, 강원도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최상덕, 2013, 최상덕, 2014).

표 II-4 자유학기제 운영 및 지원체계

항 목	내 용	운영주체
자유학기제 운영	오전(공통과정), 오후(자율과정)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freesem.moe.go.kr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 및 지원업무 총괄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 지원중앙협업체	체험활동 관련 공공기관 및 부처간 협력	중앙공공기관 및 부처
자유학기제 장학지원단	교사연수, 학교컨설팅 등 추진	시 · 도교육청

\* 출처: 교육부(2014), 교육부, 강원도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최상덕(2013), 최상덕(2014)을 참고로 재구성

셋째, 진로교육정책은 최근 교육정책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며, 최근의 진로교육 정책은 진로체험활동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진로교육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진로와 직업’ 교과가 확대되고, 2011년부터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선발·배치되기 시작하여 2014년까지 약 95%의 중등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학교교육과정에 분산되어 있는 진로교육 요소들을 통합·연계하는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 School Career Education Programs)이 보급되고 있다.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인하여 체험활동 중에서도 특히 진로체험활동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연간 직업체험 학생수는 2011년에 67만 명이던 것이 2012년에는 146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193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진로체험처를 확보하거나 내실 있는 진로체험활동을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에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지자체, 산업체 등이 참여하여 체험처를 발굴하는 진로체험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진로체험기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온오프라인 진로체험을 연계하는 시스템인 진로체험지원전산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커리어넷(www.career.go.kr)은 직업, 자격, 진학 등 진로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서비스 사이트로 학교나 지역의 진로교육지원 기관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이지만, 전국 17개 시도에 진로진학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교육부, 2014, 김승보, 진미석, 한상근, 이지연, 이윤진, 2013, 이지연, 2014).

**표 II-5**      **진로교육 운영 및 지원체계**

항 목	내 용	운영주체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전국 중등학교 배치 (2014년까지 94.5%)	교육부
커리어넷 www.career.go.kr	직업, 자격, 진학 등 관련 정보 제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시·도진로진학센터	진로·진학 통합 서비스 제공	시·도교육청
진로체험지원단	단위학교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출처: 교육부(2014), 김승보, 진미석, 한상근, 이지연, 이윤진(2013)을 참고로 작성

### 3) 문화체육관광부의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으로는 크게 예술강사지원사업, 건전 가족문화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체험활동 지원사업,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업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들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첫째, 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국악분야로부터 시작하여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8개 분야로 확대된 예술강사지원사업은 2013년에 7,254개교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며, 2014년에는 7,809개로 확대되었고, 2017년까지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와도 연계하여 학교 예술강사지원사업을 자유학기제 운영 중학교를 우선으로 지원하고, 지역특성화 및 상상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자유학기제와 연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둘째,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단위 문화예술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새로운 가족문화 확산 노력 이외에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체험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화합 및 세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가족의 위기와 해체를 극복하고 가족 간 소통과 행복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2013년에는 600개소였으나, 2014년에는 700개소로 증가하였고, 2017년까지 1000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셋째, 문화적으로 소외된 아동과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교육부와의 협업 사업으로 추진되는 ‘예술꽃 씨앗학교’는 농산어촌 등 문화취약지역의 소규모 학교에 전교생 1인 1예술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3년에는 13개 학교에 지원되었고, 2014년에는 43개 학교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17년에는 100개 학교가 지원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서도 지역아동센터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무부 및 여성가족부와의 협업을 통해서도 청소년비행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넷째,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문화예술교육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한국형 엘시스테마인 ‘꿈의 오케스트라’를 들 수 있다. 박물관, 미술관 등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영국의 ‘요크시 빌리지 캠프’를 벤치마킹한 지역 특화 문화예술캠프 ‘우리마을 예술마당’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6 문화예술교육 일람**

항 목	내 용
예술강사지원사업	초·중·고등학교 예술강사지원 및 자유학기제 연계
건전 가족문화조성 문화예술교육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하는 문화예술교육,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연계
문화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대상 예술꽃 씨앗학교 및 학교밖 청소년지원
지역 커뮤니티 연계 문화예술교육	꿈의 오케스트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우리마을예술마당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4)로부터 작성

#### 4) 종합 및 시사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은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계되고 있다. 특히 자유학기제는 각 부처의 긴밀한 연계를 필요로 하고, 각 부처의 계획에는 자유학기제와의 연계가 포함되어 있다. 여성가족부 및 청소년기관들도 자유학기제 시행을 앞두고 연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난점에 봉착한 사례들도 많이 있어서 현장에서는 자유학기제와의 연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 문제의 근원을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청소년기관에 할당된 예산이 없다는 점에서 찾는다. 연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도 있으나(김현철 외, 2012), 연이은 사고의 여파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청소년기관들로서는 연계가 마냥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활동정책을 보다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정책의 방향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역량증진을 목표로 삼는다면, 이를 목표로 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모든 정책사업을 정교하게 연계시켜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문화예술교육 등 관련 부처의 사업들도 청소년의 역량증진이라는 목표 하에 어떻게 연계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목표와 전략이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교육부의 경우에는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지역의 다양한 기관이나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미 일부 청소년기관 중에는 이들 관련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고, 이 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하는지 비전과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설사 아무리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가 청소년활동정책의 본연의 일과 다르다고 판단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역의 각 기관들은 이러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활동정책의 흐름은 물론 각 부처의 사업이나 관련된 사업의 전문성, 예를 들면, 진로교육관련 전문성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하고,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에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하여야 한다.

### 3. 국외 청소년활동정책 동향

독일, 프랑스, 덴마크, 영국, 핀란드, 스웨덴, 일본의 청소년활동정책 사례를 살펴본 김현철 외(2013)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사업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든 지방정부 차원에서든 다른 정책 사업들과 연계되거나 통합적으로 추진된다. 둘째, 대부분의 나라들이 청소년들의 참여활동을 강조한다. 이 같은 특징은 몇몇 나라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유럽연합의 청소년전략이며,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 전략을 따르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무엇보다 자원봉사와 자발적 참여 유도를 중요시하고 있다. 셋째, 유럽 국가들은 특히 사회통합이

라는 측면에서 소외계층의 문화참여와 사회참여를 강조한다. 체험활동이 문화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현철 외(2013)에서 다루지 않은 미국, 호주, 네덜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유럽연합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현철 외(2013)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국의 경우에는 청소년활동정책이나 청소년 체험활동 또는 청소년 문화활동정책이 다른 청소년정책들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을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절에서 다루는 각국의 사례는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정책들이지만, 그 범주는 국가마다 다르다. 그러나 각국의 정책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청소년활동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기에 충분하다.

### 1) 미국의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sup>3)</sup>

미국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은 12개의 연방 부처와 5개의 연방 기관<sup>4)</sup>이 관장한다. 각 부처와 연방기관의 실무그룹들은 연방, 주, 지역 차원의 아동보호사무국, 정부조직, 비영리 기구, 학교, 가정, 청소년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자문을 구한 다음, 그로부터 몇 가지 주제를 도출하여 청소년 비전(vision for youth)을 수립한다. 이 비전의 핵심적인 내용은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지와 학습장소와 일터를 만들고, 청소년들이 의미 있는 관계설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IWGYP, 2013: 1). 미국의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은 독립적인 정책이 아닌 통합적인 정책으로 추진된다. 「Pathways for Youth」 보고서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특히 취약 청소년, 특히 학교, 일터, 가정에서 소외된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절과 소외가 청소년 개인의 잠재성 계발은 물론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미국의 청소년활동정책은 취약한 청소년들을 돕는 과정에서 연방 차원의 조율과 조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Pathways for Youth」는 청소년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방 차원의 협업에 특별히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실무그룹은 해당 파트너 기관, 관련된 주요 연방 조정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Pathways for Youth」와 연방 전략 플랜을 조율한다(IWGYP, 2013: 1).

3) 이 절의 내용은 미국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Youth Programs(WGYP)가 작성한 “Pathways for Youth” 보고서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이다.

4) 농무부, 상무부, 국방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안보부, 주택도시개발부, 내무부, 사법부, 노동부, 국무부, 교통부, 국가지역사회봉사단, 국립과학재단, 국립마약통제정책사무국, 환경보호청, 중소기업행정처 등이다(WGYP, 2013: .5-6).

「Pathways for Youth」는 상호관련성이 있는 세 가지의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목표는 협력과 조정이고, 두 번째 목표는 근거 중심 및 혁신전략이며, 세 번째 목표는 청소년 참여와 동반관계이다.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지원정책이 단순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관간·지역간 또는 중앙과 지역간의 상호협력과 근거를 가진 전략을 취한다는 특징이 있다. 세 번째 전략적 목표인 ‘청소년 참여와 동반관계’는 청소년과 성인의 동반자적인 관계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청소년이 삶과 리더십 기술 등의 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방, 주,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IWGYP, 2013: 1-2). 세 번째 전략목표가 미국의 청소년활동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Pathways for Youth」가 강조하고 있는 네 가지 주안점은, 청소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청소년 관련 주제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만들어 내고, 청소년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긍정적 결과를 산출해내며, 청소년 참여 및 동반관계 전략을 포함해 근거 기반 전략에 관한 정보를 일원화하고,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IWGYP, 2013: 1-2).

세 번째 전략적 목표인 청소년 참여와 동반관계는 미국의 청소년활동정책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잘 보여준다. 이 같은 전략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무그룹은 전미 4H리더컨퍼런스, 케어 컨퍼런스 시스템, 장애인전국체전, 학교집단따돌림추방회의, 교통안전컨퍼런스, 캘리포니아 가정위탁교육회의 등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세션을 개최하고, 여기서 수립된 주제들을 보고서에 담았다(IWGYP, 2013: 9).

연방, 주, 지역 차원에서 청소년 지원기구들이 의사결정에 파트너로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일을 한다. 전국에 걸쳐 청소년들은 성인과 파트너가 되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자신만의 재능과 역량을 기른다. 컨퍼런스에서 발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의를 계획하는 데에도 참여한다. 단순히 행사 진행요원을 도와주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요원들을 고용하는 일에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결과를 해석하며, 조직이 공유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개발하는 일도 돕는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청소년은 보다 광범위한 공적 영역에서 정보와 메시지를 전파하는 능동적 주체로 활약하고 있다(IWGYP, 2013: 25).

이러한 모든 일이 모두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일들은 아직은 발전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개선을 위해서 프로그램의 참여의 정도와 질을 측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도구가 개발된 것은 아니다. 보다 개선된 도구의 개발은 아직은 과제

남아 있다(IWGY, 2013: 25).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협업의 노력과 FindYouthInfo.gov를 통한 다양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FindYouthInfo.gov와 소셜미디어의 활용은 청소년 관점과 이슈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된다(IWGY, 2013: 25).

청소년들의 참여는 긍정적인 청소년 발달이라고도 하고, 청소년 발달이나 청소년의 참가 또는 청소년의 참여, 청소년-성인의 동반관계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청소년에게 자신감과 능력을 높여주고 학업 성취도를 제고하며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예방할 뿐 아니라 안전감과 소속감, 효율감 및 권한부여 감정을 고무한다는 점을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Zeldin, Petrokubi & Camino, 2008, Rose-Krasnor, 2009, Zeldin, 2004, Zeldin, McDaniel, Topitzes & Calvert., 2000; IWGY, 2013: 26에서 재인용).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가 강조된다. 하나는 청소년과 성인이 모두 함께 개입하는 것이고, 둘째는 효과적인 공동의 작업을 위해서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별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며, 셋째, 조직이 지역사회 파트너 및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다(IWGY, 2013: 26). 또한 청소년 대상 집단이 획일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이한 지역과 환경, 다른 연령대, 서로 다른 발달 단계로 구성된 특수한 청소년 집단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차별적인 전략도 강조된다.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엄정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Morton & Montgomery, 2011, IWGY, 2013: 27에서 재인용). 청소년 참여활동을 만족도, 빈도수, 참여형태, 참여 준비정도 등에 따라 차별화시키고 청소년의 역량 계발 정도에 따라 조정하고 심화시키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IWGY, 2013: 27).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Findyouthinfo.gov를 통해서 제공된다. 방과후 활동에 대한 정보사이트는 별도로 운영되다가 Findyouthinfo.gov에 통합되었다. Findyouthinfo.gov가 미국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 뿐만 아니라 교육, 보호, 집단따돌림, 복지 등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주제와 관련된 정보가 제공된다(Findyouthinfo.gov 참조). 이 내용들 중 청소년활동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적시할 수는 없지만 대략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활동프로그램, 서비스 러닝(service-learning) 프로그램, 직업훈련 등 성인기 이행프로그램, 긍정적 발달 프로그램 등이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청소년 관련 정책 역시 통합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카렌 피트만(Karen Pittman)과 그의 동료들(the Forum for Youth Investment: <http://forumfyi.org>)이 취약·위기 청소년들에

대해 보호하는 방식이 아닌 긍정적인 발달을 가져오는 방식, 즉 참여와 연계, 다양한 활동 등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긍정적인 발달은 단순히 보호중심에서 보다 긍정적인 발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사업의 통합적인 추진을 지향한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적 지향과는 별개로 각 지역, 모든 학교에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강조한다. 혹자들은 미국학교가 너무 스포츠를 강조한다고 비판하기도 하지만(Ripley, 2013), 미국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과 「Pathways for Youth」가 연방차원의 연계를 강조하지만, 주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2) 호주의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sup>5)</sup>

호주 내에는 청소년들이 가능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청년 기구들이 많이 있다. 이 기구들 중 일부는 청소년들에 의해 운영된다. 다른 기구들의 경우에도 청소년들의 참여 비중이 높다. 대부분의 기구들은 타인의 삶과 보다 넓은 의미의 사회,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 세계를 보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 전문성 그리고 가능성을 인정하고 활용하며, 성공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 예를 들어, ‘더 인스파이어 파운데이션(The Inspire Foundation)’은 ‘리치 아웃(Reach Out)’과 ‘액트 나우(Act Now)’라는 청소년들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잠재적인 사회적 문제에 대해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단체이다. 청소년들이 단체에 정보를 제공해 주고 청소년들의 정신적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켜주는 혁신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학생청소년연대(Student Youth Network, SYN)’는 자원봉사를 기반으로 하는 기구로 12세~25세 청소년들이 미디어 제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청소년연대는 청소년들이 제작한 미디어를 학생청소년연대의 라디오, 청소년 TV 방송 네트워크 및 인터넷 잡지를 통해 보여준다.

호주의 청소년활동정책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정부가 청소년전략을 수립하는 데 청소년들의 의견을 매우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참여활동의 지원이다. 청소년정책의 전략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삶을 꾸려 나아갈 수 있는 역량계발’, ‘청소년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고취’,

5) 이 절은 호주정부가 발행한 “호주 청소년을 위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Young Australians)”의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이다.

‘청소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탄력성 습득’, ‘건강하고 안전하며 생산적인 호주 건설’ 등이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들은 호주청소년포럼 및 전국 토론(Australian Youth Forum and National Conversation)을 통해 수립된 청소년들의 의견에서 도출된 것이다. 호주 정부는 2007년부터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정책의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청소년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 4월에는 ‘2020 청소년 정상회의(Youth 2020 Summit)’를 개최하였고, 2008년 10월에는 청소년부 장관(Minister for Youth)이 ‘호주청소년포럼(AYF: Australian Youth Forum)’을 발족시켰다. ‘호주청소년포럼’은 정부와 청년들을 서로 연계시켜주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삶과 희망 그리고 청소년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론하는 장이다. 이 포럼은 호주 청소년국(Office for Youth)에서 관리하는데, 모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행사, 웹사이트 상에서의 채팅, 위성통신, 이메일, 서신 혹은 트위터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청소년들도 ‘호주청소년포럼’에 참여하고 있다. 포럼은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의견까지도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서비스 제공업체를 참여시키고 있다. 수천 명의 호주 청소년들이 ‘호주청소년포럼’에 참여하고 있으며, 학교 폭력에서부터 빈곤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이 포럼을 통해 호주 청소년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호주청소년포럼’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소는 웹사이트(<http://www.youth.gov.au>)이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정부와 청소년들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2009년에는 83,000명이 이 포럼의 웹사이트를 방문했고, 14개 주제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는 피드백이 제공되며, 누구나 다음 토론 주제를 제시할 수 있다. 호주 청소년부는 청소년들의 의견이 청소년부 장관 및 정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호주청소년포럼’을 통해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의 관점에서 호주 정부 전반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 ‘호주청소년포럼’은 청소년들이 자신들 삶의 모든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와 연계될 수 있도록 돕는다. 2009년 10월~11월, ‘호주청소년포럼’은 청소년 전략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청소년,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기구, 청소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집중적인 토론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는 ‘전국 토론회 - 호주 청소년들을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Conversation - National Strategy for Young Australians)’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다. 토론 및 참여자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특정 주제에 대하여 정부 관계자와 원탁회의가 마련되었고, 각 지역의 하원 의원들과 커뮤니티 그룹이 ‘우리들의 포럼(Host Your

Own Forum)’을 개최하였다. 온라인 포럼과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들이 참여하는 ‘호주청소년포럼’ 웹(web)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호주청소년포럼’ 유튜브(YouTube) 채널을 통해 비디오가 게시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의견을 공유하였다.

### 3) 네덜란드의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sup>6)</sup>

네덜란드에서는 2007년에 청소년가족부가 새롭게 설립되었다. 청소년가족부는 ‘모든 아동에게 모든 기회를 제공(Every Opportunity for Every Child)’한다는 모토 아래, 건전한 양육, 안전한 양육, 사회참여, 인재양성과 여가, 미래의 직업준비 등 다섯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청소년활동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것은 사회참여와 인재양성 및 여가 그리고 미래 직업준비와 같은 목표들이지만, 네덜란드에서도 이러한 정책목표들은 상호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커뮤니티 스쿨의 운영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커뮤니티 스쿨은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활동과 서비스를 통합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커뮤니티 스쿨은 교육 및 기타 아동과 부모에게 중요한 다른 서비스들, 예를 들면 교육 지원, 돌봄, 보건소 등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커뮤니티 스쿨 개념은 아동과 아동의 부모가 참여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커뮤니티 스쿨에서의 다양한 활동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사회적 기술을 개선하고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참여를 통해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커뮤니티 스쿨은 사회적·교육적 취약성을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7)</sup>

여가시간과 자원봉사는 네덜란드 지방 당국이 주로 담당한다. 네덜란드 청소년들의 여가시간 활용 유형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획기적으로 변했다. 과거에는 많은 여가활동이 거리나 운동장 등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의 여가활동은 좀 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변화로 사회문화 시설과 청소년 자원봉사는 사람들의 관심을 점차 잃고 있다.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이 10년 전과 비교해 줄어든 것도 큰 변화 중의 하나이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보다 다른 활동에 시간을 사용하는 현상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2/3는 동아리활동에 참여한다. 네덜란드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활동은 스포츠이다. 4세~12세 청소년의 85%가 매주 한 시간 이상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다.

6) 이 절의 내용은 네덜란드 청소년연구소(Netherlands Youth Institute)가 발행한 “Youth Policies in the Netherlands”의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이다.

7) [www.bredeschoolnizw.nl](http://www.bredeschoolnizw.nl) 참조

16세~25세 청소년의 약 20%가 자원봉사활동을 한다(26세~64세 성인은 34%, 65세 이상 성인은 39%). 2004년에서 2006년까지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Care and Welfare)는 청소년들이 장기간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장려책을 도입했다. 청소년기관 및 스포츠 클럽 등 지역 차원에서 청소년 봉사자들을 위한 업무와 이들과 함께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원봉사기관에 중점을 두는 정책이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장려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네덜란드 청소년들은 자선활동보다는 ‘흥미 있는 일’을 찾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방과후나 주말에 일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이 점점 줄어든 반면, 친구와 지인들을 돕는 ‘비공식적인’ 지원활동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정부는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춰 자원봉사활동을 ‘현대화’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관을 좀 더 개방하고, 기관의 위원회 연령을 점차 낮춰 단기간에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도 청소년들의 참여정책을 중요한 청소년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청소년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의 참여’를 법규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참여를 지원한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체육부(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의 재정 지원으로 2001년에 설립된 ‘네덜란드 국립청소년위원회(Dutch National Youth Council, Nationale Jeugdraad)’는 청소년기관, 학생기관 및 사회기관을 포함한 25개 이상의 국립 청소년 기관을 대표하는데, ‘네덜란드 국립청소년위원회’는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청소년의 참가를 촉진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네덜란드 청소년가족부는 청소년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에 청소년상을 도입하고 있다.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2011년까지 모든 지자체에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의 참여수단을 마련하였다.

#### 4) 노르웨이의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sup>8)</sup>

노르웨이의 청소년활동정책으로는 크게 청소년의 참여 촉진 정책과 여가생활 개선 정책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청소년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가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역시 국제아동권리협약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아동과

8) 이 절의 내용은 노르웨이 아동가족부(Det Kongelige Barne- og Familiedepartement)가 발행한 “노르웨이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삶의 조건” (KBF, 2002a)과 “아동청소년복지백서” (KBF, 2002b)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이다.

청소년의 권리가 부각되면서 아동과 청소년을 하나의 자주적인 존재로 보는 인식이 강해지고, 이에 따라서 노르웨이 정부는 아동·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일회적인 참가(participation)뿐 아니라 지속적인 참여(engagement)를 강조한다. 이러한 참여가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열정 그리고 책임의식을 강화시킨다는 확신에서 출발한 정책기조이다. 각 코뮌<sup>9)</sup>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에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참여시킨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여러 공공기관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민주적인 가치 판단과 문제해결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 1990년대 학교 및 교육개혁(reform 94와 reform 97)에서는 학교 안팎에서의 참여활동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국가수준에서 할 수 있는 청소년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정치인들이나 정부당국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청소년들에게 주어진다. 아동 및 청소년 대표들은 회의나 토론회, 브레인스토밍이나 컨설팅의 형식으로 국가수준에서 참여한다. 이때 사용되는 방법은 미디어, 인터넷, 서신, 행동, 회의 등 다양하며, 추진 주체도 다양하다. 아동가족부가 주관하는 연차회의에 참여하는 청소년들 중에는 청소년조직의 구성원 이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청소년조직이 정치인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요구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국회에서 여름캠프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2000년에 열린 “국회에서의 여름캠프”에는 전국에서 100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참여활동의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장기간에 걸쳐 작성되었다. 이들은 국회에서의 활동을 끝내고, 지역에 가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활동을 이어갔다. 또한 아동가족부는 1998년에 16명의 15세~26세 청소년으로 구성된 유스포럼을 운영하였다(KBF, 2002a). 1990년대에는 34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구들이 만들어졌다. 청소년위원회, 아동청소년위원회, 지역학생위원회 그리고 청소년과 정치인들 간의 연대가 만들어졌다.

두 번째로 강조되는 청소년활동정책은 여가 및 문화활동 환경개선정책이다. 두 번째 정책은 첫 번째 참여활동과도 관련이 있다.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 단체들이 문화활동의 기획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KBF, 2002a). 모든 단체가 활성화되고 다채로운 문화생활 참여가 가능하도록 문화 및 여가활동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해 간다. 노르웨이 정부는 문화 및 레크레이션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문화부문 시민단체들이 청소년

9) 코뮌(Kommun)은 노르웨이의 지역 자치 행정 단위로 우리나라의 시·군과 유사한 행정단위이다.

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여가생활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화 및 여가활동 분야의 여러 단체들이 정부 공공기관과 학교, 경찰, 그리고 아동보호 서비스와 같은 기관들과 협력한다. 공공기관이 지향하는 활동과 시민단체 및 청소년들에 의해서 시행되는 여러 활동 간의 협력도 강조되며, 무엇보다 이러한 활동이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관심에 의한 참여로 이어지도록 한다.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조직 참가는 노르웨이 아동·청소년들 사이에 증가하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이다. 약 90%의 아동·청소년들이 조직이나 클럽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스포츠와 음악 관련 조직회원이 가장 많다. 이념이나 종교에 관련된 조직에 가입한 아동·청소년도 많다. 이 때 NGO의 역할이 중요한데, 노르웨이는 국제적인 NGO 자원봉사조직을 많이 가지고 있다.

1990년대를 거치면서 노르웨이는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교육 확산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으며, 그 결과 문화예술 기관들이 크게 늘어났다. 정부의 중요한 문화정책 중의 하나는 모든 지역에서 문화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전문적인 예술가나 문화활동 전문가와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정책의 기본골자이다. 장애를 갖고 있는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문화바우처를 위한 예산도 확보해 가고 있다(KBF, 2002a). 노르웨이는 지역에 많은 문화음악학교를 가지고 있으며, 그 역사는 196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에 12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음악학교를 만들었고, 1997년에는 340개의 지자체가 문화음악학교를 만들었다. 2000~2001학년도에는 431개 지자체가 문화음악학교를 만들었으며, 7만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이 문화음악학교는 노르웨이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5) 유럽연합의 Youth in Action<sup>10)</sup>

유럽연합은 “유럽 사회의 통합”을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대해 지원하고, 그 일환으로 유럽 청소년들의 교류와 권역 내 봉사활동 참여 등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Youth In Action」 사업(이하 YIA)을 통해 전문적인 지원 사업을 전개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07a). YIA는 유럽의회의 결의를 통해 2006년에 수립되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되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서 YIA의 핵심 목표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

10) 이 부분은 전명기 본부장(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집필하였음.

(young people with fewer opportunities)의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즉,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둘째,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들의 사회통합, 실천적인 시민성, 그리고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써 YIA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고, 폭넓은 사회적 연대를 지원한다 (European Commission, 2007b: 1).

유럽연합은 이러한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의 일반 시민성과 유럽 시민성 증진, 유럽연합의 사회적 결합을 촉진하기 위한 청소년간의 연대 발전과 관용 증진, 다른 나라 청소년간의 성숙한 이해 증진, 청소년활동과 청소년분야 민간 기관의 기능에 대한 지원체제 개선, 유럽 청소년 분야의 협력 증진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YIA의 프로그램별 각 세부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 유럽 시민성(European citizenship)
- 청소년의 참여(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
- 기회 부족 청소년 지원(Inclusion of young people with fewer opportunities)

위의 세부사업은 YIA의 핵심과제에 연결되어 있다. YIA의 주요 사업영역은 교류를 통한 유럽 사회통합 활동(Youth for Europe),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지원(EVS; European Voluntary Service), 국제적인 청소년분야 교류 및 훈련 네트워크 사업(Youth in the World), 청소년지원체제 (Youth Support Systems), 유럽 청소년활동의 협력 지원(Support for European cooperation in the youth field) 등이다. YIA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개요를 <표 II-7>에 제시하였다(박선영, 2013: 21). 박선영(2013)은 유럽의 청소년활동에 있어 YIA 프로젝트가 갖는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YIA는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성을 함양하고, 유럽 각국 공통의 사회문제인 청년실업과 관련해 고용가능성 증대를 추구한다. 둘째, YIA는 취약계층 청소년이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 청소년과 교류하고 해외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지원 차원에서도 청소년활동이 효과적인 접근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취약계층 청소년의 참여를

표 II-7 Youth In Action의 프로그램 개요

Action		하위 프로그램	내용
1	Youth For Europe	1.1-Youth Exchanges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을 만나 서로의 문화에 대한 교류
		1.2-Youth Initiatives	청소년이 직업 제안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
		1.3-Youth Democracy	청소년 참여증진을 도모하여 유럽 시민성 함양이 목적
		Multi-Measure projects	Action 1에 해당하는 활동 여러 개를 최대 18개월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프로그램
2	European Voluntary Service	하위프로그램 별도로 없이 Action 2 자체가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12개월까지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3	Youth in the World	3.1- Cooperation with the Neighbouring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상호 이해와 문화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3.2-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of the World	유럽연합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4	Youth Support System	4.1 - Support to bodies active at European level in the youth field	NGO의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4.2 - SUPPORT FOR THE EUROPEAN YOUTH FORUM	유럽 청소년포럼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4.3 - Training and networking of those active in youth work and youth organisations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를 통해 이들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4.4 - Projects encouraging innovation and quality	프로그램의 혁신과 질적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4.5 - Information activities for young people and those active in youth work and youth organisations	ICT 기술향상과 이를 통한 청소년참여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
		4.6 - Partnerships	장기간 교류프로그램의 파트너십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5	Support for European cooperation in the youth field	5.1 - Meetings of young people and those responsible for youth policy	청소년정책 전문가와 청소년정책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 출처: European Commission(2011). Youth in Action Programmes Guide 2011의 내용을 박선영(2013), p.21에서 재구성

활성화하고자 하는 시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YIA는 청소년들의 문화 간(intercultural) 감수성을 증대시킬 뿐 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방문하는 지역의 주민들과 지역에도 문화 간 감수성을 개발시킬 수 있어 성인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YIA는 청소년이 자국 내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청소년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유럽 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유럽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의 과정을 통해 도전정신을 고무시켜 청소년개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YIA 프로그램의 특징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체험과 이해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류활동과 사회참여와 역량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봉사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활동이 권장된다는 점에서 YIA 프로그램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 청소년 자원봉사활동(EVS; European Voluntary Service)은 “무형식(non-formal)의 학습 경험을 통해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사회적 통합에 필요한 그들의 개인적(personal), 교육적, 직업적 발달을 향상시키거나 성취하도록 하는 ‘무형식의 학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유럽연합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유럽에 걸친 “청소년의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 활동 참여 지원”을 통해 유럽 전체의 청소년 참여와 사회적 기여를 지향하는 청소년활동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전명기, 2007).

유럽연합은 청소년의 다양한 자발적 활동 참여 지원과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청소년의 유럽연합 내외에서의 다양한 자발적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의 유럽 및 국제적 수준의 자발적 활동에 대한 스스로의 동의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유럽연합 시민간의 연대 증진과 자신이 사는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 대중의 편익을 위한 비영리 무보수 활동에 청소년자원봉사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활동의 질적 수준 유지와 정보 제공을 위해 사업주관기관(project partners) 과 시행기관(coordinating organizations)을 선정하고, 사업시행기관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고, 청소년이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반드시 멘토를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으로서의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은 전문적이고 목적지향적인 활동으로서, 다음과 같은 활동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인정하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EVS) 활동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 단발적이고 비구조적인 봉사

- 기업에서의 인턴십
- 보수를 받는 일과 보수를 받는 일의 대체
- 오락이나 관광
- 언어연수과정
- 값싼 노동력의 착취
- 외국에서의 직업훈련 기간
- 단순 기금모금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본 YIA 프로그램의 특징 외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회 부족 청소년(young people with fewer opportunities)’에 대한 지원과 이들 청소년들의 사회적 통합과 실천적 시민성, 그리고 고용가능성 제고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소년활동 참여와 활용을 실천 전략의 핵심으로 운용한다는 점이다(European Commission, 2007b: 1-2). 기회 부족 청소년이란 사회·경제·문화·교육적으로 소외된 청소년,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청소년, 소외지역 청소년을 포괄한다(European Commission, 2007b: 3).

YIA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기회 부족 청소년 지원은 EU 차원의 사회적 과제, 즉 새로운 통합 사회의 실현을 위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 제고, 실천적인 시민성의 발현, 그리고 실질적인 삶의 영위를 위한 고용가능성의 제고 등과 같은 과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그 중에서도 특히 기회 부족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취약 집단이 과제 해결 과정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물론 YIA 프로그램이 이들 취약 집단의 청소년에게만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다양한 활동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회 부족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없이는 YIA가 추구하는 사회통합과 청소년 역량개발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복지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나 보호를 위한 보호 프로그램이 아닌 청소년활동의 기회 확대와 접근성 및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청소년복지나 보호의 과제를 해소하는 것이 최선임을 보여주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2013년까지 수행된 YIA 프로그램에 이어 EU는 YIA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2014년부터 「에라스무스 플러스(Erasmu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에라스무스 플러스」는 2014년 시작하여 2020년까지 운영될 EU 차원의 청소년활동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과

훈련, 그리고 스포츠를 통해 기술(skills)과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탐구, 훈련, 직업 경험, 그리고 해외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에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들의 핵심역량과 기술 및 고용가능성 향상, 청소년들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제고, 그리고 지역, 국가, 국제적 수준에서 청소년사업(youth work)과 청소년정책 향상을 지원 등을 지향한다.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의 주요 사업은 다음 세 가지이다. 핵심사업1(Key Action 1)은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에게 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해외에서 최대 1년간의 봉사활동을 할 기회를 갖게 된다. 청소년지도자는 해외에서의 훈련이나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거나 해외 청소년기구에서의 일자리 탐색, 관찰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핵심사업2(Key Action 2)는 기존 우수사업의 혁신과 교류를 위한 협력사업의 기회이다. 관련기관들은 다른 나라의 기관들과 협력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금의 지원을 받는 사업들은 참가국 간의 교육, 훈련, 그리고 청소년 지원에 대한 혁신적인 사례의 공유, 개발, 이전에 초점을 둔다. 핵심사업3(Key Action 3)은 정책 개혁에 대한 지원이다.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은 EU 회원국들의 정책 개혁을 돕기 위한 전략적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분야에서 청소년과 정책결정자들이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13세~30세), 청소년기관, 그리고 청소년분야 관계자들을 위한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기존 YIA가 EU 차원의 청소년 관련 사회적 현안을 문화 간 이해에 기반한 사회적 통합과 시민성 함양, 그리고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제고 등에 초점을 둔 사업이었다면,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은 다양한 자원의 개방적 공유와 통합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유럽의 미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기회의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6) 종합 및 시사점

이상의 외국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나라들이 청소년들의 참여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YIA 역시 마찬가지이다. 각국마다 참여의 정도나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직접 정책이나 지역사회에 참여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은 이들 나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고, 보다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이다. 온라인상의 참여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소년들의 온라인 친화성을 고려하면, 매우 유용한 전략이 된다.

둘째, 요구에 맞춰 대상별로 특화된 전략을 쓰거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합전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활동정책은 독립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지 않는다. 긍정적인 발달이란 단순히 참여를 통한 긍정적 발달만을 의미하지 않고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소외계층에게 시혜적인 서비스가 아닌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스웨덴, 핀란드와 마찬가지로(김현철 외, 2013) 노르웨이 역시 문화예술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북유럽국가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이러한 경향 역시 누구나 문화적으로 결핍됨이 없이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사회통합의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의 요구를 조사하고,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그리고 유연하게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의 요구에 정책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의 결과는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럽연합이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에 유럽연합의 청소년자원봉사활동(EV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상당수는 봉사시간을 위한 봉사 내지는 단순 일손 돕기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봉사활동확인증을 받기 위한 행사동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4. 청소년활동 관련 연구 동향

### 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관련 조사연구 동향

청소년활동진흥법이 2005년 2월 발효됨에 따라 청소년활동 참여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6년에 청소년활동 참여의 실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청소년활동진흥정책의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 활동참가 실태조사 연구」(장근영, 김기현,

2006)가 정부 주도로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청소년활동 참가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활동참여 현황을 확인하고 청소년들이 실제로 즐기고 참여하는 활동의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청소년활동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청소년활동 시설별, 프로그램 내용별, 프로그램 실시형태별 참여현황과 함께 지역별, 연령별, 시기별 청소년활동 참가 현황을 조사하고 이러한 청소년 활동 참가율과 청소년의 여가활동 특히 주 5일제 수업 실시 이후의 청소년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조사는 이듬해인 2007년에도 실시되었으며, 2007년에는 청소년활동을 여가활동, 체험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교류활동의 다섯 가지 하위유형으로 분류한 뒤 유형별 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경험과 횟수, 참여 계기, 참여시기 및 기간, 활동 만족도 등의 조사내용을 정리하고 청소년 하위집단(성/교급/지역/계층)별 응답결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청소년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가활동 참여, 청소년시설 이용경험, 주5일제 수업의 영향 등에 대한 조사결과도 다루었다(이종원, 장근영, 김호순, 2007).

「청소년 활동참가 실태조사 연구」는 이전의 청소년활동 관련 조사·연구가 개인 연구자나 민간/정부 기관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수행되었던 점, 조사가 청소년활동의 특정영역에 편중되었던 점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청소년활동 참여의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를 확보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조사가 계속 실시되지는 못하였다.

한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06년부터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를 수행하였고, 3차년도인 2008년에 청소년들의 문화자본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였다(최인재, 임지연, 김형주, 2008). 4차년도인 2009년에는 입학사정관제, 청소년활동인증제, 국제성취포상제 등의 정책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청소년정책에서 중요시되는 활동·문화·역량 영역의 지표체계를 구축하여 조사하였다(임지연 외, 2009). 이 연구는 청소년의 활동·문화 실태와 효과성을 파악하여 현재 부족한 영역의 활동과 역량을 파악함으로써 정책적 지원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활동·문화 지표의 개념화와 지표체계를 개발하였으며 지표체계의 각 영역에서 요구되는 핵심영역을 중심으로 세부 지표항목에 대한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활동·문화지표의 설문문항은 초등학생용 146문항, 중고등학생용 152문항이 개발되었다. 임지연 외(2009)는 이 조사가 청소년활동을 유형화하고 전국단위의 대규모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청소년활동의 유형구분과 활동의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연구자(연도)	조사명	조사대상	조사영역
여성가족부 (2012a)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9~2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문화(개인 활동 및 시설이용 경험 /미디어, 인터넷)</li> <li>- 가정생활(부모님과의 활동/부모님의 대화/안전/가정생활 만족도)</li> <li>- 학교생활 및 방과 후 활동</li> <li>- 진로 및 아르바이트(향후 진로 계획/진로교육 경험/진로체험 경험/장래 희망 직업/아르바이트 경험)</li> </ul>
임지연, 최인재, 김형주 (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Ⅲ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중1~고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경(청소년인구/생활여건)</li> <li>- 투입(청소년 기관 및 프로그램/청소년지도사/청소년정책 재정)</li> <li>- 과정(청소년 활동/청소년 단체/청소년 복지/청소년 상담/청소년 교류/청소년 자원봉사/청소년 선도 및 교정/청소년 보호/학교교육)</li> <li>- 결과(신체적 건강/정의적 특성/인지적 특성/사회적 역량/시민적 역량/진로 및 직업적 역량)</li> </ul>
임지연, 김정주, 김신영, 김민 (2009)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Ⅳ -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지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초4~고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활동(활동의식-활동가치, 활동태도/활동경험-집단활동, 봉사활동, 문화활동, 야외활동, 스포츠활동, 교류활동, 시설이용)</li> <li>- 청소년 문화(문화의식-문화가치, 문화태도/문화경험-순수예술문화, 대중예술문화, 정보문화)</li> <li>- 청소년역량(정서적/인지적/사회적/시민적/직업적 역량)</li> </ul>
이종원, 장근영, 김호순 (2007)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초4~초6 중1~중2 고1~고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활동을 여가활동, 체험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교류활동의 다섯 가지 하위유형으로 분류</li> <li>- 각 유형별 활동에 대한 참여경험과 횟수, 참여 계기, 참여시기 및 기간, 활동만족도</li> <li>- 여가활동 참여, 청소년시설 이용경험, 주 5일제 수업의 영향</li> </ul>
장근영, 김기현 (2006)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개발원)	초,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활동 프로그램별 참가현황</li> <li>- 일상생활과 청소년활동</li> </ul>

연구자(연도)	조사명	조사대상	조사영역
임영식, 문성호, 정경은 (2008)	청소년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효과성 척도 개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한국청소년진흥센터)	11~16세	- 과학정보, 봉사, 문화예술 - 교류, 직업체험, 모험개척, 환경보존
문성호, 문호영, 김용대 (2009)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 만족도 조사 (보건복지가족부)	초,중,고	- 실태, 만족도, 효과성(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관심도, 스트레스 해소, 긍정적 사고, 단체 활동 참여, 친구와의 관계, 학교선생님과의 관계, 학교생활의 즐거움, 학습의욕)
김현철 외 (201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유형모형 개발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초4~고3	-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만족도), 학업동기(내적/외적/무동기), 자아존중감, 몰입
김현철 외 (201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초6 중2 고2	-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도 및 참여방식 - 참여활동 장애요인 및 요구 - 체험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자아존중감, 동기, 몰입, 행복감, 학습활동참여

\* 자료: 김현철 외(2013) 보완

김현철 외(2013)는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조사 모집단으로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정부의 청소년활동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로서 청소년의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의 정책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2a)의 청소년활동 관련 조사항목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청소년 문화활동을 체험활동의 한 영역으로 다루었고, 영역의 구분은 정책의 구분보다는 청소년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청소년 체험활동의 실태를 체험활동의 참여정도와 참여방식, 시설 이용정도, 장애요인 및 요구,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로 살펴보았다. 체험활동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동기’, ‘자아존중감’, ‘몰입’, ‘행복감’ 등의 정의적 특성 변인을 사용하였다. Crean(2012)에 따르면 체험활동의 '참여의 폭(breadth)'과 '참여의 강도(intensity)' 그리고 '참여의 방식(specificity)'은 체험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 김현철 외(2013)의 연구에서도 체험활동의 폭과 강도는 체험활동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체험활동의 폭보다는 강도가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에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선영, 김희진, 강영배, 배경내(2013)는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실태를 고찰하기 위해 진로체험 경험유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프로그램 참가자의 태도, 진로체험 도움정도, 향후 진로체험 참여의사 및 개선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및 청소년들의 참여 동기 강화, 현장중심형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와 관련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체험프로그램 제공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2) 청소년활동 참여 효과 관련 연구 동향

청소년활동의 효과와 관련한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있었지만, 청소년활동의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그 효과변수도 매우 다양하여,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양한 투입요인, 즉 다양한 체험활동에 따른 다양한 효과(예, 자아정체감, 동기, 진로성숙도, 인지적 발달 등)를 검증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투입변수와 결과변수가 다양할 뿐 아니라 유사한 투입요인이라고 하더라도 대상도 다르고 투입의 조건도 달라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청소년활동 효과에 대한 연구를 메타분석을 통해서 파악하면 청소년활동의 효과에 대한 메커니즘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현철 외(2013)는 청소년활동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투입요인을 영역별 청소년 체험활동, 즉 교과활동,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 봉사활동, 사회참여활동, 문화활동, 통합활동으로 나누고 효과변수로서는 지적도구활용능력·사고력·창의력 등의 인지적 역량, 심층역량·사회적 상호작용역량·자율적 역량 등의 정의적 역량 그리고 신체적 역량으로 설정한 후, 투입요인과 결과변수를 대응시키고 각 영역별 투입요인이 어떻게 각각의 역량변수와 대응되는지를 분석해냈다. 투입변수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영역에 교과활동과 통합활동을 추가하여 설정하였지만, 체험활동 영역 구분이 학문적인 명확한 논거가 없고, 또 실제로 각각의 체험활동이 배타적이기 보다는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투입 대비 결과의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만, 외재변수의 중요성과 외재변수의 특징을 밝힌 것은 중요한 성과이다. 즉, 자발적인 참여일수록, 참여기간 또는 시간이 길거나 참여빈도가 높을수록 체험활동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목적에 따라서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였다(김현철 외, 2013).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질적인 요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외국에서는 청소년 체험활동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들이 우리나라보다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먼저 Cason과 Gillis(1994)는 야외에서 하는 체험활동(outdoor adventure program)이 미치는 효과를 다룬 논문 43편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자기개념, 타인에 의한 행동평가, 태도, 통제소(locus of control), 학교성적, 출석률 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울이나 불안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체험활동의 참여시간이 길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을 밝혔다. Neill(2002)은 야외교육프로그램(outdoor education program)의 효과를 다룬 메타분석을 이용한 논문 5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 팀워크, 자기개념, 대처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든 체험활동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며, 효과성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체험활동 효과의 지속성에 관해서는 일반화가 어렵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프로그램 운영조직, 참여자의 연령 그리고 프로그램의 지속 기간 등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Willson과 Lipsey(2000)는 모험개척활동의 효과를 다룬 28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반사회적 행동과 비행행동이 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강도가 센 활동과 치료목적의 프로그램의 효과가 큰 반면, 10주 이상의 장기 프로그램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Gillis와 Speelman(2008)이 모험개척활동의 효과를 다룬 논문 44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집단역동(대인관계, 응집력, 효과성), 신체조건에 대한 태도, 행동관찰, 자기개념,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며, 치료나 교육적 목적의 프로그램일 경우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Durlak et al.(2010)은 방과후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논문 75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기인식, 학교와의 유대감, 긍정적인 사회행동, 성취도평가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문제행동은 감소되었다. 그러나 모든 방과후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순차적이거나 적극적이고 집중적이며 명시적인 프로그램의 경우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 3) 종합 및 시사점

이상의 청소년 체험활동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청소년활동 실태조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활동 실태조사는 몇 차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로 편성되어 반복 조사되었지만, 조사지표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가 안정적인 조사이지만, 청소년활동

실태조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고, 조사주기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조사지표의 안정성 역시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것은 단순히 조사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청소년활동의 영역을 어떻게 구분해야할지 어떤 변인을 종속변수로 설정할지 등의 문제는 청소년활동정책 전반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도 관련이 되며, 청소년활동에 관한 학문적인 논의가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것과는 관련이 있다. 본 연구의 조사는 정책적인 활용도를 고려하여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조사지표를 기본틀로 하였지만, 조사결과의 중복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청소년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줄 공식적인 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보다 장기적인 조사의 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단순히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보다 과학적인 근거의 제시가 필요하다. 청소년활동의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성과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김현철 외(2013)에서 메타분석이 실시되었지만 보다 섬세한 분석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소개한 국외의 메타분석 논문은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 때문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가 향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미 메타분석 연구에 대한 문헌검토를 통해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모두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이것은 정책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동시에 향후 어떠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한다. 체험활동이라는 투입요인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논의, 그리고 역량지표와의 관련성 등이 더 섬세하게 연구되어야 하며, 동시에 어떠한 조건들이 체험활동의 효과를 높이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러한 바탕 위에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 제 Ⅲ 장

---

# 실태조사 개요

1. 조사개요
2. 조사대상
3. 설문지 개발 및 조사내용
4. 조사방법
5. 표본설계
6. 무응답 현황



# 제 III 장

## 실태조사 개요

### 1.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활동 참여 실태와 효과성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방식에 따른 참여도, 장애요인 및 요구, 관련시설 이용경험, 인식 및 태도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4년 6월 12일 ~ 7월 25일에 조사원이 조사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학급단위로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 2. 조사대상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조사 모집단으로 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문항난이도를 고려하여 6학년을 선정하였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1학년은 해당 교급에서의 활동의 경험이 1년을 넘지 않는다는 점과 3학년에서 조사협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2학년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본 수 4,500명을 목표로 층화집락추출법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III-1>과 같다. 총 172개 학교에서 5,012명의 학생이 조사되었고, 남학생이 52.2%, 여학생이 47.8%였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30.3%, 중학생이 33.9%, 고등학생이 35.8%(일반계 29.5%, 특성화계 6.3%)이었으며,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41.8%, 중소도시 39.5%, 읍/면이 18.7%였다. 가족구성은 양부모 가정이 94.7%, 한부모가정이 4.3%, 조손가정이 0.1%였다. 학업성적은 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9.2%, 중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2.9%, 하라고 응답한 학생이 27.8%였으며, 가정의 경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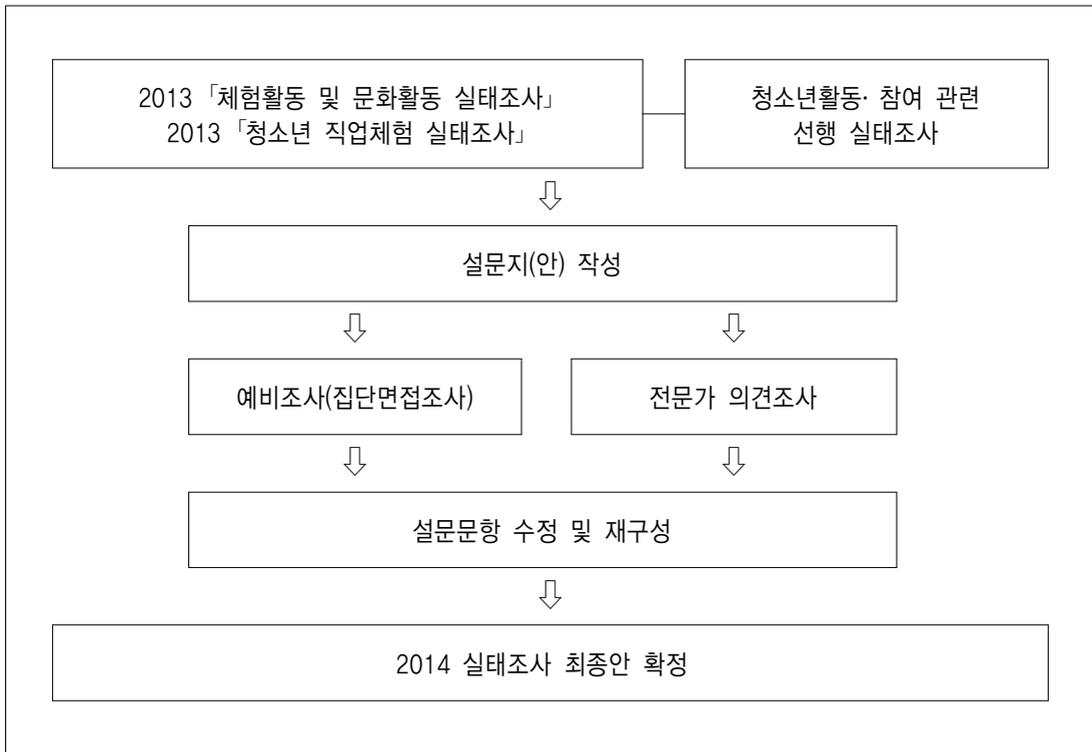
수준은 상이 39.0%, 중이 44.8%, 하가 16.2%로 자기보고식으로 조사된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도 정규분포에 가까운 분포를 보였다.

표 III-1 설문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사례수(명)	비율(%)
전체		5,012	100.0
성별	남자	2,618	52.2
	여자	2,394	47.8
교급	초등학교	1,517	30.3
	중학교	1,700	33.9
	일반계고	1,479	29.5
	특성화계고	316	6.3
지역규모	대도시	2,095	41.8
	중소도시	1,979	39.5
	읍/면	938	18.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4,744	94.7
	한부모가정	215	4.3
	조손가정	7	0.1
	기타	46	0.9
학업성적	상	1,454	29.2
	중	2,135	42.9
	하	1,383	27.8
경제수준	상	1,940	39.0
	중	2,230	44.8
	하	804	16.2

### 3. 설문지 개발 및 조사내용

조사의 목적은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김현철 외(2013)의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내용, 안선영 외(2013)의 「청소년 직업체험 실태조사」 내용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청소년 활동·문화 관련 선행 실태조사를 검토하고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실태, 문화예술 체험 실태 등에 대한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 초안에 대해서 예비조사(집단면접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III-1】 설문지 개발과정

예비조사는 5월 10일과 11일 양일에 32명의 대상자에 대해서 갱서베이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조사 실시 후 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세한 의견 파악을 위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체험활동 참여방식과 참여도 문항의 가독성 개선 문제와 참여도의 척도가 소극적, 적극적, 매우 적극적으로 구성되어 응답하기 어렵다는 의견, 문항의 배치순서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체험활동 참여방식과 참여도 문항의 가독성을 개선하고자, 10개 영역을 각각 개별 설문 문항으로 재구성하였고, 참여도에 있어서도 소극적과 적극적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척도의 모호성을 개선하였다. 문항의 배치도 응답자의 생각의 흐름을 고려하여 체험활동 경험 여부를 묻은 후, 활동 참여 전후의 교육 여부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배치를 바꾸었다. 설문의 난이도는 초등학교 6학년에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III-2 예비조사를 통한 수정내용

문항	의견	수정 전	수정 후
체험활동의 참여방식 및 참여도	설문구조 복잡 가독성 개선 필요	· 참여도 선택 후 참여방식 선택	· 10개 영역을 10개 문항으로 분리 · 각 참여방식별 참여도 선택
체험활동 참여도	척도의 기준 모호	· 전혀 참여하지 않음 ·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 참여하지 않았음 · 소극적으로 참여함 · 적극적으로 참여함
체험활동 참여 전후 교육 여부	응답 편의성을 위해 문항 재배치 필요	· 체험활동 경험 여부 → 진로체험 → 체험활동 참여 전후 교육 여부	· 체험활동 경험 여부 문항 다음으로 문항 재배치
공부하는 이유에 대한 생각	약간 아니다와 약간 그렇다의 기준 모호	· 절대 아니다 · 아니다 · 약간 아니다 · 약간 그렇다 · 그렇다 · 정말 그렇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예비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활동 참여 변인과 정의적 특성 변인, 기타 변인, 배경 변인으로 최종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표 III-3>과 같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형태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적인 효과 검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적인 효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향후 체험활동의 필요성이나 가치를 제시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동기’,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행복감’ 등의 정의적 특성 변인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표 III-3 2014년 실태조사 항목 구성

조 사 내 용		문 항	
		문항 수	문항번호
체험활동 참여여부 및 참여방식과 참여도	건강·보건활동	9	문1, 문1-1(1~8)
	과학정보활동	9	문2, 문2-1(1~8)
	교류활동	9	문3, 문3-1(1~8)
	모험개척활동	9	문4, 문4-1(1~8)
	문화예술활동	9	문5, 문5-1(1~8)
	봉사활동	9	문6, 문6-1(1~8)
	직업체험활동	9	문7, 문7-1(1~8)
	환경보존활동	9	문8, 문8-1(1~8)
	자기(인성)계발활동	9	문9, 문9-1(1~8)
	사회참여활동	9	문10, 문10-1(1~8)
체험활동 참여 전후의 교육 여부		2	문11(1~2)
참여하고 싶었던 체험활동 유무 및 참여 못한 이유		2	문12, 문12-1
적극적인 체험활동 참여를 위한 필요요소		1	문13
체험활동 관련 시설 이용 경험		5	문14(1~5)
문화예술 행사 직접 관람여부 및 횟수		40	문15(1~8)
문화예술 행사 참여여부 및 횟수		20	문16(1~10)
진로체험 경험여부 및 도움정도		9	문17(1~9)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6	문18(1~16)
동기		18	문19(1~18)
자아존중감		10	문20(1~20)
진로성숙도		27	문21(1~27)
행복감		7	문22(1~7)
가족구성원		1	배경문항1
부모님의 학력		2	배경문항2(1~2)
부모님의 직업		2	배경문항3(1~2)
응답자의 학교성적		1	배경문항4
가정의 경제수준		1	배경문항5
총 문항수		254	

\* 각 조사 항목의 세부 문항내용과 출처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음.

### 1) 체험활동 참여여부 및 참여방식과 참여도

청소년 체험활동의 참여여부와 참여방식, 참여도를 문 1 ~ 문 10의 10개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체험활동 영역의 분류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분류를 따랐으며, 여기에 사회참여활동을 추가하였다.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 사회참여활동의 10개 영역에 대해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했는지와 해당 방식으로 참여했을 때의 참여도를 ‘참여하지 않았음’, ‘소극적으로 참여함’,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III-4 체험활동 참여방식과 참여도 설문형태

참여방식	참여도		
	참여하지 않았음	소극적으로 참여함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1	2	3
②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	1	2	3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으로 참여	1	2	3
④ 교내-교외(지역사회)연계활동으로 참여	1	2	3
⑤ 청소년단체활동(걸/보이스카우트,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RCY, 아람/누리/한별단 등)으로 참여	1	2	3
⑥ 온라인동아리활동으로 참여	1	2	3
⑦ 종교활동(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를 통해서)으로 참여	1	2	3
⑧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1	2	3

### 2) 체험활동 참여 전후의 교육여부

문 1 ~ 문 10에서 응답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교육을 받았는지를 질문하였다. 사전, 사후 교육은 참여의 질과 관련이 있고, 사전, 사후 프로그램의 충실도와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체험활동의 장애요인 및 요구

최근 1년간 참여하고 싶었지만 참여하지 못한 체험활동이 있는지, 참여하고 싶은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1, 2, 3 순위로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체험활동의 장애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체험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에 대해서도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고르도록 하였는데, 이를 통해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 4) 청소년활동 관련 시설 이용 경험

최근 1년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센터 등’과 ‘유스호스텔, 야영장’, ‘도서관’, ‘사회복지관’, ‘수목림, 수목원, 자연휴양림’과 같은 청소년 활동 관련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와 이용 빈도를 질문하였다.

표 Ⅲ-5 청소년활동 관련 시설 이용 경험 설문형태

	이용한 적 없음	1년에 1-2번 정도	1년에 3-4번 정도	1달에 1번 정도	1달에 2-3번 정도	1주일에 1번 정도	1주일에 2-3번 정도	거의 매일
1)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센터 등	1	2	3	4	5	6	7	8
2) 유스호스텔, 야영장	1	2	3	4	5	6	7	8
3) 도서관	1	2	3	4	5	6	7	8
4) 사회복지관	1	2	3	4	5	6	7	8
5) 수목림, 수목원, 자연휴양림	1	2	3	4	5	6	7	8

### 5) 문화예술 행사 관람 및 참여여부

문 15에서는 최근 1년간 문화예술 행사를 직접 관람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문학행사’, ‘미술전시회 및 박람회’, ‘음악연주회’, ‘전통예술공연’, ‘연극, 뮤지컬 공연’, ‘무용 공연’, ‘영화’, ‘대중가요콘서트’에 대해서, 직접 관람의 경우는 ‘① 극장, 공연홀 등에서’, 특정 매체를 통해서 관람한 경우 ‘② TV, 비디오, DVD 등을 통해서’, ‘③ 인터넷을 통해서’로 나누어 질문하고, 관람형태별 최근 1년간의 총 관람 횟수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 16에서는 문화예술 행사에의 직접 참여 경험을 ‘문학행사’, ‘문예창작/독서토론’, ‘미술 활동 창작’, ‘서양악기연주, 작곡 및 노래교실’, ‘전통예술배우기’, ‘사진 촬영’, ‘무용 창작’, ‘영화, 연극, 뮤지컬 등 창작’, ‘대중음악 작곡, 노래, 춤 창작’, ‘팬미팅, 팬카페활동’으로 나누어 참여경험과 최근 1년간의 총 참여 횟수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관람경험과 참여경험에 관한 문화예술행사의 구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2)를 참고하였다.

표 III-6 문화예술 행사 관람경험 설문형태

	관람한 적이 없다	관람한 적이 있다	최근 1년간 총 관람 횟수
○○○○○ 관람			
① 극장, 공연홀 등에서	1	2	____회
② TV, 비디오, DVD 등을 통해서	1	2	____회
③ 인터넷을 통해서	1	2	____회

표 III-7 문화예술 행사 참여경험 설문형태

	참여한 적이 없다	참여한 적이 있다	최근 1년간 총 참여 횟수
○○○○○ 참여	1	2	____회

## 6) 진로체험 경험여부 및 도움정도

문 17에서는 최근 1년간의 진로체험 경험여부와 도움정도를 질문하였다. 진로체험의 유형은 기본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진로체험 유형별 기준을 따르고, 시청각 자료를 통한 진로체험, 직업모의체험, 아르바이트 경험을 추가하였다. 각각의 진로체험 유형에 대하여 경험여부와 경험한 경우의 도움정도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의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Ⅲ-8 진로체험 유형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의 진로체험 유형	서울시교육청의 2014년도 진로체험 유형
1) 직업현장에서의 실제 업무 체험	현장직업체험
2) 일터, 직업관련 홍보관, 기업체 견학	현장견학형
3)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서의 실습·견학	학과체험형
4) 진로캠프(진로심리검사, 상담, 멘토링 특강 등의 종합적 프로그램)	진로캠프
5) 직업인 초청 강연	직업인초청활용형(강연형)
6) 직업인 인터뷰 및 멘토링(상담)	직업인초청활용형(대화형)
7) 시청각 자료를 통한 진로체험	-
8) 직업모의체험(제과제빵, 모의법정 등)	-
9) 아르바이트 경험	-

## 7)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김현철 외(2012)의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 변수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0.96이었다.

표 III-9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 및 인식 문항

문항번호	문항내용
1)	나는 모든 체험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2)	나는 체험활동 시간이 기다려진다
3)	나는 체험활동을 하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4)	더 많은 체험활동을 하고 싶다
5)	다시 해 보고 싶은 체험활동이 있다
6)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감이 생겼다
7)	체험활동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8)	체험활동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다
9)	체험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넓어졌다
10)	체험활동을 통해 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웠다
11)	체험활동을 통해 선생님과 친해졌다
12)	체험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친해졌다
13)	나는 체험활동 때문에 학교생활이 즐겁다
14)	체험활동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15)	체험활동은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16)	체험활동이 나의 공부에 도움이 된다

### 8) 동기

‘동기’는 김아영(2010)이 2008년에 개발한 「한국형 학업적 자기조절 동기 척도」의 6개 하위척도<sup>5)</sup> 중 외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 무동기 등 3개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척도별 각 6개의 문항, 총 18개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외재적 동기가 0.87, 내재적 동기가 0.93, 무동기가 0.90이었다.

5) 외재적 동기, 내사된 조절 동기, 확인된 조절 동기, 내재적 동기, 무동기

표 Ⅲ-10 동기 문항

문항번호	문항내용	하위척도명
1)	나는 공부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화를 내시므로 공부한다	외재적 동기
2)	나는 공부를 하면 부모님이 상(용돈, 선물, 칭찬 등)을 주시므로 공부한다	
3)	나는 공부를 하면 선생님이 칭찬을 하시므로 공부한다	
4)	나는 공부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벌(야단, 체벌)을 주시므로 공부한다	
5)	나는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시키시므로 공부한다	
6)	나는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시키시므로 공부한다	
7)	나는 공부하는 것을 즐기므로 공부한다	내재적 동기
8)	나는 어려운 도전들로부터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공부한다	
9)	나는 지식을 키우는 것이 재미있어서 공부한다	
10)	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공부한다	
11)	나는 생각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한다	
12)	나는 모르는 것에 대한 해답을 알고 싶어서 공부한다	무동기
13)	나는 내가 학교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14)	나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15)	나는 솔직히 학교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16)	나는 왜 학교에 가는지 모르겠고, 솔직히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17)	인생에서 공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18)	공부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 9)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개 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개 문항의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 1=그렇지 않은 편이다, 2=그런 편이다, 3=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척도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3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0.85이었다.

표 III -11 자아존중감 문항

문항번호	문 항 내 용	역코딩문항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내가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R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처럼 일을 잘할 수 있다	
5)	나는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R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8)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R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R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R

### 10)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는 한국고용정보원(200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계획성, 독립성, 태도, 자신지식, 진로행동의 5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성숙도는 주로 진로교육과 관련해서 사용되지만, 반드시 진로교육을 통해서만 진로성숙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체험활동의 참여정도나 참여의 질이 진로성숙도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 체험활동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계획성이 0.82, 독립성이 0.71, 태도가 0.64, 자신지식이 0.83, 진로행동이 0.79이었다.

표 Ⅲ-12 진로성숙도 문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역코딩 문항	하위 척도명
1)	내가 원하는 직업(전공)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계획성
2)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		
19)	나는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계획을 세운다		
21)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27)	나는 내 또래에 비해서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10)	부모님이 반대하시더라도 내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 할 것이다		독립성
11)	나의 진로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R	
15)	진로선택은 어른들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좋다	R	
20)	진로 선택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내 생각이 중요하다		
24)	나는 어른들의 결정보다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택할 것이다		
3)	직업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일뿐이다	R	태도
7)	직업 자체가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은 아니다	R	
14)	돈을 많이 벌수만 있다면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다	R	
16)	힘든 일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선택할 것이다		
22)	어떤 직업을 가지는가가 미래의 나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4)	내가 잘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자신 지식
8)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12)	내가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13)	나의 성격에서 나쁜 점이 무엇인지 안다		
17)	나의 성격에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안다		
25)	내가 관심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진로 행동
5)	내가 관심 있는 진로나 전공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		
6)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이메일, 전화 등)해 본 적이 있다		
8)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다		
18)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		
23)	내가 알고 있는 진로 지식이 정확한 지 알아본 적이 있다		
26)	나의 진로 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		

### 11) 행복감

‘행복감’ 변인은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10)가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6개 영역 중 ‘주관적 행복’을 산출하는 데 사용한 6개 문항과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나는 행복하다”라는 단일 문항을 함께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 1=그렇지 않은 편이다, 2=그런 편이다, 3=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행복감’은 체험활동이 동기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했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면서, 청소년정책의 궁극적인 비전 또는 정책목표로 설정되는 변수로서 정책적인 함의가 많은 변인으로 판단된다. 7개 문항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7이었다.

표 III-13 행복감 문항

문항	문 항 내 용	하위척도명
1)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주관적 행복 <sup>6)</sup>
2)	나는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	
3)	나의 삶에 만족한다	
4)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	
5)	나는 주변사람과 잘 어울린다	
6)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	
7)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나는 행복하다	단일문항

6)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10)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행복을 주관적 건강, 학교생활만족, 삶의 만족, 소속감, 어울림, 외로움에 대한 응답의 합을 평균이 100, 표준편차가 10인 분포가 되도록 표준화하여 OECD 국가들의 추세와 비교하였다.

## 4. 조사방법

조사는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원에 의한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조사로 실시하였다. 조사 전에 표본설계에 따른 표본배분 및 원표본, 대체표본 학교 목록을 결정하였다. 조사전문기관은 전국에서 조사원을 선발하여 6월 9일 ~ 6월 10일에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서 권역별로 조사원 집체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조사대상에 대한 특성 이해, 주관기관에 대한 이해, 조사 진행 방법 및 방문 시 응대 스크립트, 조사내용에 대한 이해, 실사 진행 보고 체계로 구성하였다.

조사 대상 학교 섭외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우선 원표본 학교의 대표팩스번호로 조사안내 및 협조공문을 일괄 발송한 후, 학교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교감 선생님께 조사 협조를 요청하였다. 수락한 학교에 대해서는 담당 선생님 지정을 요청하고, 방문일정을 확인한 후 해당일에 학교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진은 조사 현장을 무작위 모니터링하였다.

## 5. 표본설계<sup>7)</sup>

### 1) 모집단 분석

#### (1) 모집단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 (2) 모집단 분석

먼저 16개 광역 시도별, 학교급별, 학년별 학생수를 <표 III-14>에 정리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학생수는 1,735,727명이며 각 학교급별 학생수는 초등학교 525,281명(30.3%), 중학교 588,834

7) 이 부분은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 정보통계학과)이 집필하였음.

명(33.9%), 고등학교 621,612명(35.8%)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고 446,052명(25.7%), 자율고 48,749명(2.8%), 특성화고 109,398명(6.3%), 특수목적고 17,413명(1.0%)이다.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수, 성별 학생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표 III-15> ~ <표 III-17>에 정리되어 있다.

**표 III-14** 지역별 학생수, 학교수

구분	학생수						학교수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6학년	2학년	2학년	2학년	2학년	2학년	6학년	2학년	2학년	2학년	2학년	2학년
서울	87,339	99,162	74,332	14,110	16,945	4,259	597	380	181	44	74	17
경기	135,839	149,354	122,181	4,011	20,545	4,158	1,194	598	331	12	72	18
인천	29,465	33,052	24,236	1,848	7,056	1,109	238	134	76	7	29	7
강원	15,930	17,856	14,771	153	3,291	362	336	163	88	1	24	4
충북	17,056	18,754	12,062	1,558	5,347	383	268	127	46	6	27	4
충남	22,973	24,897	18,792	1,907	4,893	532	419	198	76	9	30	5
대전	17,382	19,393	13,114	3,202	3,740	657	145	87	36	9	12	4
경북	25,731	29,478	21,751	2,719	6,239	573	434	289	122	11	52	6
경남	36,163	40,638	32,229	2,875	6,338	705	485	273	136	10	37	6
부산	31,459	36,052	24,957	4,173	9,142	2,056	300	170	79	15	39	10
대구	26,809	31,258	20,264	6,162	6,578	877	218	123	50	17	20	5
울산	13,022	14,978	12,343	687	2,953	353	120	61	35	3	11	3
전북	20,518	22,857	18,075	1,352	4,844	499	385	208	92	5	31	4
전남	19,423	22,160	14,604	2,389	6,206	426	436	249	89	8	50	5
광주	18,893	21,159	16,515	1,366	3,723	323	150	86	47	5	12	3
제주	7,279	7,786	5,826	237	1,558	141	110	43	20	1	7	2
합계	525,281	588,834	446,052	48,749	109,398	17,413	5,835	3,189	1,504	163	527	103

\*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에 포함

표 III-15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성별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남학생수	여학생수	남학생수	여학생수
	6학년	6학년	2학년	2학년
서울	45,232	42,107	51,793	47,369
경기	70,437	65,402	77,294	72,060
인천	15,230	14,235	17,210	15,842
강원	8,363	7,567	9,276	8,580
충북	8,834	8,222	9,764	8,990
충남	11,770	11,203	12,999	11,898
대전	9,105	8,277	10,156	9,237
경북	13,516	12,215	15,611	13,867
경남	19,076	17,087	21,247	19,391
부산	16,431	15,028	19,073	16,979
대구	14,095	12,714	16,532	14,726
울산	6,934	6,088	7,894	7,084
전북	10,486	10,032	11,799	11,058
전남	10,140	9,283	11,576	10,584
광주	9,770	9,123	10,948	10,211
제주	3,828	3,451	4,077	3,709
합계	273,247	252,034	307,249	281,585

표 III-16 고등학교 지역×학교유형×성별 학생수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2학년		2학년		2학년		2학년	
	남학생수	여학생수	남학생수	여학생수	남학생수	여학생수	남학생수	여학생수
서울	37,382	36,950	9,654	4,456	8,013	8,932	1,393	2,866
경기	63,782	58,399	2,053	1,958	11,300	9,245	1,476	2,682
인천	12,542	11,694	1,167	681	3,638	3,418	495	614
강원	7,284	7,487	84	69	2,192	1,099	170	192
충북	6,097	5,965	965	593	2,893	2,454	158	225
충남	9,623	9,169	1,125	782	3,002	1,891	190	342
대전	6,316	6,798	2,065	1,137	2,246	1,494	242	415
경북	10,548	11,203	1,743	976	4,237	2,002	232	341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2학년		2학년		2학년		2학년	
	남학생수	여학생수	남학생수	여학생수	남학생수	여학생수	남학생수	여학생수
경남	16,140	16,089	2,255	620	3,895	2,443	349	356
부산	13,007	11,950	2,282	1,891	5,580	3,562	809	1,247
대구	10,100	10,164	3,472	2,690	4,094	2,484	352	525
울산	6,575	5,768	345	342	1,735	1,218	138	215
전북	8,623	9,452	1,224	128	2,854	1,990	188	311
전남	6,727	7,877	1,789	600	3,637	2,569	169	257
광주	8,208	8,307	862	504	2,111	1,612	147	176
제주	3,247	2,579	0	237	745	813	65	76
합계	226,201	219,851	31,085	17,664	62,172	47,226	6,573	10,840

\*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에 포함

표 III-17 지역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6학년	2학년	2학년	2학년	2학년	2학년
서울	24.6	31.5	34.4	30.1	25.1	31.5
경기	24.5	33.5	34.7	32.1	29.4	29.7
인천	23.0	32.4	31.3	30.2	26.4	26.8
강원	15.2	23.6	27.4	13.9	21.8	27.9
충북	17.2	25.9	33.5	30.3	27.9	21.7
충남	17.3	26.8	31.9	29.3	25.0	27.1
대전	22.6	32.1	35.8	33.1	29.6	29.9
경북	17.7	22.3	28.7	31.5	24.4	28.1
경남	18.4	26.9	30.9	31.3	24.7	25.3
부산	22.6	30.8	32.8	29.7	25.3	27.6
대구	22.6	32.8	35.2	34.9	28.0	28.3
울산	23.0	31.0	36.9	31.1	28.7	23.4
전북	15.7	23.3	28.8	31.1	25.1	24.5
전남	15.4	23.9	27.4	34.4	22.1	23.8
광주	23.4	34.0	37.3	34.9	31.0	26.6
제주	19.8	29.0	34.6	33.9	30.5	22.6
합계	20.4	28.7	32.3	31.3	25.9	27.8

\*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에 포함

## 2) 표본설계

### (1) 표본크기

표본크기는 표본추출방법과 모집단의 특성 및 층화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만, 단순임의추출의 상황 하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  $d$ 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s)^2}{Nd^2 + (zs)^2}$$

여기서  $N$ 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 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이며,  $z$ 은 신뢰계수이다(신뢰수준 95% 하에서  $z = 1.96$ 이다).

조사내용이 비율인 경우에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본크기는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2pq}{Nd^2 + z^2pq}$$

여기서  $p$ 는 비율의 값이며  $q = 1 - p$ 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 표본추출 단위가 학교이고 추출된 학교에서 표본학급을 선정하여 해당 학급의 모든 학생을 조사하는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사용할 것이므로, 목표오차를 실제로  $d$  이하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산출한 값보다 표본크기를 더 크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사에 따른 소요비용과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조사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4,500으로 결정되었다. 이 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pm 1.5\%P$ 이다. 층화집락추출의 상황 하에서의 실제 표본오차는 이보다 조금 더 크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충분히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2) 층화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모집단을 2013년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지역구분과 학교구분을 층화변수로 고려한다. 즉, 층화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구분 : 광역 시도 (16개), 세종시는 충남에 포함
- 학교구분 :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목고 (6개)

단, 고등학교 중 자율고와 특성화고는 광역시도별로 층화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묶어서 층화한다. 또한 특수목적고는 지역별 층화를 수행하지 않는다.

표 III-18 학교급×학년별 모집단크기, 목표 표본크기

학교급		학년	모집단크기		단순비례배분 목표 표본크기		변형비례배분 예상 표본크기	
초등학교	초등학교	6	525,281 (30.3%)		1,362 (30.3%)		1,320 (29.2%)	
중학교	중학교	2	588,834 (33.9%)		1,527 (33.9%)		1,537 (34.0%)	
고등학교	일반고	2	446,052 (25.7%)	1,881,437 (35.8%)	1,156 (25.7%)	1,612 (35.8%)	1,152 (25.5%)	1,661 (36.8%)
	자율고	2	48,749 (2.8%)		126 (2.8%)		160 (3.5%)	
	특성화고	2	109,398 (6.3%)		284 (6.3%)		297 (6.6%)	
	특수 목적고	2	17,413 (1.0%)		45 (1.0)		52 (1.2%)	
합계			1,735,727 (100.0%)		4,500 (100.0%)		4,518 (100.0%)	

\*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에 포함

### (3) 표본배분

학생수에 단순비례하도록 지역구분×학교급 각 층에 표본크기를 할당하면 <표 III-19>와 같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한 학년, 한 학급을 선정하여 조사하되 선정된 학급에 속한 학생들을 모두 조사할 것이므로, 각 층에 할당된 표본크기를 각 층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로 나누면 <표 III-20>와 같이 조사될 학교수가 할당된다. 결론적으로 총 173개 정도의 학교가 조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각 층에 단순비례배분으로 표본을 할당할 경우 특정한 층에 너무 작은 표본크기가 배당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전라 지역의 자율고 고등학교에 19명의 표본이 배당되는데, 이 경우 한 학교를 방문하여 이렇게 소수의 표본만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한 학급 전체를 조사할 계획이므로 실제로는 학년당 약 30명의 학생이 조사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표본크기가 목표한 것보다 커지게 된다. 아니면 전라 지역의 자율고에 대해서는 한 학급에서 19명만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즉, 목표보다 표본크기가 커지는 것을 허용하든가 아니면, 다른 층에서 일부 표본크기를 줄여서 변형비례배분 형태의 표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표 III-18>에서 볼 수 있듯이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여도 단순비례배분에 비하여 각 층의 표본크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 하에 학교수 및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를 할당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수를 할당하되 전체 학교수가 약 170개 정도이고 조사될 목표 학생수가 4,500을 넘도록 한다.

전국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대략 초등학교 20명, 중학교 29명, 일반고 32명, 자율고 32명, 특성화고 27명, 특수목적고 26명이다. 따라서 지역구분×학교급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표본크기를 배분하되, 위의 원칙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완함으로써 각 층별 조사될 학교수를 결정하고 예상되는 조사 학생수를 계산하면 <표 III-21>, <표 III-22>와 같다.

표 Ⅲ-19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226	257	193	20	82	45
경기	352	387	317	32	34	
인천	76	86	63			
강원	41	46	38	20	40	
충북	44	49	31			
충남	60	65	49			
대전	45	50	34			
경북	67	76	56	36	97	
경남	94	105	84			
부산	82	93	65			
대구	70	81	53			
울산	34	39	32	19	31	
전북	53	59	47			
전남	50	57	38			
광주	49	55	43			
제주	19	20	15			
합계	1,362	1,527	1,156	126	284	45

\* 총계: 4,500명

표 Ⅲ-20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11.3	8.9	6.0	0.6	3.0	1.7
경기	17.6	13.4	9.9	1.0	1.3	
인천	3.8	3.0	2.0			
강원	2.1	1.6	1.2	0.6	1.5	
충북	2.2	1.7	1.0			
충남	3.0	2.2	1.5			
대전	2.3	1.7	1.1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경북	3.3	2.6	1.8	1.1	3.6	
경남	4.7	3.6	2.6			
부산	4.1	3.2	2.0			
대구	3.5	2.8	1.6			
울산	1.7	1.3	1.0			
전북	2.7	2.0	1.5	0.6	1.2	
전남	2.5	2.0	1.2			
광주	2.4	1.9	1.3			
제주	0.9	0.7	0.5			
합계	68.1	52.7	36.1			

\* 총계: 173.1개

표 III - 21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10	9	6	1	3	2
경기	17	12	9	1	1	
인천	4	3	2			
강원	2	2	1	1	2	
충북	2	2	1			
충남	3	2	2			
대전	2	2	1			
경북	3	3	2	1	4	
경남	5	4	3			
부산	4	3	2			
대구	3	3	2			
울산	2	1	1			
전북	3	2	1	1	1	
전남	3	2	1			
광주	2	2	1			
제주	1	1	1			
합계	66	53	36			5

\* 총계: 173개

표 Ⅲ-22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200	261	192	32	81	52	
경기	340	348	288	32	27		
인천	80	87	64				
강원	40	58	32	32	54		
충북	40	58	32				
충남	60	58	64				
대전	40	58	32				
경북	60	87	64	32	108		
경남	100	116	96				
부산	80	87	64				
대구	60	87	64				
울산	40	29	32				
전북	60	58	32	32	27		
전남	60	58	32				
광주	40	58	32				
제주	20	29	32				
합계	1,320	1,537	1,152				160

\* 총계: 4,518명

#### (4) 표본추출

각 학교구분과 지역구분별로 할당된 표본학교의 추출은 <표 Ⅲ-21>에 주어진 표본배분 결과를 이용하여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한다. 즉,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 층내에서 조사대상 학생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되, 초등학교의 경우 6학년 학급수가

2개 이상, 중고등학교의 경우 2학년 학급수가 3개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조정한다. 또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한다. 그리고 선정된 표본학교 내에서 각 학년별 1개의 표본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조사한다.

추출된 학교 측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층 내의 학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대체한다. 또한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며, 지역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하여 최종 조사될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한다.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 내에서 추출된 표본학교 및 최대 4개까지의 대체표본 명부를 사전에 준비한다.

### (5) 성별 사후층화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및 학급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사 시에는 성별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 즉, 성별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지만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시 성별을 고려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성별 분포가 모집단 분포와 다르게 조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후층화 가중치를 통해 표본에서의 성별 분포의 편향을 조정하고자 한다.

### 3) 가중치와 모수추정

학년별 및 성별로 안정적인 가중치 분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급별로 지역 구분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 초등학교: 5개 권역(서울, 경기/인천, 강원/충북/충남/대전, 경북/경남/부산/대구/울산, 전북/전남/광주/제주)
- 중학교: 5개 권역(서울, 경기/인천, 강원/충북/충남/대전, 경북/경남/부산/대구/울산, 전북/전남/광주/제주)
- 일반계고(일반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5개 권역(서울, 경기/인천, 강원/충북/충남/대전, 경북/경남/부산/대구/울산, 전북/전남/광주/제주)
- 특성화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국(지역 구분 안함)

(1) 가중치

본 조사의 표본추출은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법이라 할 수 있으며 학교구분과 지역구분을 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각 층에서 일차추출단위인 학교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고 추출된 표본학교에서는 학급을 랜덤하게 선정한 후에 학생을 조사하므로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학생을 랜덤하게 선정하여 조사하는 이단집락추출법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표본추출률을 아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f_{hij} = n_h \frac{B_{hi}}{\sum_{i=1}^{N_h} B_{hi}} \cdot \frac{n_{hi}}{B_{hi}} = n_h \frac{n_{hi}}{\sum_{i=1}^{N_h} B_{hi}}$$

여기서  $N_h$ 는  $h$ 층에 속한 전체 학교의 수이고,  $n_h$ 는  $h$ 층의 표본 학교수이며,  $B_{hi}$ 는  $h$ 층에서  $i$ 번째 학교의 학생수를 나타내고,  $n_{hi}$ 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한 학생수를 나타낸다.

표본추출률에 대한 가중치는 추출률의 역수이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W_{hij}^a = \frac{\sum_{i=1}^{N_h} B_{hi}}{n_h n_{hi}}$$

또한 각 세부 층의 성별( $k=1,2$ )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한다. 즉, 사후층화 가중치는

$$W_{h(k)j}^b = \frac{N_{h(k)}}{\sum_{l=1}^{n_{h(k)}} W_{h(k)j}^a}$$

여기서  $N_{h(1)}$ 과  $N_{h(2)}$ 는 각 세부 층에 속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집단 크기이고,  $\sum W_{h(k)j}^a$ 는 각 세부 층의 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이다.

최종 가중치는 기본 가중치와 사후층화 가중치를 곱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W_{h(k)ij}^f = W_{hij}^a \times W_{h(k)j}^b$$

## (2) 모수추정

### ① 용어 정의

- $Y_{hij}$  : 관측치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 $h$  : 층의 번호 ( $h = 1, 2, \dots, H$ ). 학교구분×지역구분에 따른 번호.
  - $i$  : 각 층 내에서의 집락(학교)의 번호 ( $i = 1, 2, \dots, n_h$ ).
  - $j$  : 각 집락 내의 학생의 번호 ( $j = 1, 2, \dots, m_{hi}$ ).
- $m_{hi}$  :  $h$ 번째 층의  $i$ 번째 집락으로부터 추출된 학생수
- $w_{hij}$  : 표본 가중치
  - $h$ 번째 층,  $i$ 번째 집락,  $j$ 번째 학생에 대한 표본 가중치
- $n = \sum_{h=1}^H \sum_{i=1}^{n_h} m_{hi}$  : 전체 표본크기

### ② 모평균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Ratio estimator)으로 계산됨.
- $\bar{Y} = \left(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right) / w \dots$  :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
  - $w \dots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 표본 가중치의 합계

### ③ 모비율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  $c_k$ 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생성함.
- $Y_{hij}^{(c_k)} = I(Y_{hij} = c_k) = \begin{cases} 1, & \text{if } Y_{hij} = c_k \\ 0, & \text{otherwise} \end{cases}$ 
  - $c_k$  :  $Y_{hij}$ 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 $k = 1, \dots, l$ )
- 이러한 지시변수  $Y_{hij}^{(c_k)}$ 로부터 모평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범주  $c_k$ 의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함.

④ 분산의 추정

- $\hat{V}(\bar{Y}) = \sum_{h=1}^H \hat{V}_h(\bar{Y})$  : 분산의 추정치

- $N_h$  : 층  $h$ 의 총 집락의 수
- $f_h$  :  $h$ 번째 층의 표본추출율,  $n_h/N_h$ .
- $n_h > 1$ 일 때,

$$\hat{V}_h(\bar{Y})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cdot\cdot})^2$$

$$e_{hi\cdot} = \left( \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hi\cdot}$$

$$\bar{e}_{h\cdot\cdot} = \left( \sum_{i=1}^{n_h} e_{hi\cdot} \right) / n_h$$

- $n_h = 1$ 일 때,

$$\hat{V}_h(\bar{Y}) = \begin{cases} \text{missing, if } n_{h'} = 1 \text{ for } h' = 1, 2, \dots, H \\ 0, \text{ if } n_{h'} > 0 \text{ for some } 1 \leq h' \leq H \end{cases}$$

⑤ 표준오차,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

- $\text{StdErr}(\bar{Y}) = \sqrt{\hat{V}(\bar{Y})}$  : 표준오차의 추정치
- $z_{\alpha/2} \times \text{StdErr}(\bar{Y})$  :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치,  
95% 신뢰수준의 경우( $\alpha=0.05$ )  $z_{\alpha/2}=1.96$ 임.

6. 무응답 현황

무응답은 크게 단위 무응답과 항목 무응답으로 나뉘는데, 단위 무응답은 대상자가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이며, 항목 무응답은 조사 항목 중 일부 항목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이다.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의 성별, 고급별 단위 무응답률은 <표 III-23>에 제시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 5,195명 중 183명이 결석 또는 거절을 이유로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성화계 고등학교의 단위 무응답률은 10.0%로 다소 높았는데, 기능대회나 기술사관 교육,

직업체험활동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체 조사대상에 대한 단위 무응답률은 3.5%였으며, 가중치 산출 시 응답률에 반영하였다. 주요 항목의 항목 무응답률은 최소 0.8%에서 최대 2.7%였으며, 5% 이내였기 때문에 무응답 대체 등을 실시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주요 항목의 무응답률은 <표 III-24>와 같다.

**표 III-23** 단위 무응답률

		조사대상 수(명)	무응답자 수(명)	무응답자 비율(%)
전체		5,195	183	3.5
성별	남자	2,706	100	3.7
	여자	2,489	83	3.3
교급별	초등학교	1,689	44	2.6
	중학교	1,727	52	3.0
	일반계고	1,479	57	3.9
	특성화계고	300	30	10.0

**표 III-24** 항목 무응답률

내 용	명 (%)
문 1. 최근 1년간 학교 안팎에서 ‘건강·보건’ 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참여했나요?	105 (2.1)
문 2. 최근 1년간 학교 안팎에서 ‘과학정보활동’ 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참여했나요?	136 (2.7)
문 3. 최근 1년간 학교 안팎에서 ‘교류활동’ 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참여했나요?	118 (2.3)
문 4. 최근 1년간 학교 안팎에서 ‘모험개척활동’ 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참여했나요?	121 (2.4)
문 5. 최근 1년간 학교 안팎에서 ‘문화예술활동’ 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참여했나요?	40 (0.8)
문 6. 최근 1년간 학교 안팎에서 ‘봉사활동’ 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참여했나요?	122 (2.4)
문 7. 최근 1년간 학교 안팎에서 ‘직업체험활동’ 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참여했나요?	91 (1.8)
문 8. 최근 1년간 학교 안팎에서 ‘환경보존활동’ 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참여했나요?	129 (2.6)
문 9. 최근 1년간 학교 안팎에서 ‘자기(인성) 계발활동’ 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참여했나요?	121 (2.4)
문 10. 최근 1년간 학교 안팎에서 ‘사회참여활동’ 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참여했나요?	128 (2.5)



## 제 IV 장

---

# 조 사 결 과

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2. 청소년활동 참여의 관련 요인



# 제 IV 장 조사결과<sup>8)</sup>

## 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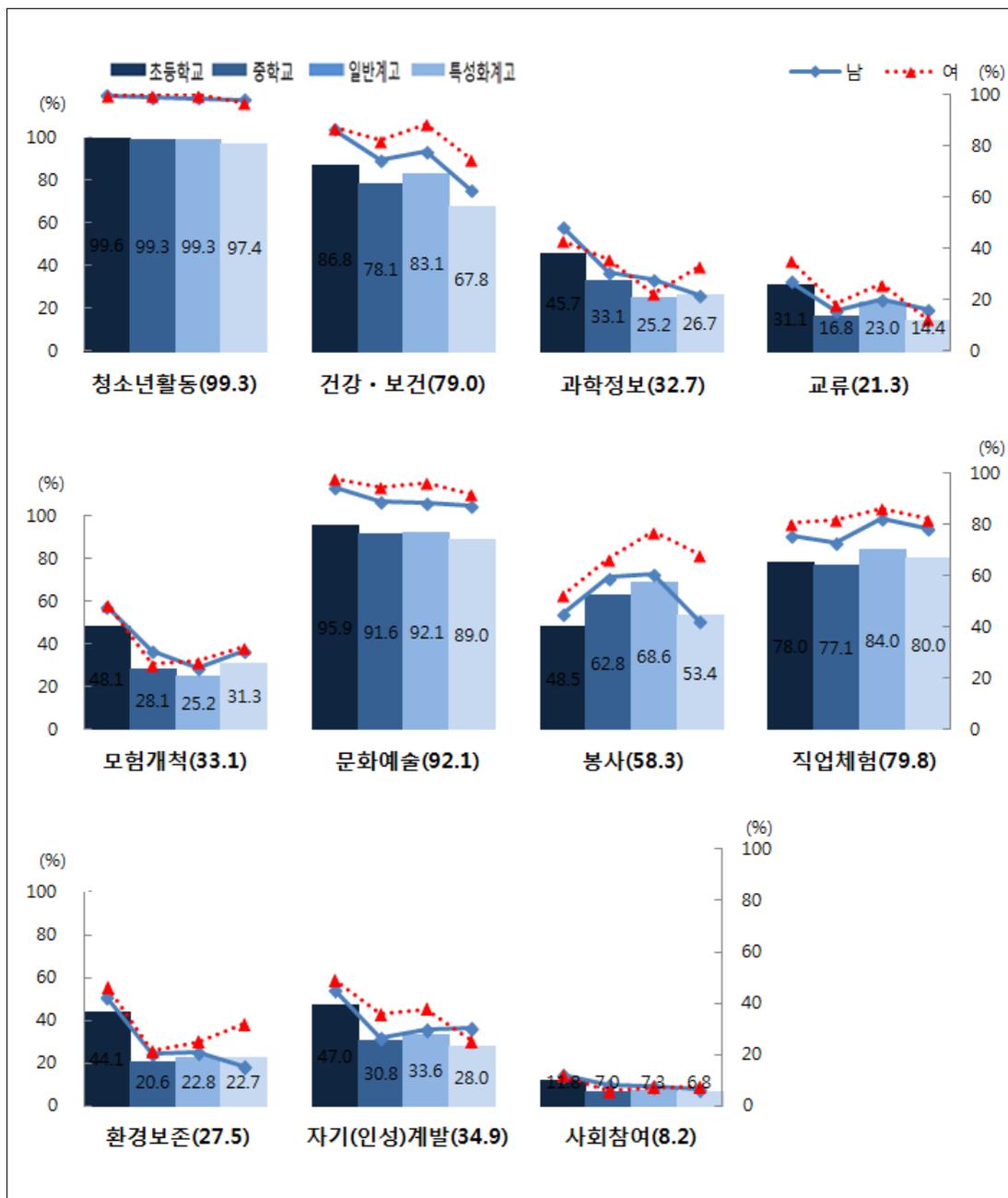
청소년활동의 참여 실태를 활동의 참여율, 참여의 폭, 참여의 방식, 참여의 강도, 사전·사후교육 경험률과 활동의 장애요인 및 요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Crean(2012)은 체험활동의 ‘참여의 폭(breadth)’과 ‘참여의 강도(intensity)’ 그리고 ‘참여의 방식(specificity)’이 체험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고 하였다(김현철 외, 2013 재인용). 따라서 본 절에서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다영역에 걸친 체험활동을 경험하고 있는지의 ‘참여의 폭’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의 ‘참여의 강도’, 어떠한 경로로 참여하고 있는지의 ‘참여의 방식’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1) 체험활동 참여율

- 체험활동 참여율은 99.3%로 대부분의 청소년은 한 개 영역 이상의 청소년활동을 경험
- 활동영역별로는 「문화예술활동」(92.1%), 「직업체험활동」(79.8%), 「건강·보건활동」(79.0%) 순
- 2013년에 비해 「문화예술활동», 「건강·보건활동», 「직업체험활동」이 증가하였고, 「모험개척활동」은 큰 폭으로 감소

최근 1년간의 청소년활동 참여율은 99.3%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한 개 영역 이상의 청소년활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율을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 「사회참여활동」의 10개 영역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활동이 92.1%로

8) 조사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표본평균 또는 비율이며 가중치는 표본추출률, 응답률 및 가중치 사후 보정률을 반영하였음. 가중치 반영으로 셀 수가 반올림되었기 때문에 유효 케이스 수와 교차표의 총 수는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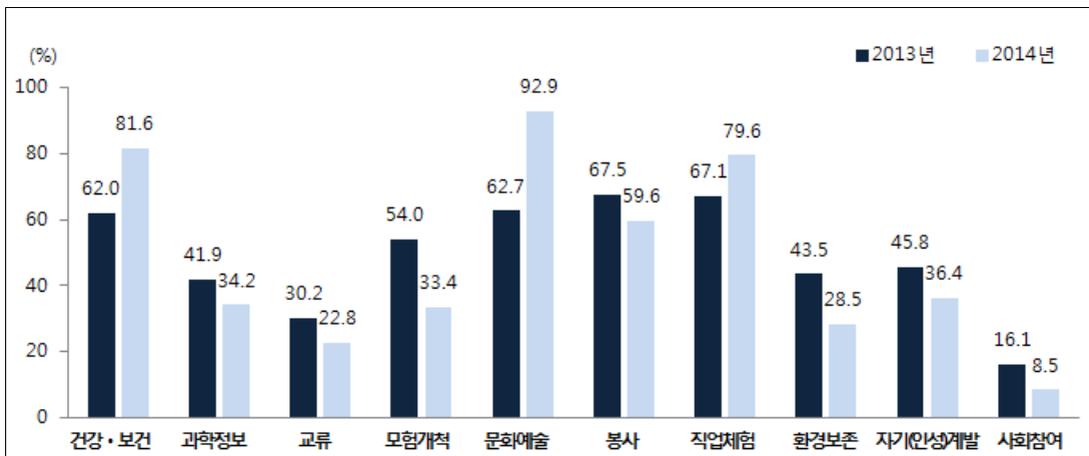


【그림 IV-1】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율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직업체험활동(79.8%), 건강·보건활동(79.0%)이 뒤를 이었다. 반면, 사회참여활동은 전체 청소년의 8.2%만이 참여하였다. 사회참여활동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나(관계부처합동, 2012), 아직은 10% 이하의 청소년만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율을 성별 및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과학정보활동, 모험개척활동에서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였는데, 특히 일반계고 남자 학생들은 과학정보활동에서, 중학생들은 모험개척활동에서 여자 학생들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그 외 대부분의 활동에서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보다 참여율이 높았다. 학교유형별로는 봉사활동과 직업체험활동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봉사활동과 직업체험활동의 경우에는 일반계고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봉사활동의 경우는 학업성적에 반영되는 봉사점수가 참여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3년과 2014년의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율을 10개 영역별로 비교해보면, 2013년에 비해 문화예술활동(30.2%p), 건강·보건활동(19.6%p), 직업체험활동(12.5%p)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나, 그 외 모든 활동영역에서는 2013년에 비해 2014년의 체험활동 참여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험개척활동(20.6%p)과 환경보존활동(15.0%p)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IV-2】 2013~2014 체험활동 영역별 비교

\* 2013년 자료: 김현철 외(2013)

- 여자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율이 남자 청소년의 참여율보다 높음.
- 「봉사활동」과 「직업체험활동」은 일반계 고등학생의 참여율이 가장 높고, 그 외의 활동은 초등학생의 참여율이 높음.
-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에서는 「문화예술활동」이, 중소도시에서는 「과학정보활동」과 「교류활동」이, 읍/면지역에서는 「모험개척활동」과 「봉사활동」이 다른 지역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수준별로는 유의차가 있는 모든 영역에서 양부모가정, 학업성적 상위, 경제수준 상층에 속한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음.

최근 1년간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율을 성별, 학교유형별, 지역규모별, 가족유형별, 학업성적별, 경제수준별로 살펴보면 <표 IV-1>과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 여자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율은 99.7%로 남자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율 98.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율에는 성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13.633, p<0.001$ ).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문화예술활동이 95.8%로 남자 청소년들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건강·보건활동(85.2%), 직업체험활동(82.7%), 봉사활동(65.5%) 순으로 남자 청소년들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율을 학교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들의 체험활동 참여율이 대부분의 활동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봉사활동(68.6%)과 직업체험활동(84.0%)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에서는 문화예술활동이 94.3%, 중소도시에서는 과학정보활동이 37.1%, 교류활동이 25.6%, 읍/면 지역에서는 봉사활동이 67.2%, 모험개척활동이 38.1%로 다른 지역규모에 비해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10개 영역 중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의 3개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양부모가정에서 참여율이 높고, 조손가정의 참여율은 눈에 띄게 낮았다. 학업성적별로는 사회참여활동을 제외한 9개 영역에서 학업성적이 상위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았다. 사회참여활동도 학업성적 상위에 속하는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참여율에서도 경제수준이 상층인 가정에 속한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율이 높았고, 봉사활동을 제외한 9개 영역에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가족유형별, 학업성적별, 경제수준별로 살펴보았을 때, 양부모가정 자녀, 학업성적 상위인 학생들,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층인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체험활동 참여의 기회가 계층별로 불균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정책적으로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표 IV-1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율

단위: %

		전체	건강 보건	과학 정보	교류	모험 개척	문화 예술	봉사	직업 체험	환경 보존	자기 (인성) 계발	사회 참여
전체		99.3	81.6	34.2	22.8	33.4	92.9	59.6	79.6	28.5	36.4	8.5
성별	남자	98.9	78.2	34.6	20.3	33.8	90.2	54.1	76.7	26.6	33.2	8.9
	여자	99.7	85.2	33.7	25.4	33.1	95.8	65.5	82.7	30.5	39.7	8.1
	$\chi^2$	13,633***	39,710***	.362	17,852***	.250	59,681***	66,656***	27,479***	8,896**	22,589***	1,065
학교유형	초등학교	99.6	86.8	45.7	31.1	48.1	95.9	48.5	78.0	44.1	47.0	11.8
	중학교	99.3	78.1	33.1	16.8	28.1	91.6	62.8	77.1	20.6	30.8	7.0
	일반계고	99.3	83.1	25.2	23.0	25.2	92.1	68.6	84.0	22.8	33.6	7.3
	특성화계고	97.4	67.8	26.7	14.4	31.3	89.0	53.4	80.0	22.7	28.0	6.8
	$\chi^2$	18,109***	81,421***	146,668**	103,612**	207,959**	32,871**	135,738**	26,393**	255,798**	108,708**	29,399**
지역규모	대도시	99.4	81.4	33.7	20.8	31.2	94.3	59.3	79.4	28.1	37.9	9.1
	중소도시	99.4	81.9	37.1	25.6	33.5	92.5	56.4	79.6	27.4	36.1	8.2
	읍/면	98.8	81.2	29.0	21.2	38.1	90.4	67.2	80.0	31.5	33.5	8.0
	$\chi^2$	3,663	0,262	18,338**	14,236**	13,768**	16,068**	30,702**	0,169	5,461	5,347	1,374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9.3	81.7	34.2	22.8	33.6	93.2	60.1	80.0	28.7	36.5	8.5
	한부모가정	99.6	77.9	35.3	24.2	31.0	88.6	51.6	73.7	26.5	35.3	9.4
	조손가정	100.0	69.6	15.5	28.8	0.0	68.9	17.0	52.6	0.0	0.0	0.0
	기타	97.5	85.9	27.3	12.2	33.9	81.6	49.7	66.6	24.7	32.6	7.9
	$\chi^2$	1,610	3,192	2,507	3,584	4,084	18,878**	14,419**	11,835**	3,677	4,327	1,006
학업성적	상	99.5	84.9	44.1	26.5	39.5	95.6	67.8	84.7	34.6	43.8	9.4
	중	99.3	81.4	33.0	22.4	34.2	93.5	58.3	79.7	29.5	36.6	8.2
	하	99.0	78.1	25.3	19.6	25.6	88.9	53.2	74.4	20.3	28.2	7.8
	$\chi^2$	2,940	21,031***	110,339**	19,209***	61,089***	50,645***	64,362***	45,591***	72,034***	72,476***	2,521
경제수준	상	99.2	83.4	38.1	25.0	37.5	93.9	61.2	82.7	33.1	41.1	11.2
	중	99.4	80.6	32.5	21.1	32.4	92.9	58.1	77.4	26.4	34.4	7.0
	하	99.1	79.5	29.2	22.0	25.9	90.3	60.6	78.7	22.8	30.6	5.7
	$\chi^2$	0,531	7,725*	23,956**	9,098*	35,200***	11,316**	4,578	18,329**	36,947**	33,795***	32,688**

\*  $p < 0.05$ , \*\*  $p < 0.01$ , \*\*\*  $p < 0.001$

## 2) 체험활동 참여의 폭

- 절반 정도의 청소년들은 10개 영역 중 4개 영역 내외의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4개 영역 이상의 체험활동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의 70%였음.
- 여자 청소년, 초등학생, 학업성적 상위에 속한 청소년들이 보다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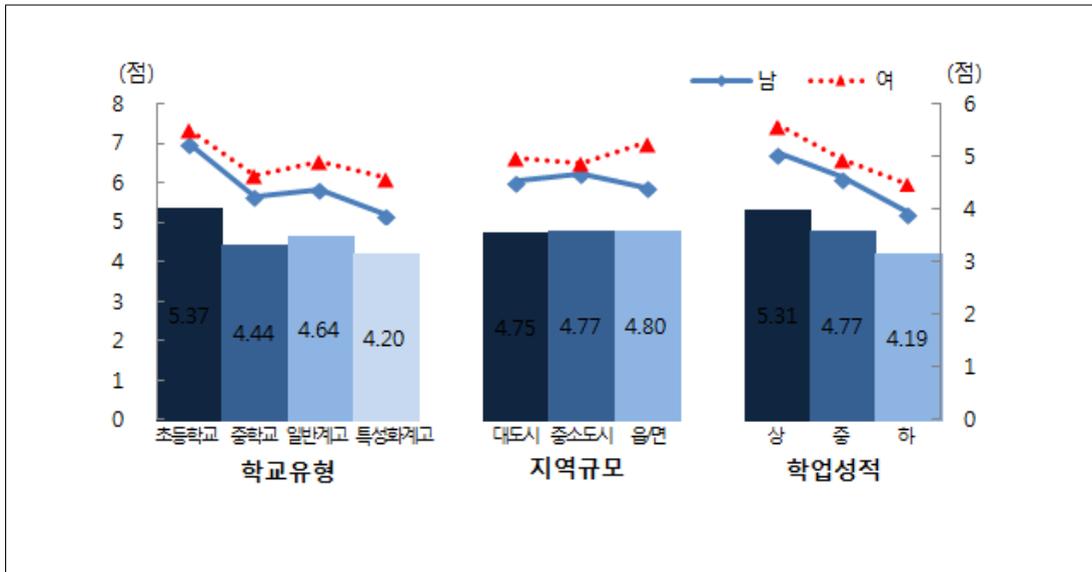
체험활동 참여의 폭(breadth)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영역의 체험활동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지표이다. 참여의 폭은 각 10개 활동 영역에 대해, 최근 1년간 학교 안팎에서 해당 영역의 활동에 참여한 적인 있는 경우에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하였으며, 변수 값의 범위는 0~10이다. 즉 최근 1년간 어떠한 체험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0점, 10개 영역 모두에 참여한 경우는 10점이다.

체험활동 참여의 폭을 살펴보면([그림 IV-3]), 청소년들은 최근 1년간 평균 4개 영역 이상의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의 체험활동 폭이 넓었고,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중학생, 특성화계 고등학생의 순으로, 초등학생이 가장 여러 영역에 걸쳐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른 체험활동의 폭은 차이가 미미했으나, 각 지역규모별로 4개 영역 이상의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성적의 경우 상위에 속한 청소년의 체험활동 폭이 가장 넓었고,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는 매우 뚜렷하였다( $F=93.072, p<0.001$ ).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의 폭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표 IV-2>와 같다. 전체 청소년의 0.7%는 단 한 개 영역의 체험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3.4%의 청소년들은 10개 영역 모두에 걸친 체험활동을 경험하고 있었다.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4개 영역의 체험활동을 하는 청소년이 1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5개 영역의 체험활동을 하는 청소년이 17.3%, 3개 영역의 체험활동을 하는 청소년이 15.2%로 절반 정도의 청소년들이 4개 영역 내외의 체험활동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4개 영역 이상의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의 70%였다. 여자 청소년과 학업성적이 상위인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참여의 폭이 다소 넓고, 특성화계 고등학생, 조손가정에 속한 청소년의 체험활동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은 것을 알 수 있다.

평균으로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4.6개 정도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반면,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5.0개의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

들의 체험활동 참여 폭이 가장 넓게 나타났고 초등학교는 평균 5.4개의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일반계고 학생은 4.6개, 특성화계고 학생은 4.2개의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4.7개, 중소도시 및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4.8개 영역의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규모별 체험활동 참여의 폭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0.187$ ). 가족유형 별로는, 양부모가정의 청소년들이 다른 가족유형에 비해 참여의 폭이 넓었고, 다음으로 한부모가정, 기타, 조손가정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경제수준별로는 상층에 속한 학생들이 다른 집단의 학생들에 비해 보다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었고, 중층 및 하층에 속한 학생들 간의 차이는 미미하였다.



【그림 IV-3】 체험활동 참여의 폭

표 IV-2 청소년활동 참여의 폭

단위: %

		전체 (N)	0	1	2	3	4	5	6	7	8	9	10	평균 (개)	표준 편차	t / F
전 체		4,849	0.7	4.1	10.0	15.2	18.9	17.3	13.2	8.8	5.3	3.1	3.4	4.8	2.19	
성별	남자	2,511	1.1	5.4	12.0	17.0	18.5	15.4	11.1	7.4	5.2	3.1	3.7	4.6	2.28	-6.797 ***
	여자	2,338	0.3	2.7	7.8	13.3	19.3	19.3	15.4	10.2	5.4	3.2	3.1	5.0	2.07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68	0.4	3.3	7.8	12.5	15.4	14.9	13.2	12.8	7.2	6.5	5.9	5.4	2.38	60.126 ***
	중학교	1,640	0.7	5.1	12.0	16.3	20.6	18.5	11.8	6.5	4.4	1.7	2.5	4.4	2.07	
	일반계고	1,432	0.7	3.3	9.6	15.4	21.0	19.0	14.8	7.8	4.7	1.6	2.2	4.6	1.99	
	특성화계고	309	2.6	6.2	12.2	21.4	16.3	13.9	13.8	6.0	4.2	1.6	1.8	4.2	2.15	
지역 규모	대도시	2,022	0.6	3.7	10.6	16.9	19.2	16.4	11.7	8.5	5.5	2.6	4.4	4.7	2.23	0.187
	중소도시	1,913	0.6	4.4	10.2	14.2	18.8	17.8	13.6	8.4	5.1	3.8	3.0	4.8	2.19	
	읍/면	914	1.2	4.2	8.4	13.6	18.3	18.1	15.7	10.0	5.6	2.7	2.0	4.8	2.1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595	0.7	3.8	9.8	15.1	19.0	17.6	13.5	8.7	5.3	3.1	3.4	4.8	2.17	4.441 **
	한부모가정	202	0.4	10.2	13.6	15.1	17.2	10.6	7.3	11.9	6.1	4.1	3.4	4.5	2.48	
	조손가정	7	-	30.4	-	56.3	13.2	-	-	-	-	-	-	2.5	1.14	
	기타	45	2.5	4.3	16.4	19.3	18.9	15.6	8.5	4.8	3.9	-	5.8	4.2	2.31	
학업 성적	상	1,423	0.5	2.3	6.0	10.7	18.3	18.4	15.6	12.2	7.7	4.5	3.8	5.3	2.13	93.072 ***
	중	2,058	0.7	3.7	10.1	15.7	18.4	17.7	13.5	8.3	5.3	3.4	3.1	4.8	2.17	
	하	1,328	1.0	6.6	14.1	19.1	20.3	15.3	10.4	5.8	2.9	1.3	3.1	4.2	2.12	
경제 수준	상	1,871	0.8	2.8	8.4	14.3	17.6	16.4	14.8	10.2	6.1	4.0	4.7	5.1	2.25	31.118 ***
	중	2,163	0.6	5.0	10.8	14.8	19.3	19.1	12.2	7.9	4.9	2.6	2.7	4.6	2.13	
	하	776	0.9	4.8	11.3	18.5	20.8	14.5	12.7	8.0	4.6	2.5	1.5	4.4	2.07	

\*  $p < 0.05$ , \*\*  $p < 0.01$ , \*\*\*  $p < 0.001$

### 3) 체험활동 참여의 방식

- 체험활동의 참여 경로는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하는 방식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방식이 모든 활동 영역에서 많았음.
- 초등학생은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방식이 많은 반면, 중고등학생은 동아리활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많았음.

체험활동 참여의 방식을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를 <표 IV-3>에 제시하였다.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개발활동, 사회참여활동 등 모든 영역에서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다. 해당 영역의 체험활동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10명 중 7명 이상은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하는 방식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체험활동 참여방식별 참여율

단위: %

	학교	교내 동아리	교외 동아리	교내외 연계	청소년 단체	온라인 동아리	종교	개인
건강·보건활동	95.8	45.0	32.7	29.2	23.0	16.8	21.9	39.1
과학정보활동	85.0	49.3	29.2	28.1	23.1	21.4	18.8	46.5
교류활동	84.3	37.7	28.7	28.0	24.5	20.2	21.7	36.3
모험·개척활동	76.3	35.3	29.6	24.7	29.2	16.0	24.0	55.9
문화예술활동	75.1	40.1	24.2	23.2	18.4	16.3	19.3	58.9
봉사활동	77.1	40.9	30.1	28.2	21.5	16.1	18.6	55.3
직업체험활동	87.4	33.0	20.1	20.5	15.9	16.0	12.7	40.0
환경보존활동	76.6	37.5	25.2	22.6	21.9	16.0	19.3	48.9
자기(인성)개발활동	87.8	35.6	24.8	21.5	19.4	18.5	20.1	43.4
사회참여활동	70.5	49.6	43.8	41.2	34.7	35.8	32.8	62.9

표 IV-4 체험활동 참여방식별 참여율(교급별)

단위: %

		학교	교내 동아리	교외 동아리	교내외 연계	청소년 단체	온라인 동아리	종교	개인
건강·보건	초등학교	95.3	47.6	33.9	29.6	29.9	16.9	26.6	49.2
	중학교	95.4	48.8	38.7	34.0	20.9	20.6	25.2	43.1
	일반계고	96.5	37.2	24.6	22.2	18.0	12.3	13.3	25.1
	특성화계고	97.1	50.8	33.9	36.3	21.7	19.0	21.4	31.3
과학정보	초등학교	86.7	45.5	32.2	28.1	28.4	21.0	20.1	56.3
	중학교	86.7	49.9	32.5	32.0	22.2	25.5	20.4	44.3
	일반계고	77.2	59.3	20.2	22.5	16.1	16.9	14.0	36.9
	특성화계고	92.9	33.3	21.5	27.6	17.0	18.8	18.7	23.0
교류	초등학교	87.4	32.1	24.6	23.5	25.7	18.0	21.2	38.9
	중학교	81.8	45.8	38.4	36.1	26.0	29.4	25.3	42.4
	일반계고	83.2	37.6	25.6	26.7	20.8	14.6	17.3	26.9
	특성화계고	75.1	46.0	32.3	34.0	29.5	27.0	37.9	40.9
모험·개척	초등학교	73.4	30.6	29.1	24.2	37.1	13.3	25.6	63.1
	중학교	77.4	43.5	37.4	31.0	26.1	22.7	26.6	57.3
	일반계고	77.1	30.8	20.8	16.2	19.9	13.0	17.7	44.6
	특성화계고	89.8	46.6	28.7	29.9	20.1	13.6	23.2	35.7
문화예술	초등학교	78.3	35.1	22.5	22.0	23.8	15.8	22.2	63.4
	중학교	71.9	47.6	30.5	28.2	17.4	21.3	20.1	59.0
	일반계고	71.5	40.5	20.7	19.4	11.8	12.7	13.7	55.8
	특성화계고	88.1	35.8	22.0	26.2	17.7	13.6	24.1	38.4
봉사	초등학교	81.0	31.0	26.4	24.0	28.4	15.0	23.4	47.5
	중학교	75.6	37.6	34.5	32.9	19.2	20.0	19.5	65.0
	일반계고	74.4	50.1	27.4	26.0	19.2	12.8	13.9	53.0
	특성화계고	86.6	48.9	35.3	30.9	19.8	16.5	19.9	42.4

		학교	교내 동아리	교외 동아리	교내외 연계	청소년 단체	온라인 동아리	종교	개인
직업체험	초등학교	81.2	26.2	20.5	19.8	22.4	16.2	14.5	52.1
	중학교	88.7	34.0	25.6	23.5	15.6	19.3	15.1	38.2
	일반계고	91.0	37.4	13.7	18.0	9.2	12.7	8.2	32.2
	특성화계고	96.1	42.0	23.7	22.8	17.7	15.4	13.5	23.5
환경보존	초등학교	78.6	31.3	22.9	19.4	25.0	14.8	20.7	54.8
	중학교	73.8	39.6	31.0	28.7	21.4	21.2	22.3	51.4
	일반계고	72.8	45.7	22.3	20.8	15.4	12.5	12.9	39.2
	특성화계고	88.3	47.7	31.4	31.6	24.7	18.2	21.4	28.0
자기(인성) 개발	초등학교	87.0	30.9	23.5	20.9	23.7	16.5	21.5	44.5
	중학교	86.7	38.2	30.1	26.3	18.8	24.4	23.7	47.2
	일반계고	89.6	38.1	20.4	16.5	13.4	14.8	15.1	39.7
	특성화계고	90.4	44.3	29.1	26.5	22.2	22.2	16.6	33.4
사회참여	초등학교	72.9	40.9	38.4	37.7	31.9	32.0	30.2	59.2
	중학교	78.5	61.6	53.2	50.1	38.3	44.5	40.4	68.2
	일반계고	56.4	49.7	40.2	33.9	28.7	30.6	25.0	63.8
	특성화계고	77.8	55.6	55.1	56.0	66.7	44.4	49.8	60.9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하는 방식 뿐 아니라 교내 동아리활동 및 개인적으로 하는 활동 방식 역시 모든 활동 영역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였는데, 특히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은 교내동아리를 통한 경우가 많았으며,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개발활동, 사회참여활동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방식이 많았다.

참여의 방식을 교급별로 살펴보면, <표 IV-4>와 같다.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하는 방식을

제외하면, 초등학생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방식’이 많았고,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동아리활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특성화계 고등학생의 경우에 더 두드러졌다. 또한 특성화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건강·보건활동과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존활동의 경우에 ‘교내-교외(지역사회) 연계활동’으로 참여한 경우가 각각 36.3%, 27.6%, 31.6%로 세 번째로 많은 참여방식이었다.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강조되어 왔던 교내-교외(지역사회) 연계활동으로 참여한 경우는 사회참여활동을 제외하면 그 성과가 미미하였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교내-교외(지역사회) 연계활동’방식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시설, 학교가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청소년지도사 학교 배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관계부처합동,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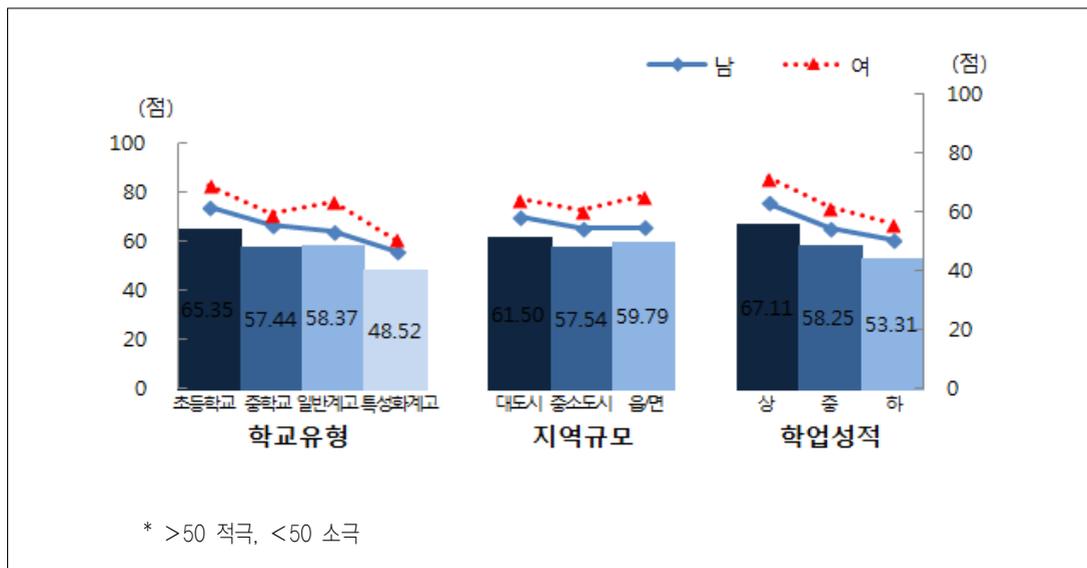
#### 4) 체험활동 참여의 강도

- 체험활동에 대한 적극성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살펴본 결과, 특성화계 고등학생들을 제외한 모든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남.
- 여자 청소년, 초등학생, 학업성적이 상위인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체험활동에 참여

체험활동에 대한 자발성과 적극성은 체험활동의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는 체험활동 참여의 강도(intensity)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영역의 각 참여방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를 질문하였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에 1점을 부여하고 소극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 후, 참여한 참여방식 수로 나누어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즉 참여강도 50점은 보통, 50점 이상은 적극적인 편, 50점 이하는 소극적인 편임을 의미한다.

성별, 학교유형별, 지역규모별, 학업성적별 체험활동 참여의 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그림 IV-4]에 제시하였다. 성별의 경우 전체적으로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계 고등학생(48.52점)을 제외한 모든 청소년들이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었다. 특히, 초등학생이 65.35점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계 고등학생 58.37점, 중학생

57.44점 순이었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61.50점), 읍/면(59.79점), 중소도시(57.54점) 순으로, 모든 지역의 청소년들이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었다. 학업성적의 경우에는 상위 학생이 67.11점으로, 학업성적 중위(58.25점), 하위(53.31점)에 체험활동 참여의 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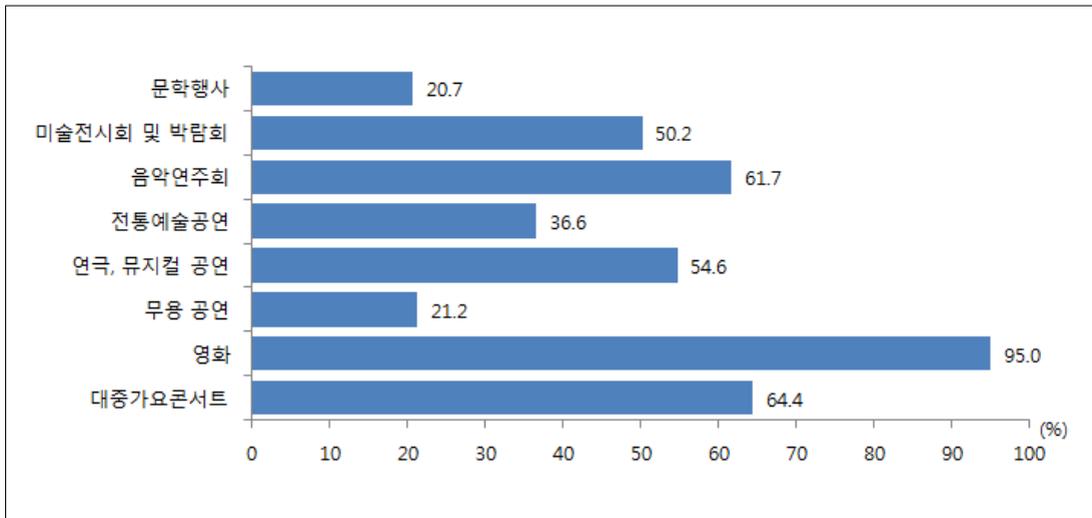
【그림 IV-4】 체험활동 참여의 강도

### 5)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청소년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영화」가 95%로 가장 높고, 「대중가요콘서트」(64.4%), 「음악연주회」(61.7%), 「연극, 뮤지컬 공연」(54.6%), 「미술전시회 및 박람회」(50.2%) 순이었음.
- 여자 청소년, 초등학생, 학업성적 상위, 경제수준 상층에 속한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 관람률이 높았음.
- 청소년의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는 「영화」 6.4회/년, 「미술전시회 및 박람회」 1.2회/년, 「연극, 뮤지컬 공연」 0.8회/년의 순이었음.

최근 1년간 문화예술 행사를 직접 관람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화관람」이 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중가요콘서트(비보잉 등 ‘발레 및 무용’을 제외한 모든

춤 포함), 연예(방송 프로그램 및 마술쇼 등) 관람」 64.4%, 「음악연주회(클래식, 오페라, 재즈 등) 관람」 61.7%, 「연극, 뮤지컬 공연 관람」 54.6%,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전시회 및 박람회(미술, 사진, 건축, 디자인, 서예 등) 관람」 50.2%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성별로 살펴보면(<표 IV-5>),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모든 문화예술행사에서 관람률이 높았고,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의 관람률이 다른 학교유형의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음악연주회(클래식, 오페라, 재즈 등) 관람」, 「연극, 뮤지컬 공연 관람」,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전시회 및 박람회(미술, 사진, 건축, 디자인, 서예 등) 관람」의 관람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고,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영화관람」, 「대중가요콘서트, 연예 관람」, 「전통예술공연(국악, 풍물, 민속극 등) 관람」의 관람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학업성적별로 보면, 「무용 공연(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등) 관람」을 제외한 모든 문화예술행사에서 상위에 속한 학생들이 높은 관람률을 보였으며, 중위에 속한 학생들은 「무용 공연(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등) 관람」에서 높은 관람률을 보였다. 경제수준별로는 「대중가요콘서트, 연예 관람」을 제외한 모든 문화예술행사에서 상층에 속한 청소년들의 관람률이 높았으며, 중층에 속한 청소년들의 경우 「대중가요콘서트, 연예 관람」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관람률을 보였다.



【그림 IV-5】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표 IV-5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단위: %

		문학행사	미술전시회 박람회	음악 연주회	전통예술 공연	연극, 뮤지컬 공연	무용 공연	영화	대중가요 콘서트
전 체		20.7	50.2	61.7	36.6	54.6	21.2	95.0	64.4
성별	남자	17.8	44.5	55.3	30.4	47.8	13.2	93.5	51.6
	여자	23.8	56.4	68.6	43.3	62.1	30.0	96.6	78.3
	$\chi^2$	27.821***	70.120***	93.553***	89.102***	102.002***	208.192***	24.576***	383.001***
학교 유형	초등학교	30.8	63.6	70.7	54.7	60.6	30.1	96.0	68.1
	중학교	17.3	47.1	60.6	32.9	55.0	19.8	94.6	63.0
	일반계고	15.8	41.6	56.3	24.3	49.1	15.2	95.0	64.4
	특성화계고	13.7	42.3	49.5	27.0	50.0	14.8	91.4	54.2
	$\chi^2$	135.541***	165.416***	89.658***	327.043***	42.660***	111.898***	12.726**	24.791***
지역 규모	대도시	21.4	55.7	65.1	36.7	58.5	21.6	95.1	64.2
	중소도시	21.5	49.0	61.0	38.5	54.0	21.6	95.6	65.0
	읍/면	17.3	40.2	55.6	32.3	47.3	19.7	93.3	63.7
	$\chi^2$	7.882*	63.239***	24.850***	10.441**	32.951***	1.576	6.998*	0.531
학업 성적	상	26.8	58.5	66.2	42.5	59.9	21.5	97.1	67.8
	중	20.0	50.6	62.3	36.7	55.0	22.7	94.5	65.2
	하	15.2	40.7	55.9	30.5	48.7	18.9	93.4	59.6
	$\chi^2$	57.911***	89.430***	32.020***	43.432***	34.982***	7.038*	21.732***	21.613***
경제 수준	상	25.6	55.9	67.0	41.3	59.5	23.8	95.6	64.7
	중	18.2	47.9	58.3	34.8	52.2	20.6	94.5	65.0
	하	15.9	42.6	58.0	30.6	49.9	17.3	94.7	62.0
	$\chi^2$	47.682***	48.143***	38.710***	33.546***	30.222***	15.187**	2.763	2.541

\*  $p < 0.05$ , \*\*  $p < 0.01$ , \*\*\*  $p < 0.001$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관람경로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6>과 같다. 「음악연주회(클래식, 오페라, 재즈 등) 관람」의 경우 42.7%가 「TV, 비디오, DVD 등을 통해서」 관람한다고 응답하였고, 「전통예술공연(국악, 풍물, 민속극 등) 관람」 역시 22.8%의 청소년들이 「TV, 비디오, DVD 등을 통해서」 관람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무용 공연(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등) 관람(12.8%)」 및 「대중가요콘서트(비보잉 등 ‘발레 및 무용’을 제외한 모든 춤 포함), 연예(방송 프로그램 및 마술쇼 등) 관람(56.5%)」도 「TV, 비디오, DVD 등을 통해서」 관람한다는 청소년들의 비중이 높았다. 반면, 「연극, 뮤지컬 공연 관람」의 경우에는 「극장, 공연홀 등에서」 관람한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38.9%로 다른 관람방법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영화관람」도 「극장, 공연홀 등에서」 관람한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88.5%로 다른 관람방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즉 「연극, 뮤지컬 공연」과 「영화」는 직접관람의 비중이 높은 데 비해, 「음악연주회», 「전통예술 공연», 「무용 공연», 「대중가요콘서트」의 경우는 매체를 통한 간접관람의 비중이 높았다. 이는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매체를 이용한 문화예술행사 관람 비중이 증대한 결과라고 하겠다.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를 분석한 결과(<표 IV-7>), 「음악연주회(클래식, 오페라, 재즈 등) 관람」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 관람하는 청소년들이 연평균 2회로 가장 많았으며, 「영화관람」은 「극장, 공연홀 등에서」 관람하는 횟수가 연평균 6.4회, 「대중가요콘서트(비보잉 등 ‘발레 및 무용’을 제외한 모든 춤 포함), 연예(방송 프로그램 및 마술쇼 등) 관람」은 「TV, 비디오, DVD 등을 통해서」 관람하는 횟수가 연평균 9.5회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관람횟수를 분석해보면, 「음악연주회(클래식, 오페라, 재즈 등) 관람」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 관람하는 횟수가 연평균 5.9회로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대중가요콘서트(비보잉 등 ‘발레 및 무용’을 제외한 모든 춤 포함), 연예(방송 프로그램 및 마술쇼 등) 관람」 역시 「TV, 비디오, DVD 등을 통해서」 관람하는 횟수가 연평균 18회로,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반면, 「영화관람」은 「TV, 비디오, DVD 등을 통해서」 관람하는 청소년들이 더 많았으며, 관람횟수는 연평균 7.5회이었다.

표 IV-6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단위: %

	전체	극장, 공연홀 관람	TV, 비디오, DVD 관람	인터넷 관람
문학행사	20.7	-	-	-
미술전시회 및 박람회	50.2	-	-	-
음악연주회	61.7	34.1	42.7	35.6
전통예술 공연	36.6	17.0	22.8	16.2
연극, 뮤지컬 공연	54.6	38.9	25.8	21.8
무용 공연	21.2	9.7	12.8	10.5
영화	95.0	88.5	77.7	65.0
대중가요콘서트	64.4	17.8	56.5	42.5

표 IV-7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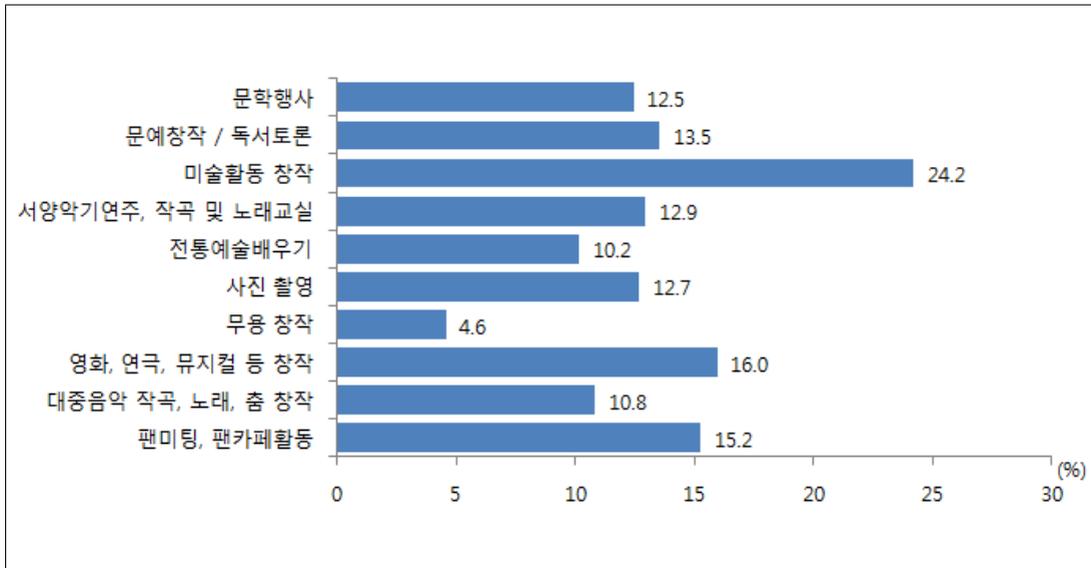
단위: 회

	연평균 관람횟수			관람자 대상 관람횟수		
	극장, 공연홀 관람	TV, 비디오, DVD 관람	인터넷 관람	극장, 공연홀 관람	TV, 비디오, DVD 관람	인터넷 관람
문학행사	0.4			2.1		
미술전시회 및 박람회	1.2			2.4		
음악연주회	0.7	1.7	2.0	2.1	4.1	5.9
전통예술공연	0.3	0.5	0.4	1.9	2.5	2.6
연극, 뮤지컬 공연	0.8	0.7	0.6	2.0	2.7	3.0
무용 공연	0.2	0.3	0.3	2.0	2.8	3.4
영화	6.4	5.7	4.2	7.3	7.5	6.6
대중가요콘서트	0.4	9.5	5.8	2.7	18.0	15.0

## 6) 문화예술행사 참여율

- 청소년의 문화예술행사 참여율은 「미술활동 창작」이 24.2%로 가장 높고, 「영화, 연극, 뮤지컬 등 창작」(16.0%), 「팬미팅, 팬카페 활동」(15.2%) 순이었음.
- 여자 청소년, 초등학교, 학업성적 상위, 경제수준 상층에 속한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율이 높았고,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의 참여율이 높았음.
- 청소년의 문화예술행사 참여횟수는 「팬미팅 및 팬카페활동」 1.1회/년, 「미술활동 창작」 1.0회/년, 「서양악기연주, 작곡 및 노래교실」 0.8회/년의 순이었음.

최근 1년간 문화예술행사에 직접 참여한 적이 있는지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그림 IV-6]), 「미술활동(그림, 조각, 디자인, 도예, 공예, 만화, 건축, 서예 등) 창작 및 발표활동」이 24.2%로 가장 높았으며, 「영화, 연극, 뮤지컬 등 공연 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이 16.0%,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팬미팅, 팬카페활동」이 15.2%, 「문예창작 및 발표 / 독서토론」이 13.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용(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등) 창작 및 발표활동」은 4.6%로 참여율이 가장 낮았다.



【그림 IV-6】 문화예술행사 참여율

표 IV-8 문화예술행사 참여율

단위: %

		문학행사	문예창작 독서토론	미술활동 창작	서양악기 노래교실	전통예술 배우기	사진촬영	무용창작	영화연극 창작	대중음악 창작	팬미팅 펜카페
전 체		12.5	13.5	24.2	12.9	10.2	12.7	4.6	16.0	10.8	15.2
성 별	남자	10.3	10.9	19.0	9.1	8.2	11.2	3.1	15.4	7.2	8.0
	여자	14.8	16.3	29.8	17.1	12.3	14.2	6.3	16.6	14.8	23.1
	$\chi^2$	23.086***	31.252***	79.060***	69.079***	22.884***	9.621**	27.811***	1.296	72.900***	217.792**
학 교 유 형	초등학교	18.4	18.4	38.2	20.4	20.4	22.3	8.2	22.6	15.7	20.9
	중학교	9.7	11.0	21.5	10.8	6.4	10.6	4.1	13.3	9.7	15.7
	일반계고	10.3	13.5	14.0	9.0	5.0	6.3	2.2	13.1	7.7	10.5
	특성화계고	9.0	4.1	19.4	7.1	5.6	7.8	1.5	11.6	8.4	8.4
	$\chi^2$	69.882***	63.377***	254.654***	112.153***	247.009***	192.387***	70.759***	72.295***	55.363***	74.771***
지 역 구 분	대도시	13.4	13.0	24.2	13.3	9.8	13.2	5.0	16.9	10.5	16.2
	중소도시	12.1	14.1	26.4	13.5	10.8	14.4	5.0	17.1	12.1	16.3
	읍/면	11.0	13.4	19.7	11.1	9.7	7.9	3.1	11.4	8.9	11.1
	$\chi^2$	3.443	1.041	15.441***	3.449	1.282	24.147***	5.760	17.657***	7.025*	15.326**
학 업 성 적	상	17.7	21.4	30.7	17.3	12.3	16.6	5.4	18.3	12.2	16.9
	중	12.0	12.0	24.4	12.9	10.9	12.9	4.6	15.7	10.8	15.8
	하	7.6	7.5	17.1	8.1	6.7	8.2	3.9	13.8	9.4	12.8
	$\chi^2$	67.018***	122.717	70.195***	52.508***	27.018***	44.900***	3.633	10.615**	5.831	10.107**
경 제 수 준	상	15.7	16.6	29.1	17.3	13.9	16.4	6.4	19.0	13.7	17.6
	중	10.8	11.5	21.5	9.9	8.3	10.9	3.6	14.1	9.4	14.4
	하	9.2	11.5	20.2	10.3	6.1	8.6	3.2	14.0	8.0	12.3
	$\chi^2$	32.610***	25.797***	41.031***	55.805***	51.780***	43.295***	21.334***	21.575***	27.675***	14.377**

\*  $p < 0.05$ , \*\*  $p < 0.01$ , \*\*\*  $p < 0.001$

청소년의 문화예술행사 참여율을 성별로 보면, 모든 문화예술행사에서 여자 청소년의 참여율이 남자 청소년들보다 높았다. 학교유형별 역시 모든 문화예술행사에서 초등학생들의 참여율이 다른 학교급 학생들의 참여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성적 상위에 속한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경제수준도 상층에 속한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역규모의 경우에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보다 「문학행사(도서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등) 참여」를 제외한 모든 문화예술행사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행사 참여횟수를 살펴보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팬미팅, 팬카페활동」과 「미술활동(그림, 조각, 디자인, 도예, 공예, 만화, 건축, 서예 등) 창작 및 발표활동」이 각각 연평균 1.1회와 1.0회로 나타났으며, 「서양악기연주, 작곡 및 노래교실(성악, 가곡 등 클래식 또는 오페라 관련) 참여 및 발표」는 연평균 0.8회로 나타났다.

표 IV-9 문화예술행사 참여횟수

단위: 회

	연평균 참여횟수	참여자 대상 참여횟수
문학행사	0.2	1.7
문예창작 / 독서토론	0.3	2.7
미술활동 창작	1.0	4.4
서양악기연주, 작곡 및 노래교실	0.8	6.6
전통예술배우기	0.6	6.5
사진 촬영	0.6	5.1
무용 창작	0.1	3.3
영화, 연극, 뮤지컬 등 창작	0.6	3.9
대중음악 작곡, 노래, 춤 창작	0.3	3.3
팬미팅, 팬카페활동	1.1	8.2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행사 참여횟수를 살펴보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팬미팅, 팬카페활동」이 연평균 8.2회로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양악기연주, 작곡 및 노래교실(성악, 가곡 등 클래식 또는 오페라 관련) 참여 및 발표」와 「전통예술배우기(전통악기연주, 전통노래 배우기, 전통무용, 풍물, 민속극 등)」가 각각 연평균 6.6회, 6.5회이었다. 「사진촬영(디지털카메라 포함) 및 발표활동」의 연평균 참여횟수는 5.1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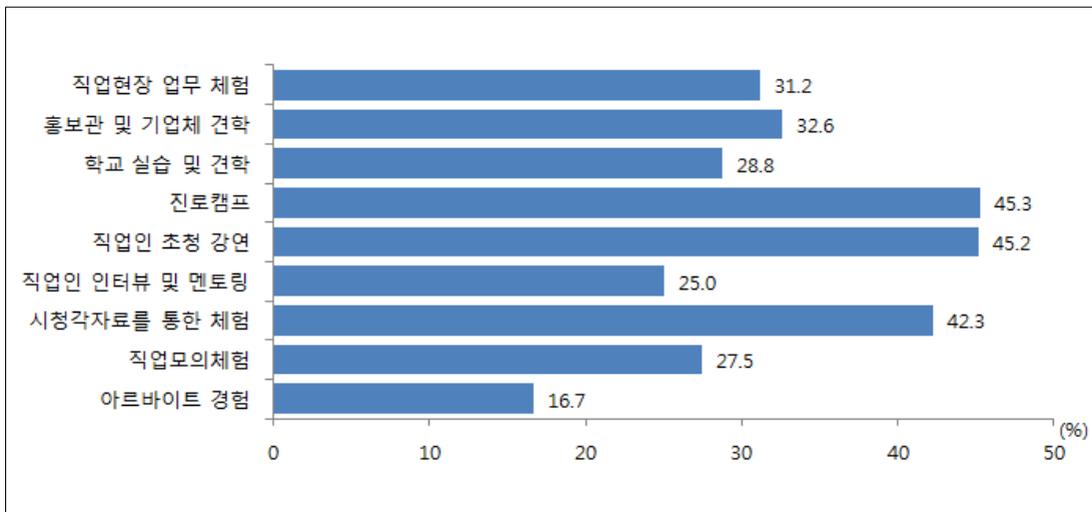
### 7) 진로체험 경험률 및 도움정도

- 청소년의 진로체험 경험률은 「진로캠프」가 45.3%로 가장 높고, 「직업인 초청 강연」(45.2%), 「시청각 자료를 통한 체험」(42.3%) 순으로 간접 체험 경험률이 높았음.
- 「아르바이트」 이외의 경험은 학업성적 상위, 경제수준 상층에 속한 청소년의 경험률이 높음.
- 청소년들은 진로체험 유형 중 「직업모의체험」, 「직업현장 업무 체험」, 「학교에서의 실습 및 견학」 등 직접 체험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경험률을 살펴보면, 「진로캠프(진로심리검사, 상담, 멘토링 특강 등의 종합적 프로그램)」가 45.3%로 가장 높았으며, 「직업인 초청 강연」이 45.2%, 「시청각 자료를 통한 진로체험」이 42.3%로 그 뒤를 이어, 청소년들의 진로체험은 간접 경험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아르바이트 경험」의 경우에는 16.7%로 가장 낮은 경험률을 보였다.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경험률을 성별, 학교유형별, 지역규모별, 학업성적별, 경제수준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체험활동과 문화예술행사 경험률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자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경험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진로캠프(진로심리검사, 상담, 멘토링 특강 등의 종합적 프로그램)」, 「직업인 초청 강연」, 「시청각 자료를 통한 진로체험」, 「직업모의체험(제과제빵, 모의법정 등)」의 진로체험 경험률은 성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교유형별로 보면, 초등학생들은 「직업현장에서의 실제 업무 체험」, 「일터, 직업관련 홍보관, 기업체 견학」,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서의 실습·견학」, 「직업모의체험(제과제빵, 모의법정 등)」에서 다른 학교유형에 비해 높은 경험률을 보였으며,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진로캠프(진로심리검사, 상담, 멘토링 특강 등의 종합적 프로그램)」, 「직업인 초청 강연」, 「시청각 자료를 통한 진로체험」에서, 특성화계 고등학생들은 「아르바이트 경험」에서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학업성적별로 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을 제외하고는 학업성적 상위에 속한 학생들의 진로체험 경험률이 다른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고, 「아르바이트 경험」의 경우는 학업성적 하위에 속한 학생들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별 역시 상층에 속한 학생들의 경험률이 대체로 높았으며, 「아르바이트 경험」만 경제수준 하층에 속한 청소년들의 경험률이 높았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진로체험의 목적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안선영 외(2013)가 지적하였듯이 아르바이트는 직접 진로체험의 한 형태일 수 있으므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정책 방향을 ‘법적 보호’에서 ‘권리 신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7】 진로체험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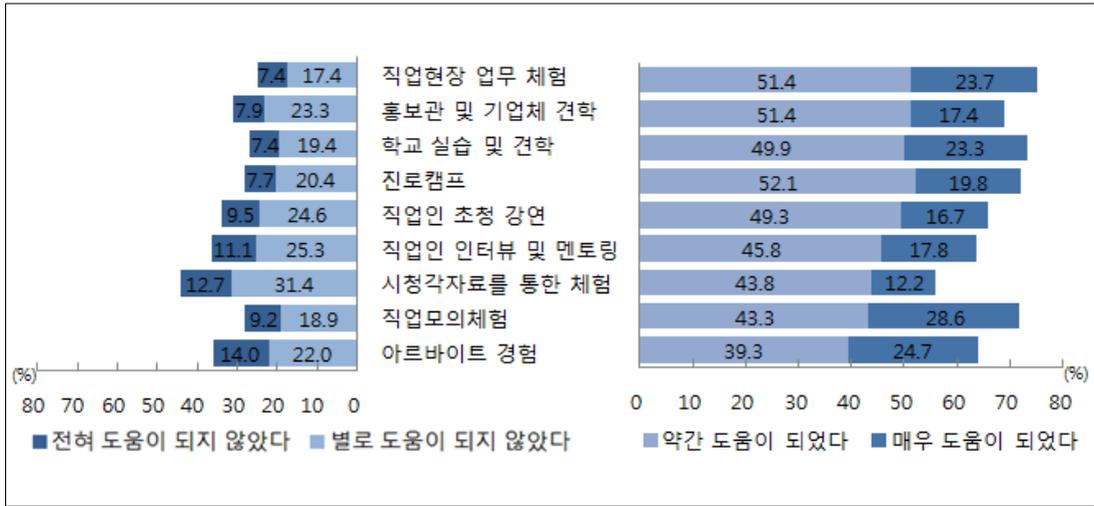
진로체험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살펴본 결과(【그림 IV-8】, <표 IV-11>), 「직업모의체험(제과제빵, 모의법정 등)」에 대해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28.6%이었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24.7%, 「직업현장에서의 실제 업무 경험」이 23.7%,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서의 실습·견학」이 23.3%로 나타나, 진로체험 활동에서는 직접 체험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시청각자료를 통한 진로체험」의 경우에는 12.2%만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12.7%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31.4%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것을 보았을 때, 직접적인 진로체험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IV-10 진로체험 경험률

단위: %

	직업현장 업무경험	홍보관 기업체 견학	학교실습 견학	진로캠프	직업인 초청강연	직업인 인터뷰 멘토링	시청각자료 통한 체험	직업모의 체험	아르바이트 경험	
전 체	31.2	32.6	28.8	45.3	45.2	25.0	42.3	27.5	16.7	
성 별	남자	30.3	31.5	28.2	40.9	42.5	24.0	39.2	25.8	17.6
	여자	32.1	33.8	29.4	50.0	48.2	26.1	45.7	29.3	15.7
	$\chi^2$	1.598	2.909	0.722	38.734***	14.693***	2.805	19.868***	6.772**	3.086
학 교 유 형	초등학교	38.4	37.1	34.5	47.7	32.2	23.9	36.4	31.9	12.7
	중학교	34.6	32.9	25.7	39.9	44.6	26.1	42.2	29.9	12.9
	일반계고	20.5	27.1	26.6	50.0	57.9	24.8	48.8	20.7	20.1
	특성화계고	29.4	35.7	29.0	40.8	50.3	25.5	40.2	25.5	39.1
	$\chi^2$	113.530***	33.180***	31.401***	36.346***	185.041***	1.844	43.693***	50.668***	153.037***
지 역 구 분	대도시	30.9	34.7	28.8	45.7	44.7	26.8	43.1	27.6	15.1
	중소도시	32.5	30.7	28.2	42.3	44.0	23.4	39.8	28.2	16.1
	읍/면	29.1	32.1	29.9	50.6	48.9	24.3	45.7	25.9	21.6
	$\chi^2$	3.324	6.782*	0.869	16.328***	6.184*	5.979	9.453**	1.494	19.285***
학 업 성 적	상	34.9	38.8	31.4	52.4	50.2	27.1	51.8	32.8	12.7
	중	30.1	31.5	29.0	45.2	45.4	26.0	41.5	27.1	15.8
	하	28.9	27.7	25.6	37.9	39.9	21.1	33.2	22.3	22.4
	$\chi^2$	12.646**	38.567***	10.823**	55.256***	27.486***	14.536**	92.625***	36.683***	46.056***
경 제 수 준	상	36.7	38.0	33.6	49.3	48.7	28.6	46.4	32.4	15.4
	중	28.8	30.3	26.8	43.2	42.3	23.5	40.0	23.5	15.8
	하	24.5	26.1	22.5	41.8	45.0	20.2	38.6	26.6	21.9
	$\chi^2$	46.367***	42.350***	38.039***	18.787***	15.661***	24.205***	20.697***	37.991***	17.708***

\*  $p < 0.05$ , \*\*  $p < 0.01$ , \*\*\*  $p < 0.001$



【그림 IV-8】 진로체험 도움정도

표 IV-11 진로체험 도움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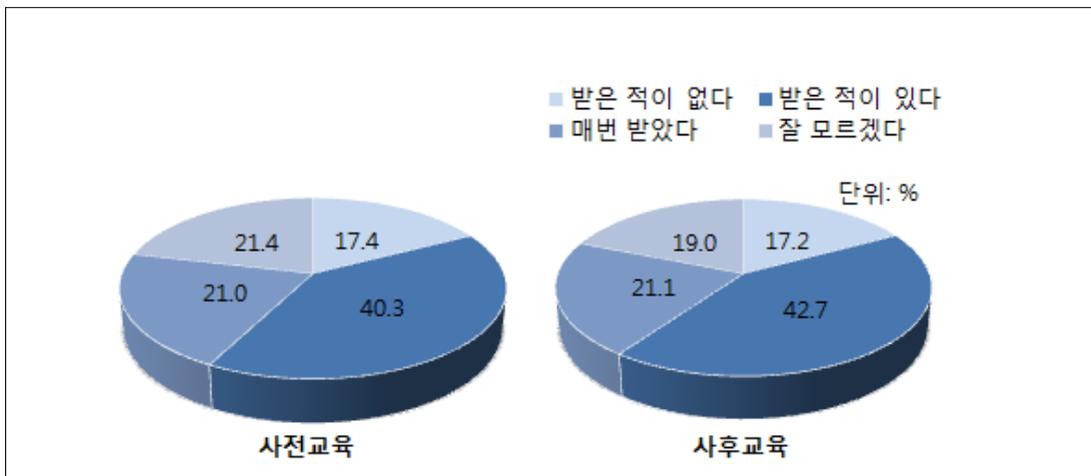
단위: %

	전체(N)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직업현장에서의 실제 업무 체험	1,429	7.4	17.4	51.4	23.7
일터, 직업관련 홍보관, 기업체 견학	1,494	7.9	23.3	51.4	17.4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서의 실습·견학	1,316	7.4	19.4	49.9	23.3
진로캠프(진로심리검사, 상담, 멘토링 특강 등의 종합적 프로그램)	2,071	7.7	20.4	52.1	19.8
직업인 초청 강연	2,073	9.5	24.6	49.3	16.7
직업인 인터뷰 및 멘토링(상담)	1,145	11.1	25.3	45.8	17.8
시청각 자료를 통한 진로체험	1,937	12.7	31.4	43.8	12.2
직업모의체험(제과제빵, 모의법정 등)	1,259	9.2	18.9	43.3	28.6
아르바이트 경험	764	14.0	22.0	39.3	24.7

## 8) 사전·사후교육 경험률

- 체험활동 시 사전·사후 교육을 매번 받았다는 청소년은 각각 5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하였음.
- 사전·사후교육은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계 고등학교,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에서 특히 미흡하였음.

사전·사후교육 경험률은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참여한 후에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받은 적이 없다’, ‘받은 적이 있다’, ‘매번 받았다’, ‘잘 모르겠다’ 로 측정하였다. 체험활동 시 사전·사후교육을 ‘매번 받았다’는 청소년은 사전교육 21.0%, 사후교육 21.1%로 각각 5명 중 1명 정도만이 사전·사후교육을 매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사후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을 살펴보면 사전교육은 전체 청소년의 40.3%, 사후교육은 전체 청소년의 42.7%이었다. 사전·사후교육을 매번 받은 청소년을 포함하여 받은 적이 있는 청소년은 사전교육 61.3%, 사후교육 63.8%이었다. 이는 사전·사후교육이 프로그램의 안전과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생각할 때 매우 낮은 수치이다. 또한 10명 중 4명 정도의 청소년이 사전·사후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교육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인식하지 못한다(‘잘 모르겠다’)는 것으로부터 체험활동의 질 관리가 매우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IV-9】 사전·사후교육 경험률

사전·사후교육 경험률을 학교유형과 지역규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IV-12>, <표 IV-13>과 같다. 학교유형별로 사전교육의 경우 초등학생의 경험률(‘받은 적이 있다’ 35.0%, ‘매번 받았다’ 26.9%)이 가장 높았고,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험률(‘받은 적이 있다’ 45.5%, ‘매번 받았다’ 17.4%)이 그 뒤를 이었다. 사후교육의 경우에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험률(‘받은 적이 있다’ 46.2%, ‘매번 받았다’ 20.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경험률(‘받은 적이 있다’ 41.1%, ‘매번 받았다’ 23.1%), 초등학생의 경험률(‘받은 적이 있다’ 41.1%, ‘매번 받았다’ 21.2%) 순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사전교육과 사후교육 모두에서 낮은 경험률을 보고하였다. 특히 특성화계 고등학생의 과반수인 52.9%가 ‘사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표 IV-12 사전교육 경험률

단위: %

		전체(N)	받은 적이 없다	받은 적이 있다	매번 받았다	잘 모르겠다	$\chi^2$
전체		4,889	17.4	40.3	21.0	21.4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97	12.4	35.0	26.9	25.7	148.534***
	중학교	1,657	17.5	41.0	20.7	20.8	
	일반계고	1,438	20.3	45.5	17.4	16.8	
	특성화계고	297	28.3	36.8	10.3	24.6	
지역 규모	대도시	2,042	17.2	37.8	24.8	20.2	43.523***
	중소도시	1,929	17.1	42.2	19.8	20.9	
	읍/면	919	18.6	41.6	15.0	24.7	

\*  $p < 0.05$ , \*\*  $p < 0.01$ , \*\*\*  $p < 0.001$

표 IV-13 사후교육 경험률

단위: %

		전체(N)	받은 적이 없다	받은 적이 있다	매번 받았다	잘 모르겠다	$\chi^2$
전체		4,856	17.2	42.7	21.1	19.0	
학 교 유 형	초등학교	1,487	14.0	41.1	21.2	23.8	76.570***
	중학교	1,640	16.9	41.1	23.1	19.0	
	일반계고	1,433	19.2	46.2	20.4	14.2	
	특성화계고	296	25.3	43.6	13.4	17.7	
지 역 규 모	대도시	2,028	15.7	42.8	24.0	17.6	23.789**
	중소도시	1,910	17.7	42.5	19.8	20.0	
	읍/면	917	19.2	43.2	17.6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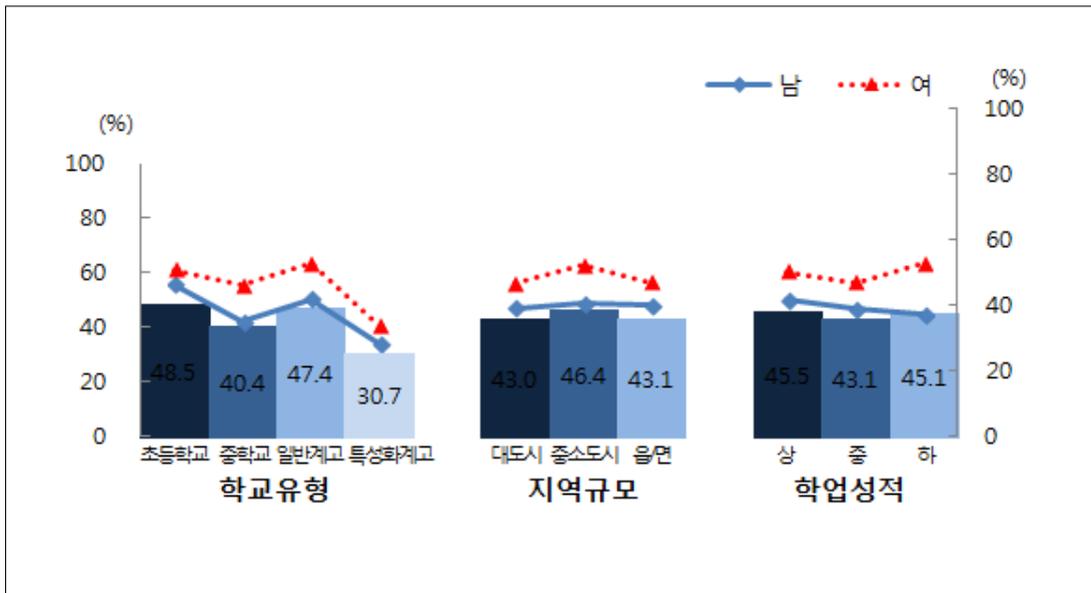
\*  $p < 0.05$ , \*\*  $p < 0.01$ , \*\*\*  $p < 0.001$

지역규모별로는 전반적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중소도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사전·사후교육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구체적으로 사전교육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경험률(‘받은 적이 있다’ 37.8%, ‘매번 받았다’ 24.8%)이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경험률(‘받은 적이 있다’ 42.2%, ‘매번 받았다’ 19.8%),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경험률(‘받은 적이 있다’ 41.6%, ‘매번 받았다’ 15.0%)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교육을 살펴보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경험률(‘받은 적이 있다’ 42.8%, ‘매번 받았다’ 24.0%)이 다른 지역규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경험률(‘받은 적이 있다’ 42.5%, ‘매번 받았다’ 19.8%),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경험률(‘받은 적이 있다’ 43.2%, ‘매번 받았다’ 17.6%) 순으로, 읍/면지역의 사전·사후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9) 체험활동 장애요인 및 요구

- 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은 참여하고 싶은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험이 있음.
- 청소년들은 참여하고 싶은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 1순위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2순위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 3순위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라고 응답
- 청소년들은 체험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첫째, 「흥미 있는 구성」, 둘째, 「프로그램의 다양성」, 셋째, 「시간확보」를 들었음.

최근 1년간 희망하는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청소년의 비율은 [그림 IV-10]과 같다. 전체적으로 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은 참여하고 싶었지만 참여하지 못한 체험활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 청소년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고,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48.5%)와 일반계 고등학교(47.4%)이,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 청소년(46.4%), 학업성적별로는 상위(45.5%)와 하위(45.1%) 집단에서 희망하는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10】 희망하는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비율

희망하는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1, 2, 3순위로 응답하게 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14>와 같다. 전체 청소년의 71.7%가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희망하는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2순위로는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 3순위로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라고 응답하여 체험활동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과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화, 질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표 IV-14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

단위: %

		공부에 방해	참여할 시간없음	참가비용 부담	부모님 반대	내용이 마음에 들지않음	활동내용 모름	신청방법 모름	같이 참여할 친구없음	기타
전체		29.0	71.7	25.7	16.5	30.3	44.2	24.7	25.4	15.0
학교 유형	초등학교	18.8	70.5	29.3	33.5	30.4	32.9	15.7	35.3	18.8
	중학교	28.5	70.3	22.7	11.3	33.1	44.4	25.6	26.0	15.2
	일반계고	40.7	74.6	24.3	5.3	27.9	55.9	30.9	15.2	11.2
	특성화계고	24.6	69.1	30.3	4.9	28.5	43.9	41.5	19.4	13.4
지역 규모	대도시	28.9	72.0	26.4	15.6	32.0	47.1	22.9	24.3	14.4
	중소도시	27.7	72.2	24.5	18.4	30.3	40.2	26.4	26.9	14.1
	읍/면	31.9	69.7	27.0	14.1	26.9	46.9	24.7	24.3	18.7
학업 성적	상	38.4	76.9	21.4	17.1	26.8	40.2	23.2	26.1	13.7
	중	27.5	73.1	26.4	17.5	29.4	44.5	23.3	25.2	16.1
	하	18.6	62.6	30.5	14.1	35.5	49.3	29.2	25.3	15.1
경제 수준	상	34.2	74.7	21.1	18.2	30.7	42.5	21.9	25.7	14.5
	중	26.6	71.1	26.1	16.1	30.2	45.8	25.0	25.1	15.6
	하	22.6	66.6	36.4	13.8	28.2	44.4	30.5	26.2	14.8

또한 참여하고 싶은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 기타의 비율이 높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타 사례 327건 중 117건이 2014년 4월의 세월호 사건을 이유로 들었다. 학생들의 수학여행 중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가 청소년들의 활동을 상당 부분 위축시켰음을 알 수 있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는 2순위가 「같이 참여할 친구가 없어서」, 3순위가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로 중고등학생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특성화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3순위였다.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체험활동을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청소년들은 전체 청소년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읍/면 지역의 청소년들은 3순위로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다. 학업성적별로 보면, 학업성적 상위인 학생들은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를 3순위로 응답하였다. 경제수준별로는 경제수준 상층에 속한 청소년들은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를, 중층에 속한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를, 하층에 속한 청소년들은 「참가비용이 부담돼서」를 3순위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표 IV-15>). 그 결과 청소년들은 체험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성별, 학교유형별, 지역규모별, 가족유형별, 학업성적별, 경제수준별로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였으며, 다만 조손가정 청소년의 경우 「체험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와 「체험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를 각각 1순위와 2순위로 응답하였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체험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를 2순위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를 3순위로 응답한 반면, 중학생의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를 2순위로,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학생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를 3순위로 응답하였다.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전체 청소년들과 1, 2, 3순위 모두 같은 양상을 보였고, 특성화계고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학생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를 2순위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를 3순위로 응답하였다.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도시의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를 두 번째 이유로 꼽았으며,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학생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를 세 번째 이유로 꼽았다. 중소도시의 경우 1,

표 IV-15 체험활동에 대한 요구

단위: %

		시간 확보	정보접근 용이성	학생 의사반영	프로그램 다양성	흥미있는 구성	안전한 운영	전문가 운영	참가비용 지원	성적 반영	상 제도
전체		43.0	29.0	41.3	45.7	62.0	17.5	13.9	21.6	12.8	9.7
성별	남자	46.9	28.7	41.3	43.7	60.4	18.6	13.0	21.1	11.7	10.3
	여자	38.6	29.3	41.3	47.8	63.8	16.3	15.0	22.1	14.0	9.0
학교 유형	초등학교	46.9	23.5	34.5	45.5	62.2	28.1	11.2	21.0	10.1	11.7
	중학교	40.2	25.7	45.5	45.9	66.6	17.5	11.8	21.2	13.4	8.9
	일반계고	44.0	39.5	40.9	47.5	55.8	8.4	18.8	20.7	14.4	7.7
	특성화계고	33.6	24.1	52.9	37.1	65.3	8.9	16.1	31.7	14.2	13.5
지역 규모	대도시	41.9	28.4	43.9	47.3	64.9	16.5	12.4	20.2	13.0	8.3
	중소도시	43.5	29.1	39.6	44.8	62.5	18.4	13.8	21.2	12.5	10.6
	읍/면	44.0	30.0	39.2	43.9	54.7	17.8	17.5	25.7	12.9	11.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3.0	29.1	41.5	45.7	62.3	17.1	14.1	21.3	12.7	9.7
	한부모가정	42.8	23.1	36.6	46.7	57.2	26.3	12.3	28.1	13.8	9.5
	조손가정	54.2	46.5	0.0	35.8	37.7	45.8	15.7	45.7	0.0	18.4
	기타	40.0	35.6	46.9	41.2	60.5	16.5	6.9	22.4	12.9	7.5
학업 성적	상	47.0	28.3	43.5	42.6	61.7	16.0	13.1	19.5	14.0	10.2
	중	42.3	29.9	40.9	46.3	62.6	18.0	13.9	20.9	12.6	9.3
	하	39.5	28.0	39.6	48.4	61.4	18.2	14.9	25.1	11.7	9.9
경제 수준	상	45.5	28.4	41.4	45.0	62.8	18.8	13.8	18.4	12.9	10.0
	중	41.3	29.8	42.1	46.8	62.9	18.0	13.1	20.2	12.4	9.5
	하	41.2	27.7	38.7	45.0	57.8	12.8	16.8	33.2	13.8	9.6

2, 3순위 모두 전체 청소년들과 같은 응답을 하였으나,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두 번째 이유로 「체험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를, 세 번째 이유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를 응답하였다.

가족유형별로 보면,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의 청소년들은 전체 청소년들과 1, 2, 3순위 모두 같은 응답을 한 반면,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체험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를 1순위로, 「체험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를 2순위로,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를 3순위로 응답하였다. 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2순위를 「체험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로 들어 정보접근 용이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학업성적별로 살펴보면, 상위에 속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2순위의 경우 「체험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 3순위의 경우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학생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를 꼽았다. 학업성적 중위 학생들의 경우에는 전체 청소년들과 1, 2, 3순위 모두 동일한 응답을 하였으나, 학업성적 하위에 속한 학생들의 경우 3순위를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학생들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수준별로 보면, 각 집단 모두 전체 청소년들과 첫 번째 이유는 동일하게 응답하였으나 2순위의 경우에는 상층에 속한 청소년들은 「체험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를, 중층에 속한 청소년들은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를 꼽았다. 3순위는 상층에 속한 청소년들은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를, 중층에 속한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학생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를 꼽았다. 하층에 속한 청소년들은 전체 청소년들과 1, 2, 3순위 모두 동일하게 응답하였다.

#### 10) 체험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 체험활동 관련시설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도서관」(88.9%)이었고, 다음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센터 등」(54.9%)이었음.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센터 등」, 「유스호스텔, 야영장」, 「사회복지관」, 「수목림, 수목원, 자연휴양림」은 이용한 적이 없거나 일년에 1~2번 정도 이용하는 청소년이 대다수였음.

최근 1년간의 체험활동 관련시설 이용률은 <표 IV-16>과 같다. 모든 청소년들이 체험활동

관련시설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관은 「도서관(88.9%)」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센터 등(54.9%)」이 그 뒤를 이었다. 학교유형별로 보면, 모든 유형에서 「도서관」이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수목림, 수목원, 자연휴양림」이 두 번째로 높은 이용률을 보인 반면,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센터 등」이 두 번째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지역규모별, 경제수준별 이용률은 모든 집단에서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센터 등」이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IV-16 체험활동 관련시설 이용률

단위: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센터 등	유스호스텔, 야영장	도서관	사회복지관	수목림, 수목원, 자연휴양림
전체		54.9	48.3	88.9	28.3	45.6
학교유형	초등학교	53.8	56.6	93.7	24.6	60.6
	중학교	57.6	48.4	87.9	30.0	44.3
	일반계고	55.3	42.2	88.1	30.5	34.8
	특성화계고	43.9	36.3	74.5	26.1	30.5
	$\chi^2$	20.989 <sup>***</sup>	81.953 <sup>***</sup>	102.411 <sup>***</sup>	16.749 <sup>**</sup>	236.664 <sup>***</sup>
지역규모	대도시	54.0	48.2	88.3	27.5	44.7
	중소도시	53.7	49.3	90.0	26.8	47.2
	읍/면	59.5	46.4	87.9	33.0	44.1
	$\chi^2$	9.946 <sup>**</sup>	2.070	3.801	12.996 <sup>**</sup>	3.419
경제수준	상	59.4	54.3	90.9	31.5	54.2
	중	53.8	47.1	88.1	25.9	43.6
	하	47.1	36.6	86.0	26.6	29.3
	$\chi^2$	36.027 <sup>***</sup>	72.308 <sup>***</sup>	15.625 <sup>***</sup>	17.116 <sup>***</sup>	146.004 <sup>***</sup>

\*  $p < 0.05$ , \*\*  $p < 0.01$ , \*\*\*  $p < 0.001$

청소년들이 체험활동 관련시설을 얼마나 자주 이용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표 IV-17>에 제시하였다. 「유스호스텔, 야영장」(51.7%), 「사회복지관」(71.7%), 「수목림, 수목원, 자연휴양림」(54.4%)은 과반수의 청소년들이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센터 등」(45.1%)도 절반 정도의 청소년들이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도서관」의 경우는 한 달에 한번 이상 이용하는 청소년이 58.9%이었다. 특정 시설의 이용률 저하는 한편으로는 특정 지역에 특정 시설이 부족한 것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홍보가 부족하거나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의 요구와 특성에 맞게 어떻게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표 IV-17 체험활동 관련시설 이용빈도

단위: %

	이용한 적 없음	1년에 1-2번 정도	1년에 3-4번 정도	1달에 1번 정도	1달에 2-3번 정도	1주일에 1번 정도	1주일에 2-3번 정도	매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센터 등	45.1	38.1	6.9	3.4	2.5	1.8	1.6	0.6
유스호스텔, 야영장	51.7	35.8	8.6	2.0	1.4	0.3	0.2	0.1
도서관	11.1	13.2	16.7	15.3	16.3	10.8	10.9	5.6
사회복지관	71.7	16.2	4.9	3.6	1.7	0.9	0.4	0.4
수목림, 수목원, 자연휴양림	54.4	28.0	10.2	3.9	2.2	0.7	0.4	0.2

### 11) 종합 및 시사점

청소년활동의 참여 실태를 활동의 참여율, 참여의 폭, 참여의 방식, 참여의 강도, 사전·사후교육 경험률과 활동의 장애요인 및 요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율은 99.3%로 대부분의 청소년은 한 개 영역 이상의 청소년활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율이 높은 체험활동 영역은 「문화예술활동」(92.1%), 「직업체험활동」(79.8%), 「건강·보건활동」(79.0%)이었으며, 2013년에 비해 「문화예술활동」, 「건강·보건활동」, 「직업체험활동」이 증가하였고, 「모험개척활동」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수준별로는 유의차가 있는 모든 영역에서 양부모가정, 학업성적 상위, 경제수준 상층에 속한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았고, 이러한 경향은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및 참여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청소년활동 참여의 기회가 계층별로 불균등함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청소년활동이 문화적 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지원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체험활동의 폭을 살펴보면, 절반 정도의 청소년들은 10개 영역 중 4개 영역 내외의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4개 영역 이상의 체험활동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의 70%였다. 체험활동의 참여 경로는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하는 방식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방식이 모든 활동 영역에서 많았다. 이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 내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및 체계적 운영 강화의 성과이자 최근의 청소년 관련 안전사고의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체험활동의 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체험활동에 대한 적극성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살펴본 결과, 특성화계 고등학생들을 제외한 모든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었으며, 특히 여자 청소년, 초등학교, 학업성적이 상위인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진로체험은 「진로캠프」, 「직업인 초청 강연」, 「시청각자료를 통한 체험」 등의 간접 체험 경험률이 높았으나, 청소년들은 「직업모의체험」, 「직업현장 업무 체험」, 「학교에서의 실습 및 견학」 등 직접 체험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다양한 기업의 연계를 통해 직장체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진로 준비 기회 확대와 공동체 의식 강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직업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관계부처합동, 2012).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매번 교육을 받았다는 청소년은 각각 5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하였고, 사전·사후교육은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계 고등학교,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에서 특히 미흡하였다. 사전·사후 교육은 프로그램의 안전과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전·사후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은 참여하고 싶은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고, 참여하고 싶은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 1순위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2순위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 3순위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체험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첫째, 「흥미 있는 구성」, 둘째, 「프로그램의 다양성」, 셋째, 「시간확보」를 들어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화와 질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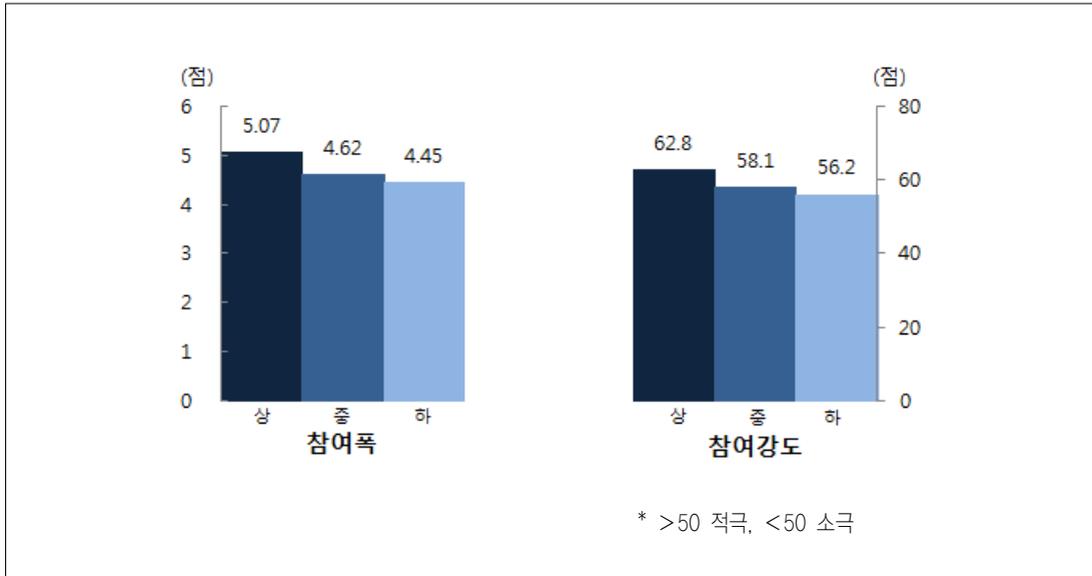
## 2. 청소년활동 참여의 관련 요인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역량을 계발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청소년활동의 참여율, 참여의 폭, 참여의 방식 등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밝혀내고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동기’,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행복감’ 등의 정의적 특성 변인과 청소년활동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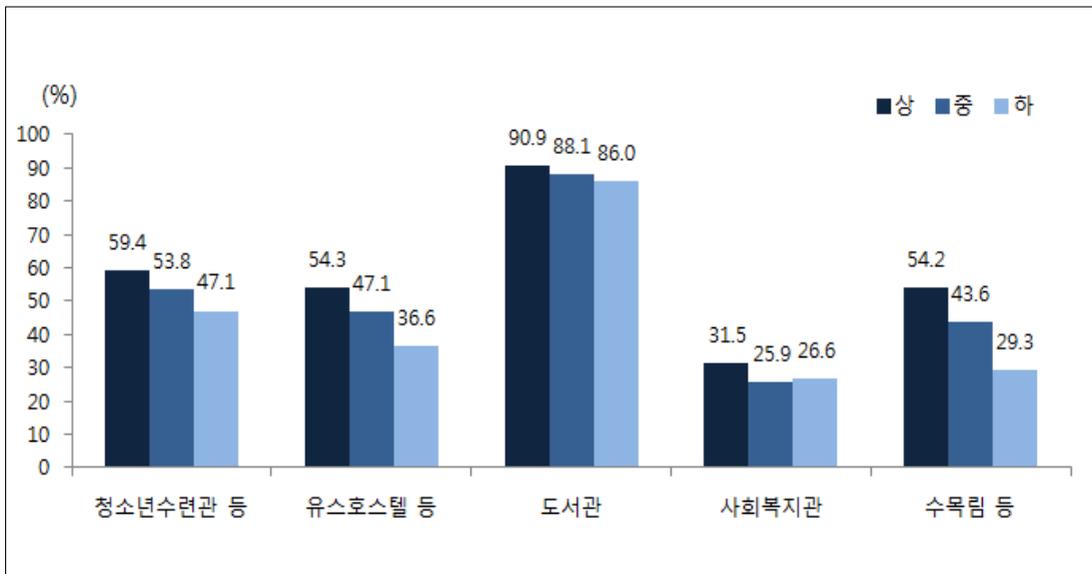
### 1) 사회경제적 요인

-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에 속한 청소년이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관련시설 이용률도 높음.
- 아버지의 직업이 있는 경우와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경우에 체험활동의 참여폭과 참여강도가 높음.

청소년이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있는지, 해당 체험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나 부모의 직업 유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경제수준에 따른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참여의 폭과 참여의 강도를 [그림 IV-11]에서 살펴보았다. 경제수준이 상층에 속한 청소년이 참여폭(5.07점)과 참여강도(62.8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중층에 속한 청소년(참여폭 4.62점, 참여강도 58.1점), 하층에 속한 청소년(참여폭 4.45점, 참여강도 56.2점)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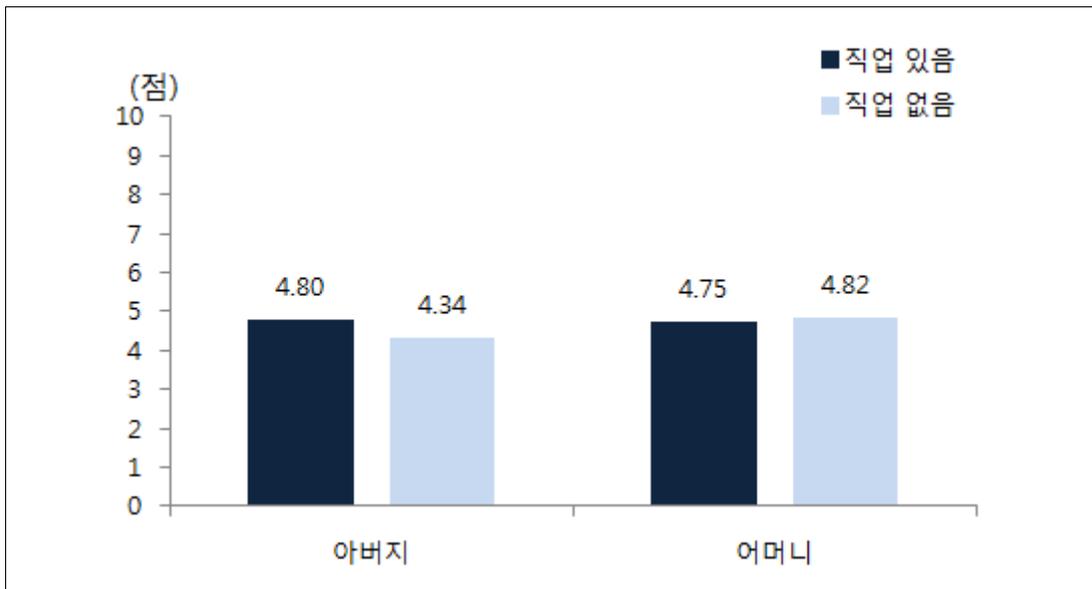
【그림 IV-11】 경제수준에 따른 체험활동 참여폭과 참여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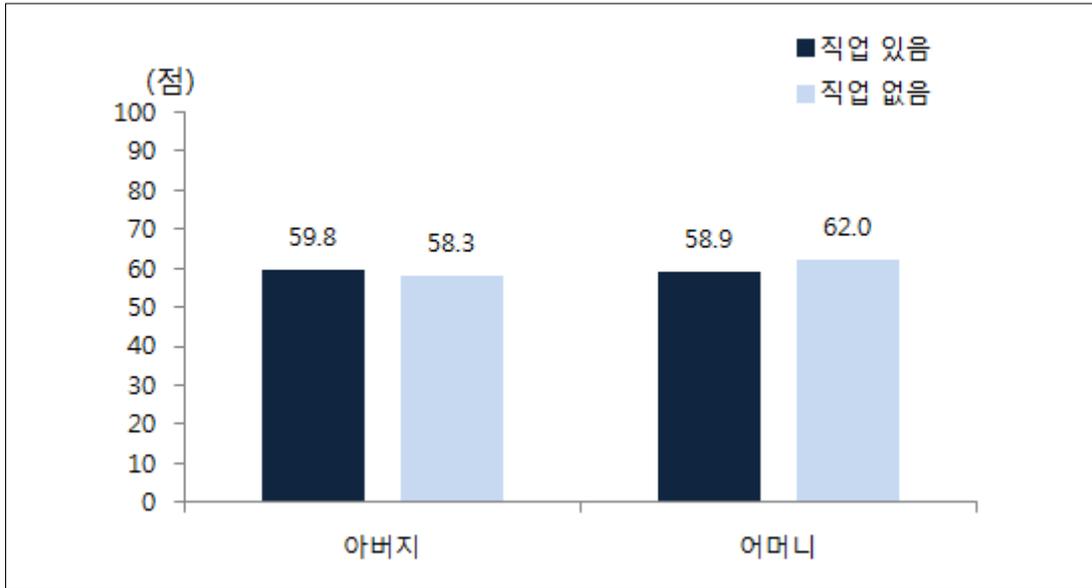
【그림 IV-12】 경제수준에 따른 체험활동 관련시설 이용률

최근 1년간의 체험활동 관련시설 이용률을 경제수준별로 살펴본 결과([그림 IV-12]), 모든 관련시설에서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이용률이 높았다. ‘사회복지관’도 경제수준이 상층에 속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부모의 직업 유무에 따른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참여의 폭과 참여의 강도는 [그림 IV-13], [그림 IV-14]와 같다. 먼저 체험활동 참여의 폭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직업이 있는 청소년들은 아버지가 직업이 없는 경우의 청소년들보다 체험활동 참여의 폭이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청소년들의 참여의 폭은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청소년들보다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활동 참여의 강도도 역시 체험활동 참여의 폭과 유사하였고, 아버지가 직업이 있는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참여의 강도(59.8점)가 아버지가 직업이 없는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참여의 강도(58.3점) 보다 높았으며, 어머니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청소년들의 참여의 강도(62.0점)가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청소년들의 참여의 강도(58.9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3] 부모 직업 유무에 따른 참여폭



【그림 IV-14】 부모 직업 유무에 따른 참여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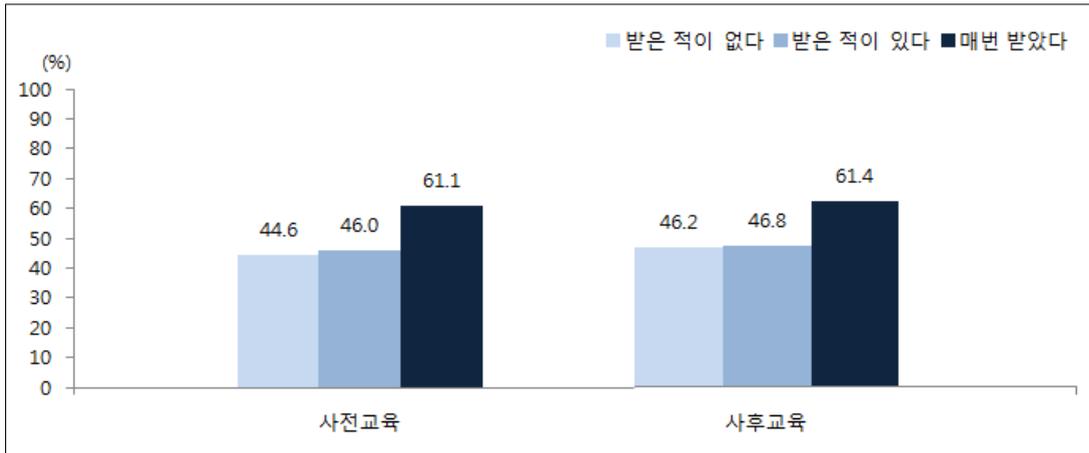
## 2) 사전·사후교육 실시 여부 및 참여방식

- 사전·사후교육을 받은 청소년이 체험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
-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하거나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등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방식일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이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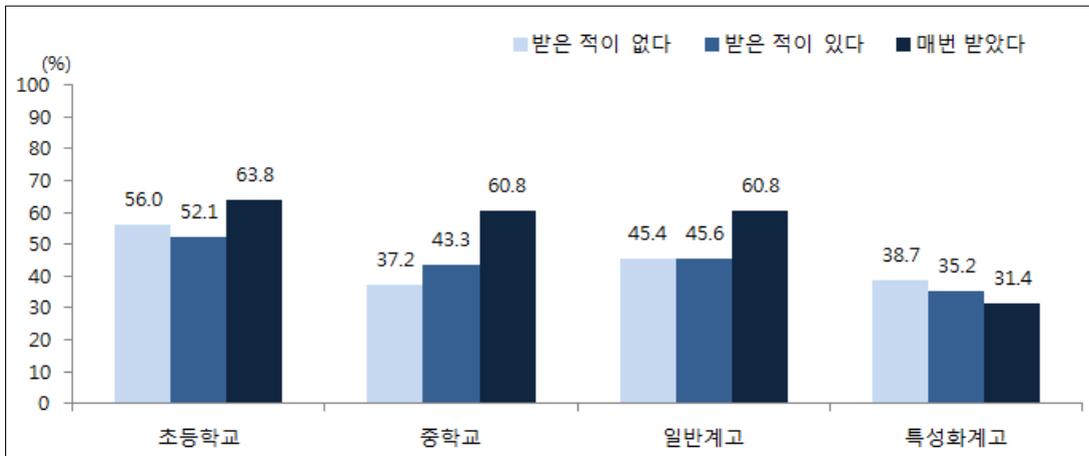
체험활동 프로그램 참여 시 사전교육 및 사후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 청소년들의 참여 강도가 변화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IV-15]와 같다. 사전 및 사후교육을 ‘매번 받았다’고 응답한 청소년들 중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은 각각 61.1%와 61.4%로, 10명 중 6명 이상이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반면 사전교육 및 사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참여율은 각각 44.6%와 46.2%로 반수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사전 및 사후교육이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으며, 사전 및 사후교육의 충실도는 체험활동의 질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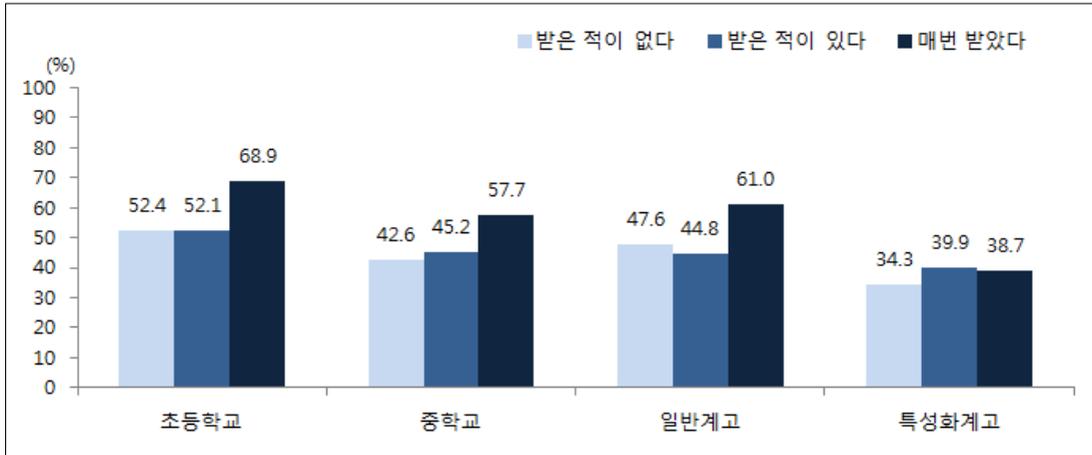
체험활동 사전교육 및 사후교육 실시여부에 따라 청소년들이 체험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학교유형별로 살펴본 결과는 [그림 IV-16], [그림 IV-17]과 같다. 특성화계 고등학생을 제외한 그룹에서 사전·사후교육을 매번 받은 청소년들이 활동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IV-15】 사전교육 및 사후교육 경험에 따른 적극적 참여율



【그림 IV-16】 사전교육 경험에 따른 적극적 참여율(교급별)



【그림 IV-17】 사후교육 경험에 따른 적극적 참여율(교급별)

표 IV-18 체험활동 참여방식별 적극적 참여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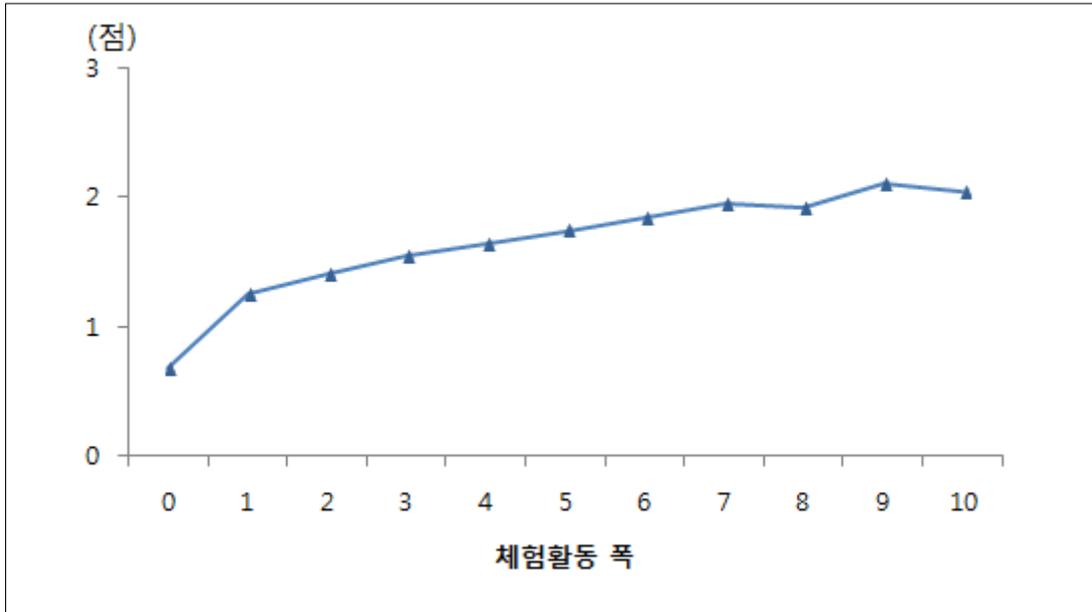
	학교	교내 동아리	교외 동아리	교내외 연계	청소년 단체	온라인 동아리	종교	개인
건강·보건활동	57.2	58.3	46.1	32.8	55.0	27.7	41.1	52.2
과학정보활동	64.5	58.2	45.3	37.6	53.1	37.6	39.5	57.2
교류활동	62.9	50.7	49.9	40.6	47.4	39.6	41.6	47.6
모험·개척활동	72.6	53.1	50.3	39.8	61.3	37.9	51.2	68.8
문화예술활동	69.8	58.6	49.6	43.9	50.1	38.9	46.2	68.0
봉사활동	71.4	63.8	59.0	52.6	61.2	42.6	54.5	66.1
직업체험활동	72.7	58.1	49.9	48.1	49.1	47.1	46.7	62.5
환경보존활동	68.8	58.0	49.4	45.4	52.4	38.1	52.4	60.5
자기인성개발활동	71.0	56.5	54.6	46.9	49.0	43.3	49.3	59.2
사회참여활동	53.7	46.2	45.8	45.4	42.7	43.8	40.6	53.4

<표 IV-18>은 10개 영역의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해서 참여방식별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살펴본 결과이다. 건강·보건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9개의 청소년 체험활동은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했을 경우 다른 참여방식들에 비해 청소년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체험활동」, 「모험·개척활동」, 「봉사활동」과 「자기(인성)개발활동」은 10명 중 7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건강·보건활동」은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한 경우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한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여러 가지 참여방식 중에서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했을 때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은 10명 중 6명이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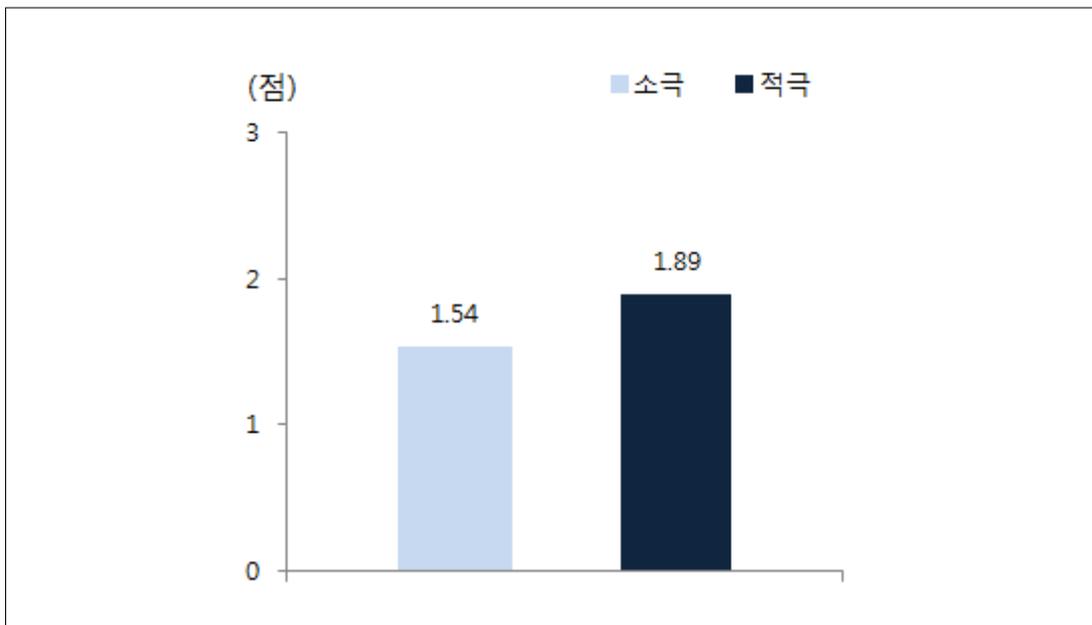
### 3)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

-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수록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화
-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보다 체험활동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짐.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체험활동의 폭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림 IV-18]에 제시하였다.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를 0~3점으로 리코드하여 합산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전체적으로 체험활동의 폭이 넓어질수록, 즉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할수록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으며( $F=53.725, p<0.001$ ), 사후검정 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또한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군과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군을 나누어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본 결과([그림 IV-19]),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군의 인식 및 태도 점수는 1.89로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군의 1.54보다 높아,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보다 체험활동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8】 체험활동 폭에 따른 태도



【그림 IV-19】 체험활동 강도에 따른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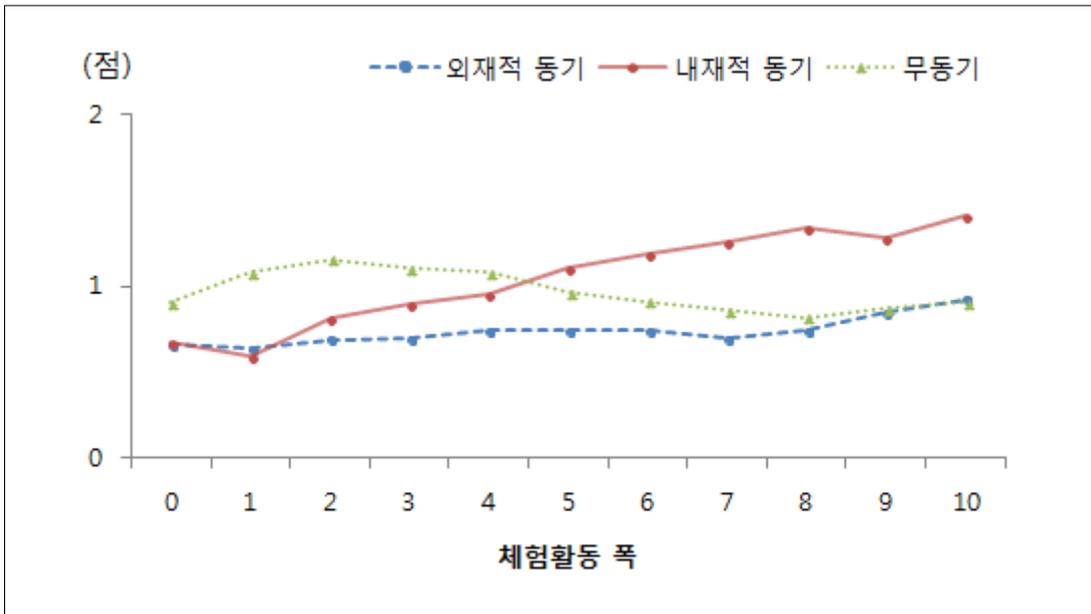
#### 4) 동기

- 4개 영역 이상의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무동기, 외재적 동기보다 내재적 동기가 높았음.
-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소극적 참여군에 비해 내재적 동기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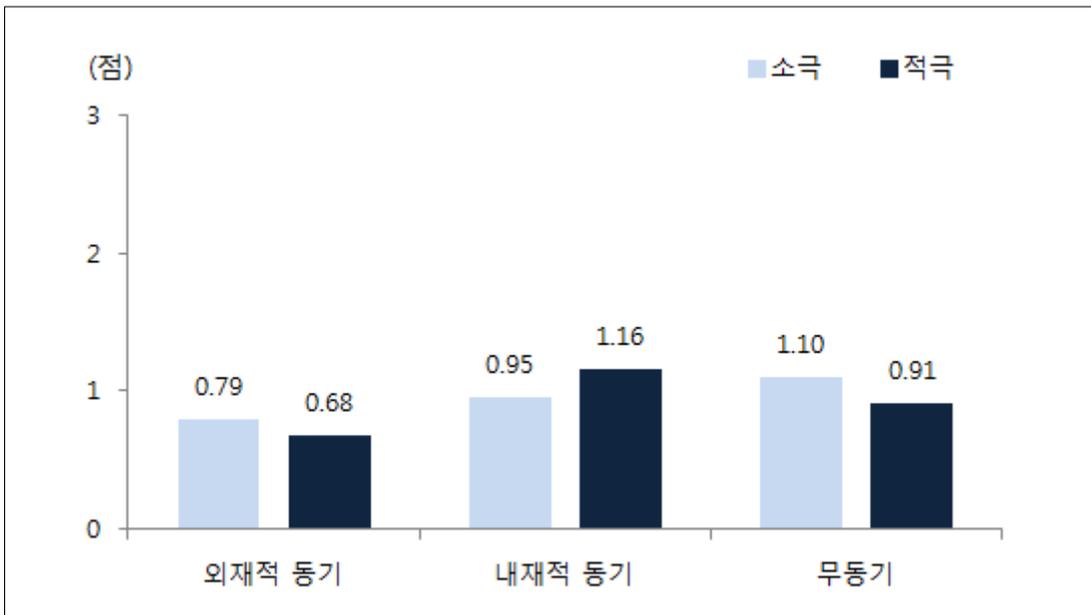
청소년이 경험하는 체험활동의 수에 따라 동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림 IV-20]에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체험활동의 폭이 4인 지점에서 무동기와 내재적 동기의 평균 점수가 역전한다는 것이다. 즉, 4개보다 적은 영역의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무동기 점수가 내재적 동기 점수보다 더 높았고, 4개 이상의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내재적 동기 점수가 무동기 점수보다 더 높았다. 내재적 동기는 체험활동의 폭이 2일 때부터 급격히 향상하였으며( $F=33.007, p<0.001$ ), 무동기 점수도 체험활동 폭이 2일 때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F=9.242, p<0.001$ ).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였으며, 사후검정 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다음으로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강도, 즉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소극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따라 청소년의 동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그림 IV-21]). 1개 영역 이상의 체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응답에는 0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응답에는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한 후, 총 참여영역·방식 수로 표준화하여 백분위수 50을 기준으로 소극적 참여군과 적극적 참여군을 나누어 비교하였다. 그 결과,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은 ‘내재적 동기’가 1.1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체험활동의 적극성이 ‘내재적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외재적 동기’와 ‘무동기’의 경우에는 체험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했을 경우 더 높게 나타나 ‘내재적 동기’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즉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군은 소극적 참여군에 비해서 외재적 동기 점수와 무동기 점수는 낮고, 내재적 동기 점수가 높았다.

내재적 동기가 내적으로 유발된 높은 수준의 동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4개 영역 이상의 체험활동을 경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2개 이상의 체험활동 영역을 경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그림 IV-20】 체험활동 폭에 따른 동기



【그림 IV-21】 체험활동 강도에 따른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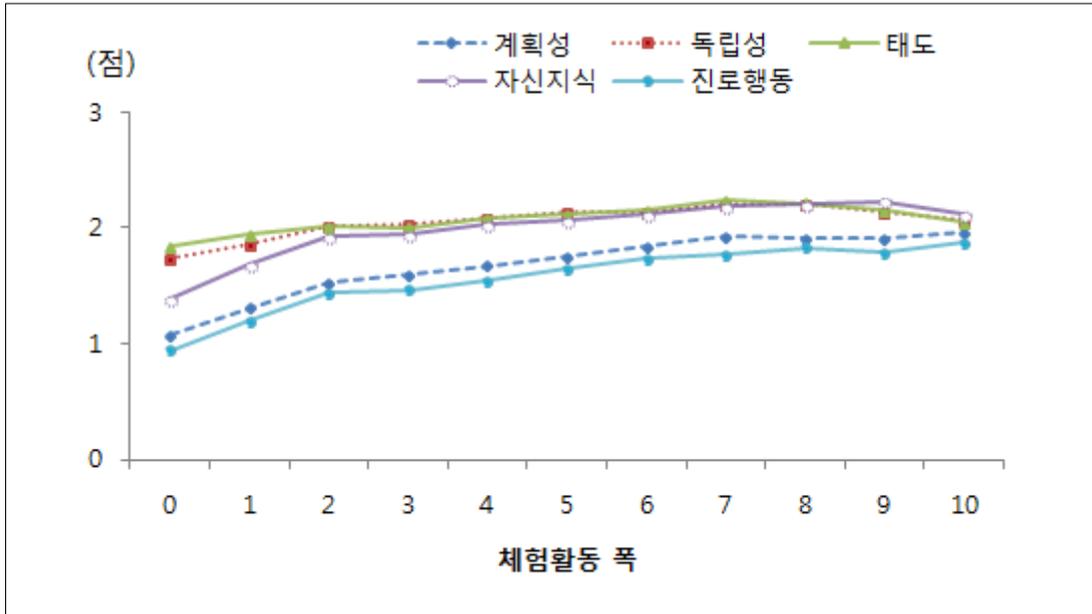
## 5) 진로성숙도

- 참여하는 체험활동의 영역이 많을수록 진로에 대한 계획성과 진로행동 수준이 높았음.
- 다양한 진로체험 경험은 진로에 대한 계획성과 진로행동 수준 향상에 도움
- 적어도 2개 영역 정도의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를 계발하는 데 필요
-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의 진로성숙도가 소극적 참여군에 비해 계획성, 독립성, 태도, 자신지식, 진로행동의 모든 면에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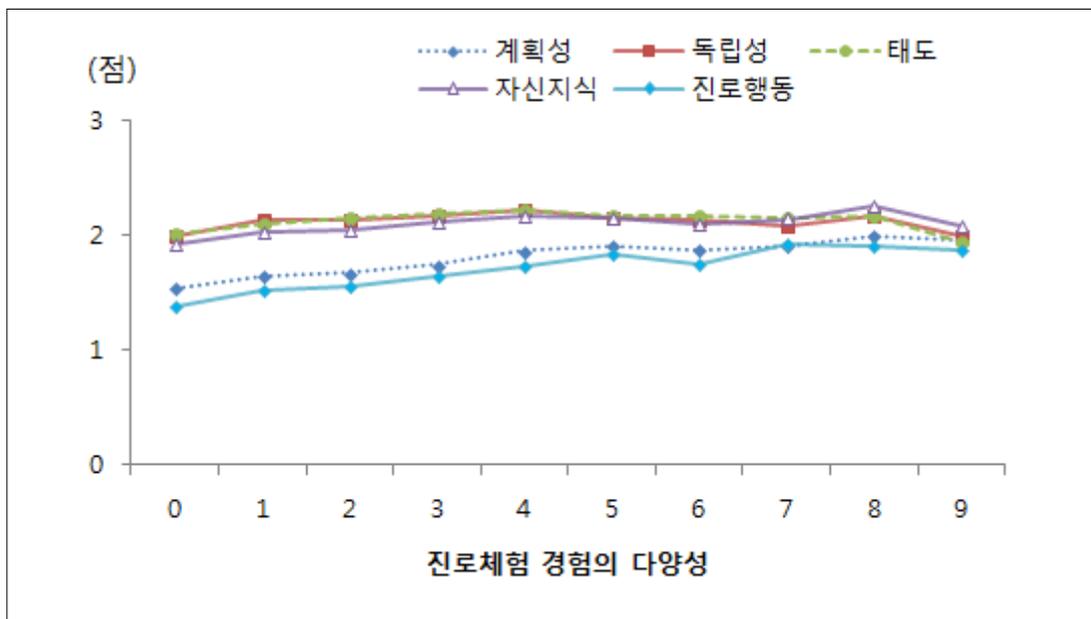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체험활동을 통해 계발할 수 있는 역량의 하나로 진로성숙도를 상정하였다. 진로성숙도는 직접 및 간접적인 진로체험을 통해서도 계발될 수 있지만, 다양한 체험활동 참여경험이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체험활동 폭에 따른 진로성숙도에 대해 살펴보았다([그림 IV-22]). 전반적으로 체험활동의 폭이 넓어질수록 진로성숙도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성, 독립성, 태도, 자신지식, 진로행동의 하위척도별로 보면, 진로행동( $F=37.034, p<0.001$ )과 계획성( $F=31.202, p<0.001$ )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지식( $F=25.028, p<0.001$ )의 경우도 향상되었다(부록 참조). 특히 이러한 경향은 체험활동 폭 2까지에서 두드러졌으며, 이는 체험활동에 전혀 참여하는 않는 청소년과 1개의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2개의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 사이에는 진로성숙도에 큰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적어도 2개 영역 정도의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를 계발하는 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직업현장 업무 체험, 홍보관 및 기업체 견학, 학교 실습 및 견학, 진로캠프, 직업인 초청 강연, 직업인 인터뷰 및 멘토링, 시청각자료를 통한 경험, 직업모의 체험, 아르바이트 경험 등 다양한 진로체험이 진로성숙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그림 IV-23]에서 살펴보았다. 다양한 진로체험 역시 청소년의 진로 계획성( $F=25.807, p<0.001$ )과 진로행동( $F=44.082, p<0.001$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부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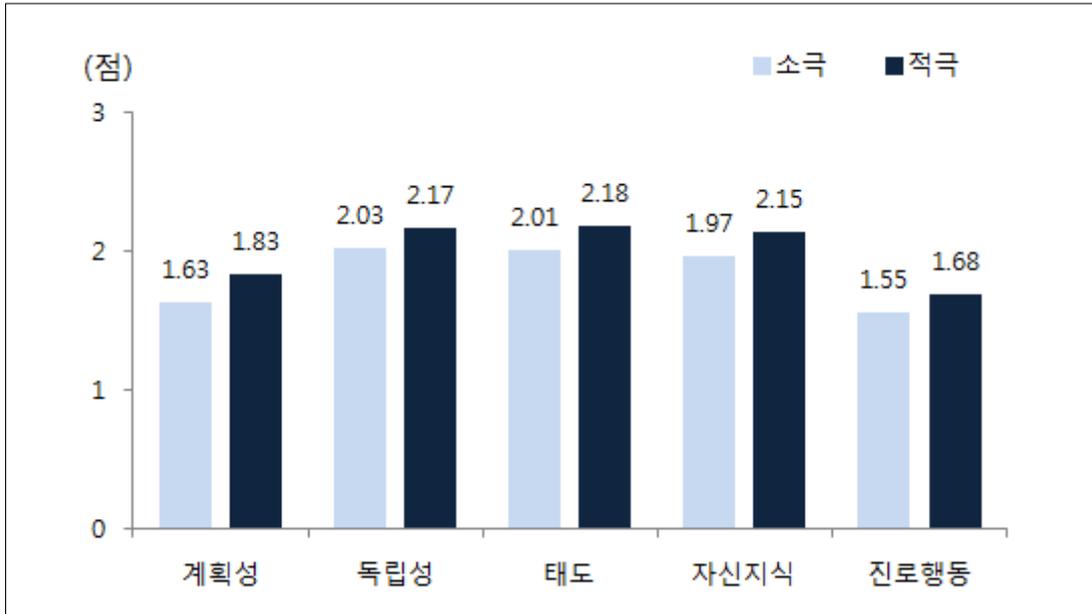
또한 [그림 IV-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참여군과 소극적 참여군의 차이는 계획성, 독립성, 태도, 자신지식, 진로행동의 모든 진로성숙도 하위척도에서 존재하였다.



【그림 IV-22】 체험활동 폭에 따른 진로성숙도



【그림 IV-23】 진로체험 경험의 다양성에 따른 진로성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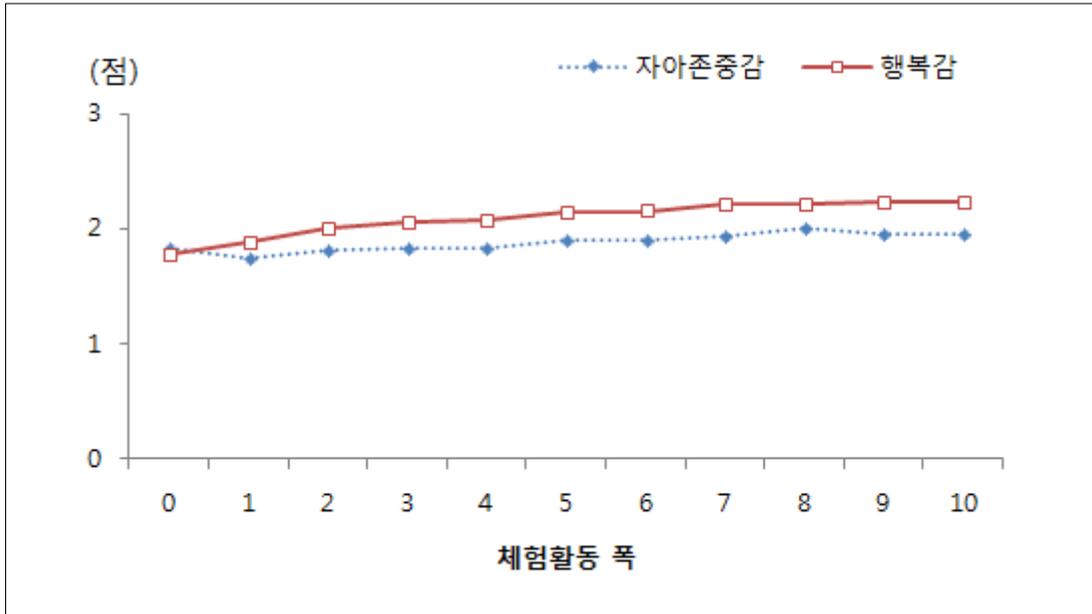
【그림 IV-24】 체험활동 강도에 따른 진로성숙도

## 6)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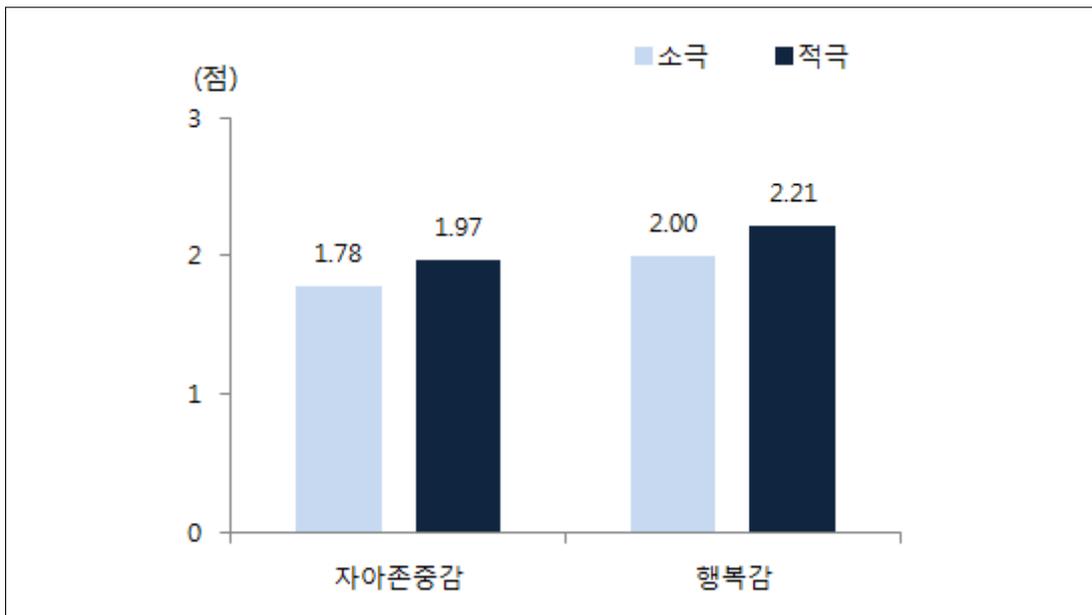
- 다양한 영역의 체험활동을 경험할수록 행복감이 높음.
-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높음.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체험활동의 수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그림 IV-25]에서 알아보았다. 행복감은 체험활동 참여의 영역 수가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11.534, p<0.001$ ). 또한 [그림 IV-25]를 통해서 적어도 2개 정도의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은 체험활동의 폭에 따른 변화가 행복감보다는 적은 편이었다.

체험활동 강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은 [그림 IV-26]과 같다.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은 1.97점, 소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은 1.78점으로 적극적 참여군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다. 행복감의 경우도 적극적 참여군 2.21점, 소극적 참여군 2.00점으로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의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5】 체험활동 폭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그림 IV-26】 체험활동 강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 7) 종합 및 시사점

청소년활동의 참여율, 참여의 폭, 참여의 방식 등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밝혀내고,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동기, 진로성숙도, 자아존중감, 행복감 등 정의적 특성 변인과 청소년활동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청소년활동과 관련이 있는 사회경제적 요인은 가정의 경제수준과 어머니의 직업유무였다.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관련시설 이용률도 높았다. 또한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경우보다 전업주부인 경우에 더 많은 종류의 체험활동을 경험하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활동이 사적인 영역에서의 부모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사전·사후교육 실시 여부와 청소년활동 참여의 관련을 살펴본 결과, 사전·사후교육을 받은 청소년이 체험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방식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하거나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등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방식일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다음으로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동기, 진로성숙도, 자아존중감, 행복감 등의 정의적 특성 변인과 청소년활동 참여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청소년의 체험활동 폭이 넓을수록, 즉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수록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내재적 동기, 진로성숙도, 행복감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진로성숙도 중에서는 특히 진로에 대한 계획성과 진로행동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고, 자아존중감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에 비해 체험활동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내재적 동기, 진로성숙도, 자아존중감, 행복감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긍정적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체험활동의 폭에 따른 정의적 특성 변인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특히 체험활동 폭 2와 4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10개 영역 중 4개 영역 이상의 체험활동을 경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2개 이상의 체험활동 영역을 경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제 V 장



정 책 제 언



## 제 V 장 정책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은 주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10월에 18명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총 7개 대영역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해당 항목의 정책이 얼마나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각 문항들에 대한 한계점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조사문항은 다음과 같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를 위해 청소년활동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정책이 역량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질 관리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활동정책과 교육부의 진로교육정책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정책 등 타 부처의 청소년 관련 정책과의 연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활동시설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소년활동정책의 법적 근거인 현행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소년활동정책사업 관련 전문인력인 청소년지도자 양성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구성된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전문가 워크숍 결과 및 국내·외 청소년활동정책 동향 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7개 영역의 정책과제를 도출한 후(<표 V-1>), 각 항목별로 현재의 정책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표 V-1** 정책과제와 도출근거

	정책과제	도출근거
1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정책 추진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전문가의견조사 국내외정책동향
2	청소년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질 관리	실태조사, 전문가의견조사
3	타부처 정책사업 및 지자체, 교육청과의 연계	전문가의견조사
4	지역사회연계와 학교와의 협력 강화	전문가의견조사
5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실태조사, 전문가의견조사 국내외정책동향
6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선도적 사업의 추진	전문가의견조사 국내외정책동향
7	과학적인 청소년활동정책 추진시스템의 구축	청소년활동 관련 연구동향

## 1.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정책 추진계획의 수립

### 1) 진단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지고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체험활동의 경험이 있고, 10개 영역 중 4개 영역의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70%였다. 그러나 계층별, 학교유형별, 지역별로 청소년들이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는 차이가 있었다.

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르면, 다양한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각 사업들의 유기적인 연계수준은 낮은 편이며, 청소년복지정책이나 청소년보호정책과의 연계성은 더욱

났다. 또한 청소년역량증진이라는 청소년활동정책의 목표가 설정된 것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면서도 역량개념에서부터 정책사업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체계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전문가들이 청소년역량의 강조가 자칫 청소년활동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였고, 이는 그 만큼 학계나 현장에서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정책이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외국의 정책동향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선진외국의 경우에는 모두 통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정책의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지만, 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르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정점으로 하여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는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통합적인 전략을 위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의 협업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 2) 제언

첫째, 청소년활동정책의 목표를 보다 분명히 하고, 현행 청소년활동정책 사업들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목표달성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신규로 추진되어야 하며, 각각의 목표달성을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청소년활동정책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상위의 계획이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정책의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더라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정책 장기발전계획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전국규모의 협의회나 민간차원에서 작성되어 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이 더 좋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의미 이외에 청소년활동 관련 현장 시설이나 단체가 분명한 목표의식을 공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5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내의 목표라면, 민간차원의 장기발전계획은 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수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활동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청소년 역량지표를 보다 명확히 선정할 필요가 있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역량지표가 목표로 하는 기존의 정책사업들과 정책사업들의 목표달성도를 분석하고, 향후 효과적인 역량지표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요구분석(목표와 사업내용별 교차분석표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소년활동정책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 즉 정책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활동을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도 현재의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역량개발 개념은 물론 진로체험활동이나 청소년참여활동 등 중요한 현안이슈나 정책과 관련된 주요 개념들을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역량개발과 관련한 조항이 없어 청소년활동진흥법 상에 청소년역량개발과 관련된 조항이 추가되어야 법과 기본계획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넷째, 청소년활동정책 내의 연계 뿐 아니라 전반적인 청소년정책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즉, 통합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청소년정책사업 전반에 걸쳐서 협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청소년활동정책을 별도의 독립된 정책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타 영역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전반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역량증진 목표와 정책사업 간의 관계를 설정할 때에도 통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역량’ 및 ‘역량강화’가 청소년활동정책으로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나치게 구체화되어 있는 활동, 상담과 복지, 보호의 개념과 사업에 대한 포괄적·통합적 접근을 기반으로 ‘역량’과 ‘역량개발’의 개념과 요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지표를 개발해야 하며, 또한 청소년지도자들을 위한 ‘역량’ 및 ‘역량강화’ 교육과정이 제공되어야 하고,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시설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 2. 청소년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질 관리

### 1) 진단

청소년활동의 참여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여의 질 또한 중요하다. 체험활동의 기회가 많아지는 만큼 청소년들의 참여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는 많지 않다.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그 만큼 공공의 서비스가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최근 잇따른 체험활동 관련 사고와의 관련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험개척활동 참여율은 1년 전에 비해 감소하였다. 또한 체험활동의

장애요인과 요구에 대한 분석에서도 청소년들이 체험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흥미 있는 프로그램의 구성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질 관리 시스템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 만족하는 입장과 만족하지 않는 입장은 거의 동수에 가깝다. 그렇지만, 만족도에 대해서 ‘보통’으로 응답한 전문가가 가장 많았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고제에 대해 대체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인증제의 폐기를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행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신뢰나 사회적 공신력이 매우 낮으며 개선되지 않으면 폐지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증제가 프로그램의 최저 기준만을 제공하고 있고, 인증 받은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참여자들의 성장, 자발성) 또한 확신할 수 없는 등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서류심사를 중심으로 한 사전인증제 아래에서는 실제 현장에서의 프로그램 운영이 계획서대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지 등을 평가하기 어려우며, 인증 기준 또한 영역의 특수성을 배제한 획일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인증심사원의 자질 또한 편차가 심한 상태라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청소년활동시설에서는 인증에 대한 법적 강제사항이 없고, 전문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나 지원이 없다보니 인증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질은 전적으로 청소년지도사의 능력에 좌우된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 자체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질 관리 시스템이기도 하다. 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지도사 양성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청소년지도사 2급과 3급 사이에서 업무 내용에 차이가 없고 자격시험 과목에서도 큰 차이가 없으므로 두 개의 자격 급수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무엇보다 대학졸업자에게 필기시험을 면제해 주는 점, 청소년(활동)실습이 포함되지 않는 점, 검정과목(1급의 경우 청소년연구방법론 배제 고려, 2급 및 3급에 대해서 학교교육의 이해 등의 과목 포함 등) 및 교재에 대한 공동합의가 없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또한 사이버대학이나 평생교육기관을 통한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서 기준이 미약한 것도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일부대학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이 학과의 홍보수단으로만 활용될 뿐 대학의 교육과정에서는 자격검정과목 외에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대학 간 학점관리의 일관성이 없어 취득학점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2) 제언

첫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전면적·전폭적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인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프로그램의 숫자가 아닌 내용과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성과관리 지표)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인증된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을 촉진하기 위해 재인증의 과정이 필요하다. 인증제의 확산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개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며, 프로그램의 본질에 적합하게 인증요소 및 항목을 개선하여야 한다. 인증심사원의 경우 상근인증심사원을 고용하거나 심사원 선발기준의 재검토와 교육을 통해 인증심사원의 전문성 담보가 필요하며, 지역 및 기관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발전되도록 영역별 기관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 인증대상기관도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외부(영리기관, 학원 등)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인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인증프로그램 참여이력관리제의 도입과 취업·진학에서 인증프로그램 참여이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의 중복성 검토와 신고제로 인한 청소년활동기관의 불편함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지도자 양성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차원의 연수시스템(예, 청소년지도인력개발원)을 수립하여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체계화하고 현재 미흡하게 진행 중인 자격연수와 현직연수의 기회와 내용이 보완되어야 하며,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및 검정 과목 강화를 통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검정과목에 현장실습을 포함하고 필기시험을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격시험에서 면접시험의 객관화(면접자의 선정, 면접 절차, 면접 내용, 평가방법 등)도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지도사의 사회적 지위, 임금 및 처우에 관한 부분이 개선되고,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청소년지도자 연수를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 강화와 청소년지도자 윤리강령 제정 등도 필요하다.

## 3. 타 부처 정책사업 및 지자체, 교육청과의 연계

## 1) 진단

최근 몇 년간 각 부처에서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정책사업간의 연계를 제외하고는 부처간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부처의 입장에서는 각 사업별로 목표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입장에서의 차이는 크지 않다. 청소년들의 최대수혜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면, 각 부처간의 연계작업은 어떤 방식으로든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각 부처의 정책사업들이 다소간 경쟁적인 관계에 있고, 또 그런 상황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지만, 상호호혜적인 접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진로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관련 정책사업의 운영주체들 간에 효율적으로 연계협력한 사례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 간 유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영역에서도 늘 불거지는 문제가 컨트롤 타워의 문제이다. 그렇지만, 범부처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구축은 자칫 불필요한 행정체계를 강화하는 일일 수도 있다.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각 부처의 실무자 수준에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많은 공공의 청소년활동시설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가 지역의 청소년활동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청소년활동정책은 물론 청소년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는 대체로 낮다.

초·중·고등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학교와의 연계를 위해서는 지역교육청과의 연계가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교육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여성가족부의 노력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청소년기관들 중에서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다.

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정책의 주관 부서인 여성가족부가 정책 주무부처로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타 부처 청소년 관련 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며, 여성가족부와 타 부처간 업무 협약이 상징적이거나 선언적인 경우에 머물고 있고, 청소년정책 관련 아젠다(이슈화) 부족으로 부처 간 청소년 관련 서비스는 중첩되지만 관련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인식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2) 제언

첫째, 청소년활동정책이 연계할 필요가 있는 주요한 교육정책사업은 당분간은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 관련 사업들이다. 이 두 가지 교육정책사업은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가 성패를 좌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정책과 연계가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일괄타결을 통해서 청소년활동정책이 두 교육정책사업과 연계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교육정책사업은 각각 독립부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모든 관련 사업을 일괄로 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여전히 연계하여야 할 교육정책사업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학교도 적지 않다. 중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자유학기제나 진로교육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물론 교육청이나 학교별로 사정은 다르다.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청소년지도자들이 일련의 교육정책의 변화나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지도자 보수교육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수시로 교육정책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중앙차원에서의 정보제공 시스템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서 청소년지도자들이 학교에서의 다양한 체험활동에 대해서 컨설팅 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둘째, 문화예술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강사 파견을 비롯해 토요문화학교, 예술꽃씨학교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의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지만, 문화예술전문인들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경험이 부족하여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문화예술정책이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청소년활동시설을 통해서 문화예술정책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간 연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육성전담 공무원이 없는 상황에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청소년업무담당 지방공무원들의 청소년정책 이해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업무협의회나 워크숍 등의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형식적인 행정행위로 그칠 우려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여성가족부 간의 MOU 체결 등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청이 청소년활동정책사업,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지도인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위원으로 교육청 장학사를 위촉하는 방법도 모색가능하다.

다섯째, 특정 지역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청소년활동정책활성화추진위원회 설립운영 등 지역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반드시 청소년활동정책이라는 명칭이 아닌 지역진로교육추진위원회 또는 지역체험활동활성화운영위원회 또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전혀 다른 명칭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성공적인 모범사례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사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 4. 지역사회 연계와 학교와의 협력 강화

##### 1) 진단

학교와의 협력관계는 최근 몇 년간 크게 개선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청소년기관들이 학교와의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소년기관은 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학교는 외부에 대해서 너무 폐쇄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연계하는 청소년기관의 사례가 늘고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학교에서의 체험활동이 강조되면서 상호연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학교는 지역의 청소년관련자원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 이것이 학교가 청소년기관과의 협력을 꺼려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를 대상으로 한 홍보가 중요하다. 각 청소년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앙차원에서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여성가족부의 노력이 중요하고, 각 지역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다른 여러 기관 및 자원들과의 연계는 지역에서의 청소년들의 활동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이지만, 지금까지 청소년기관들은 대체로 사업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정책의 방향을 전환해나가야 한다.

## 2) 제언

첫째, 지역의 학교장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학교와의 협력은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서 보다 원활해질 수 있지만, 교육청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단위학교의 협력여부는 전적으로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학교장이 지역사회의 청소년기관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소에 지역의 학교장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지역의 학교장협의회를 소통의 통로로 활용할 수도 있다. 협력의 성공여부는 전적으로 청소년기관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지만, 중앙정부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홍보노력도 중요하다. 학교장 연수 등의 자리를 통해서 지역의 청소년활동자원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학교장을 중요한 홍보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반대로 청소년기관의 담당자가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등 학교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중앙차원에서의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지도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지도자들의 교육정책과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연수나 청소년지도자 보수교육을 통해서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수나 보수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사들과의 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학교사정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개별 청소년기관이 하도록 권장하는 것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청소년지도자와 교사들의 공동워크숍 등을 기획운영함으로써 지역에서의 모임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지역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여성가족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중앙에서 전국의 청소년기관과 청소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당지역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토대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지역 거점이 있어야 하며,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지역에서의 허브역할을 충실히 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여성가족부는 지역센터의 역할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 5.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 1) 진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외계층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체험활동 참여율이 낮고, 양부모가정, 학업성적 상위, 경제수준 상층에 속한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았다. 또한 특성화계 고등학생들은 참여율과 참여의 적극성이 낮은 편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문화자본의 차이로 이어지고, 성장함에 따라서 지속적인 격차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문화예술교육이나 체험활동 관련 많은 정책사업들이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참여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외의 정책동향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통합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유럽국가,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예술학교나 음악학교를 통하여 소외계층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문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시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시설 간 역할과 특성이 불분명하고 네트워킹이 미흡하여 질 낮은 유사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중복되어 시행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성장의 필수시설로서 자리매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2) 제언

체험활동의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산의 확보가 절대적이다. 그리고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이나 체험활동의 기회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편적인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는 한계가 있다. 유럽의 예술학교는 매우 모범적인 사례이지만, 지역사회에 이와 같은 문화학교나 예술학교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지역사회 기관에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투입하면 된다. 청소년활동시설이 백화점식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보다 특화되고,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 6.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선도적 사업의 추진

### 1) 진단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학교나 기타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참여에 있지만, 현장에서는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없는 경우도 많다.

청소년참여제도와 청소년활동정책 사업들을 서로 다른 사업부서에서 담당하다보니, 청소년활동정책에서의 참여의 중요성이 덜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 청소년의 권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권리와 참여는 청소년정책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청소년활동정책의 핵심가치이지만, 사업의 연계 미흡으로 인하여 청소년활동정책에서 참여와 권리의 가치가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국의 관련 정책동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는 청소년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 2) 제언

첫째,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라는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정책이 전반적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모든 청소년활동에 참여라는 요소가 강조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이다.

둘째, 모든 프로그램의 요소에 청소년의 참여라는 요소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서 이 부분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이나 청소년지도자 보수교육에서도 청소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지도역량에 더욱 강조점을 둘 필요가 있다.

셋째, 국외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온라인 매체를 통한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건전한 청소년 온라인 매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더 많은 참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7. 과학적인 청소년활동정책 추진시스템의 구축

### 1) 진단

청소년활동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청소년활동의 문제점과 수요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일부 청소년활동 실태가 파악되고 있지만, 청소년활동 실태만을 조사하는 법적인 기반을 가진 반복횡단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는 이러한 목적 하에 5개년으로 기획되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지속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활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의 축적이 미진한 상태이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활동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탓에 청소년활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 2) 제언

첫째,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 실태조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상에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활동 실태조사와 함께 청소년활동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청소년활동 효과검증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청소년활동 실태조사 결과가 부분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증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프로그램 운영과 밀착한 현장연구(Action Research)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청소년활동 효과검증 연구와 청소년활동 효과에 대한 메타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청소년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청소년활동 효과검증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학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참 고 문 헌

- 관계부처합동 (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서울: 여성가족부.
- 관계부처합동 (2013).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 교육과학기술부 (2010).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2014). **진로교육 중장기 발전방안(안)**. 서울: 교육부.
- 교육부, 강원도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체험활동(중학 교용)**.
- 구태익 (2000). **한국 청소년수련체계에 관한 연구: 수련시설 운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8).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권일남, 오해섭, 이교봉 (2010). **청소년활동론**. 서울: 공동체.
- 김민 (2010). **청소년활동 하위영역 재설정. 청소년활동 재개념화 및 영역 재설정 (워크숍자료집), 11-1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민 (2014). **청소년활동 안전 확보 및 정책적 대안 모색: “청소년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하며.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간평가 및 정책토론회: 청소년 활동(Youth Activity)! 위기인가? 기회인가? (토론회자료집 14-S44), 61-86**.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승보, 진미석, 한상근, 이지연, 이윤진 (2013). **초·중등 진로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아영 (2010). **학습동기: 이론, 연구와 적용**. 서울: 학지사.
- 김정명, 임상숙, 손미라, 윤혜영, 오순근 (1991). **청소년 활동 동기부여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김차연 (2014). **청소년활동을 위축하게 만든 청소년활동진흥법. 복지동향, 186, 35-40**.

- 김현철, 황여정, 민경석, 윤혜순 (201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II** (연구보고 12-R0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철, 임희진, 정효진, 민경석 (201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연구보고 13-R0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성호, 문호영, 김용대 (2009). **2009년도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 만족도 및 효과성 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민전순 (2013). 핀란드의 청소년활동정책. **영국·핀란드·스웨덴·일본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세미나자료집 13-S40), 31-6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선영 (2013). 영국의 청소년활동정책. **영국·핀란드·스웨덴·일본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세미나자료집 13-S40), 1-2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철웅 (2010). 청소년활동 재개념화 방향. **청소년활동 재개념화 및 영역 재설정** (워크숍자료집), 4-1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안선영, 김희진, 강영배, 배경내 (2013).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연구보고 13-R06).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1). **2011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a).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b). **2012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3). **2013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이광호 (2012). **새로운 청소년육성제도 및 정책론**. 서울: 창지사.
- 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경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I** (연구보고 11-R0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민희 (2013). 독일의 청소년활동정책. **독일·프랑스·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세미나자료집 13-S29), 1-3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종원, 장근영, 김호순 (2007). **2007년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연구보고 07-R44).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지연(2014). 학교급별 전환기 진로지도 프로그램 발전 방안. **학교급별 맞춤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진로교육 방법론** (2014 진로교육포럼 자료집), 25-44. 서울: 교육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책연구원.
- 임영식, 문성호, 정경은 (2008). **2008년 청소년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효과성 척도 개발 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한국청소년진흥센터.
- 임지연, 김정주, 김신영, 김민 (2009).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Ⅳ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지표** (연구보고 09-R12-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지연, 최인재, 김형주 (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Ⅲ -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보고 08-R03-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근영, 김기현 (2006). **청소년 활동참가 실태조사 연구** (연구보고 06-R41).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개발원.
- 전명기 (2007). 한국 청소년활동의 경향과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해외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정책 동향: 영국·일본의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정책** (정책사례집 2007-14), 67-112. 서울: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전명기 (2010). 청소년활동 개념의 재구조화. **청소년활동 재개념화 및 영역 재설정** (워크숍자료집), 29-3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영승 (1998). **새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법론**. 경기: 교육과학사.
- 최상덕 (2013).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협업체제 구축. **자유학기제 운영방향과 과제** (한국교육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교육학회.
- 최상덕 (2014). 학교와 지역사회자원 연계.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간평가 및 정책토론회: 청소년활동(Youth Activity)! 위기인가? 기회인가?** (토론회자료집 14-S44), 87-106.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섯별, 이명진 (2013). 문화자본 지수의 개념화와 측정: 디마지오의 문화자본 지수 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7(2), 31-60.
- 최인재, 임지연, 김형주 (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Ⅲ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08-R0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추미경, 강현석, 박종효, 신동호 (2011). **2011 문화역량지수 개발 연구**.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한국고용정보원 (2006). **청소년용 진로발달검사개발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구축과 국제비교연구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 한승희 (1994). *주요 외국의 청소년활동 정책*.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Australian Government (2010). *National strategy for young Australians*.
- Cason, D., & Gillis, L. H. (1994). A meta-analysis of outdoor adventure programming with adolescents. *Journal of Experiential Education*, 17(1), 40-47.
- Crean, H. F. (2012). Youth activity involvement, neighborhood adult support, individual decision making skills, and early adolescent delinquent behaviors: Testing a conceptual model.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3, 175-188.
- Det Kongelige Barne- og Familiedepartement(KBF) (2002a). *Oppvekst- og levekar for barn og ungdom i Norge* (St.meld. nr. 39: 2001-2002)
- Det Kongelige Barne- og Familiedepartement(KBF) (2002b). *Om barne- og ungdomsvernet* (St.meld. nr. 40: 2001-2002)
- Durlak, J. A., Weissberg, R. P., & Pachan, M. (2010). A meta-analysis of after-school programs that seek to promote personal and social skill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5(3-4), 294-309.
- European Commission (2007a). *Youth in Action 2007-2013 Program Guide*.
- European Commission (2007b). *Inclusion Strategy of the «Youth in Action» programme (2007-2013)*.
- European Commission (2011). *Youth in Action Programmes Guide 2011*.
- Gillis, L. H., & Speelman, E. (2008). Are challenge (ropes) courses an effective tool? A meta-analysis. *Journal of Experiential Education*, 31(2), 111-135.
-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Youth Programs(IWGY) (2013). *Pathways for youth: Draft strategic plan for federal collaboration*.
- Morton, M. & Montgomery, P. (2011). Youth empowerment programs for improving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Campbell Systematic Reviews*. [www.campbellcollaboration.org/lib/download/1402/](http://www.campbellcollaboration.org/lib/download/1402/)
- Neill, J. T. (2002). Meta-analytic research on the outcomes of outdoor education. In *6th Biennial Coalition for Education in the Outdoors Research Symposium*, Bradford Woods, IN, 11-13.
- Netherlands Youth Institute(2007). *Youth Policy in the Netherlands*.
- Ripley, Amanda (2013). *The Smartest Kids in the World And How They Got That Way*. 김희정 역 (2014). *무엇이 이 나라 학생들을 똑똑하게 만드는가*. 서울: 부키.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Krasnor, L. (2009). Future directions in youth engagement and social development. *Social Development, 18*, 497-509.
- Wilson, S. J., & Lipsey, M. W. (2000). Wilderness challenge programs for delinquent youth: A meta-analysis of outcome evaluation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3*(1), 1-12.
- Zeldin, S., McDaniel, A. K., Topitzes, D., & Calvert, M. (2000). *Youth in decision-making: A study of the impacts of youth on adults and organizations*. Chevy Chase, MD: National 4-H Council.
- Zeldin, S. (2004). Youth as agents of adult and community development: Mapping the processes and outcomes of youth engaged in organizational governance.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8*, 75-90.
- Zeldin, S., Petrokubi, J., & Camino, L. (2008). *Youth-adult partnerships in public action: Principles, organizational culture, and outcomes*. Takoma Park, MD: Forum for Youth Investment.





# 부 록

1. 설문지
2. 2014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문항내용 및 출처
3. 체험활동 폭에 따른 정의적 특성  
사후검정결과



ID	과제	교급	학교			학급	설문지연번

##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 기관으로 각종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여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청소년들이 평상시에 어떤 체험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어떤 체험활동을 원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청소년 여러분들이 더 좋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학교나 선생님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6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	임희진 박사	(02)2188-8886
수행기관	(주)입소스코리아	담당자	신성혜 차장	(02)6464-5135

※ 지금부터 설문지를 받은 학생이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자 성별	학생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① 남자	② 여자
--------	----------------	------	------

##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1에서 4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1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2에, '그런 편이다'면 3에, '매우 그렇다'면 4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a	나는 체험활동 시간이 기다려진다	1	2	3	4

☞ 나는 체험활동 시간이 매우 기다려지기 때문에 '4'에 표시했습니다.

###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를 하고 바꾸고 싶은 번호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a	나는 체험활동 시간이 기다려진다	1	2	3	<del>4</del>

※ 다음은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체험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고 해당되는 곳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문 1. 최근 1년간 학교 안팎에서 ‘건강·보건’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참여했나요?**

**☞ 건강·보건활동** : 신체련활동, 약물예방활동, 흡연·음주·약물·비만 예방활동, 안전·응급처치활동, 성교육활동 등

- ① 예 → 「문 1-1」로 가세요
- ② 아니오 → 「문 2」로 가세요

**문 1-1. 다음 중 어떤 참여방식을 통해 ‘건강·보건’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참여했나요?**  
 각 참여방식에 대해 참여했는지, 참여했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해당되는 곳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참여방식	참여도		
	참여하지 않았음	소극적으로 참여함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1	2	3
②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	1	2	3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으로 참여	1	2	3
④ 교내-교외(지역사회)연계활동으로 참여	1	2	3
⑤ 청소년단체활동(걸/보이스카우트,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RCY, 아람/누리/한별단 등)으로 참여	1	2	3
⑥ 온라인동아리활동으로 참여	1	2	3
⑦ 종교활동(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를 통해서)으로 참여	1	2	3
⑧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1	2	3

**문 2. 최근 1년간 학교 안팎에서 ‘과학정보활동’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참여했나요?**

**☞ 과학정보활동** : 모형 및 로봇활동, 인터넷활동, 우주천체활동, 정보캠프활동, 영상매체활동 등

- ① 예 → 「문 2-1」로 가세요
- ② 아니오 → 「문 3」으로 가세요

**문 2-1. 다음 중 어떤 참여방식을 통해 ‘과학정보활동’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참여했나요?**  
 각 참여방식에 대해 참여했는지, 참여했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해당되는 곳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참여방식	참여도		
	참여하지 않았음	소극적으로 참여함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1	2	3
②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	1	2	3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으로 참여	1	2	3
④ 교내-교외(지역사회)연계활동으로 참여	1	2	3
⑤ 청소년단체활동(걸/보이스카우트,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RCY, 아람/누리/한별단 등)으로 참여	1	2	3
⑥ 온라인동아리활동으로 참여	1	2	3
⑦ 종교활동(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를 통해서)으로 참여	1	2	3
⑧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1	2	3

**문 3. 최근 1년간 학교 안팎에서 ‘교류활동’ 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참여했나요?**

**☞ 교류활동** : 청소년국제교류활동, 남북 청소년교류활동, 도농간 청소년교류활동, 국제이해활동, 다문화이해활동, 세계문화비교활동, 한민족청소년캠프 등

- ① 예 → 「문 3-1」로 가세요
- ② 아니오 → 「문 4」로 가세요

**문 3-1. 다음 중 어떤 참여방식을 통해 ‘교류활동’ 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참여했나요?**  
 각 참여방식에 대해 참여했는지, 참여했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해당되는 곳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참여방식	참여도		
	참여하지 않았음	소극적으로 참여함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1	2	3
②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	1	2	3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으로 참여	1	2	3
④ 교내-교외(지역사회)연계활동으로 참여	1	2	3
⑤ 청소년단체활동(걸/보이스카우트,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RCY, 아람/누리/한별단 등)으로 참여	1	2	3
⑥ 온라인동아리활동으로 참여	1	2	3
⑦ 종교활동(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를 통해서)으로 참여	1	2	3
⑧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1	2	3

**문 4. 최근 1년간 학교 안팎에서 ‘모험개척활동’ 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참여했나요?**

**☞ 모험개척활동** : 탐사·등반활동, 야영활동, 해양활동, 오지탐사활동, 극기훈련활동, 호연지기활동, 수상훈련활동, 한국의 산수 탐사활동, 안전지킴이활동 등

- ① 예 → 「문 4-1」로 가세요
- ② 아니오 → 「문 5」로 가세요

**문 4-1. 다음 중 어떤 참여방식을 통해 ‘모험개척활동’ 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참여했나요?**  
 각 참여방식에 대해 참여했는지, 참여했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해당되는 곳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참여방식	참여도		
	참여하지 않았음	소극적으로 참여함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1	2	3
②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	1	2	3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으로 참여	1	2	3
④ 교내-교외(지역사회)연계활동으로 참여	1	2	3
⑤ 청소년단체활동(걸/보이스카우트,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RCY, 아람/누리/한별단 등)으로 참여	1	2	3
⑥ 온라인동아리활동으로 참여	1	2	3
⑦ 종교활동(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를 통해서)으로 참여	1	2	3
⑧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1	2	3

**문 5. 최근 1년간 학교 안팎에서 ‘문화예술활동’ 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참여했나요?**

문화예술활동 : 지역문화, 세계문화, 대중문화, 역사연극활동, 어울마당, 전통예술활동 등

- ① 예 → 「문 5-1」로 가세요
- ② 아니오 → 「문 6」으로 가세요

**문 5-1. 다음 중 어떤 참여방식을 통해 ‘문화예술활동’ 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참여했나요?**  
 각 참여방식에 대해 참여했는지, 참여했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해당되는 곳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참여방식	참여도		
	참여하지 않았음	소극적으로 참여함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1	2	3
②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	1	2	3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으로 참여	1	2	3
④ 교내-교외(지역사회)연계활동으로 참여	1	2	3
⑤ 청소년단체활동(걸/보이스카우트,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RCY, 아람/누리/한별단 등)으로 참여	1	2	3
⑥ 온라인동아리활동으로 참여	1	2	3
⑦ 종교활동(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를 통해서)으로 참여	1	2	3
⑧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1	2	3

**문 6. 최근 1년간 학교 안팎에서 ‘봉사활동’ 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참여했나요?**

봉사활동 : 일손돕기활동, 위문활동, 지도활동, 캠페인활동, 자선·구호활동, 지역사회개발 및 참여활동 등

- ① 예 → 「문 6-1」로 가세요
- ② 아니오 → 「문 7」로 가세요

**문 6-1. 다음 중 어떤 참여방식을 통해 ‘봉사활동’ 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참여했나요?**  
 각 참여방식에 대해 참여했는지, 참여했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해당되는 곳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참여방식	참여도		
	참여하지 않았음	소극적으로 참여함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1	2	3
②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	1	2	3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으로 참여	1	2	3
④ 교내-교외(지역사회)연계활동으로 참여	1	2	3
⑤ 청소년단체활동(걸/보이스카우트,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RCY, 아람/누리/한별단 등)으로 참여	1	2	3
⑥ 온라인동아리활동으로 참여	1	2	3
⑦ 종교활동(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를 통해서)으로 참여	1	2	3
⑧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1	2	3

**문 7. 최근 1년간 학교 안팎에서 ‘직업체험활동’ 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참여했나요?**

 **직업체험활동** : 청소년모의창업, 경제캠프, 사회생활기술, 진로탐색 활동, 직업현장체험 등

- ① 예 → 「문 7-1」로 가세요
- ② 아니요 → 「문 8」로 가세요

**문 7-1. 다음 중 어떤 참여방식을 통해 ‘직업체험활동’ 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참여했나요? 각 참여방식에 대해 참여했는지, 참여했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해당되는 곳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참여방식	참여도		
	참여하지 않았음	소극적으로 참여함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1	2	3
②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	1	2	3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으로 참여	1	2	3
④ 교내-교외(지역사회)연계활동으로 참여	1	2	3
⑤ 청소년단체활동(걸/보이스카우트,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RCY, 아람/누리/한별단 등)으로 참여	1	2	3
⑥ 온라인동아리활동으로 참여	1	2	3
⑦ 종교활동(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를 통해서)으로 참여	1	2	3
⑧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1	2	3

**문 8. 최근 1년간 학교 안팎에서 ‘환경보존활동’ 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참여했나요?**

 **환경보존활동** : 생태활동, 환경탐사활동, 자연지도 만들기, 숲체험, 환경음식 만들기, 환경살리기 활동, 환경·시설 보존활동 등

- ① 예 → 「문 8-1」로 가세요
- ② 아니요 → 「문 9」로 가세요

**문 8-1. 다음 중 어떤 참여방식을 통해 ‘환경보존활동’ 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참여했나요? 각 참여방식에 대해 참여했는지, 참여했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해당되는 곳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참여방식	참여도		
	참여하지 않았음	소극적으로 참여함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1	2	3
②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	1	2	3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으로 참여	1	2	3
④ 교내-교외(지역사회)연계활동으로 참여	1	2	3
⑤ 청소년단체활동(걸/보이스카우트,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RCY, 아람/누리/한별단 등)으로 참여	1	2	3
⑥ 온라인동아리활동으로 참여	1	2	3
⑦ 종교활동(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를 통해서)으로 참여	1	2	3
⑧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1	2	3

**문 9. 최근 1년간 학교 안팎에서 ‘자기(인성) 개발활동’ 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참여했나요?**

☞ 자기(인성) 개발활동 : 표현능력개발 수련활동, 자기탐구활동, 자기존중감향상 프로그램, 자기표현활동, 심성수련활동 등

- ① 예 → 「문 9-1」로 가세요
- ② 아니요 → 「문 10」으로 가세요

**문 9-1. 다음 중 어떤 참여방식을 통해 ‘자기(인성) 개발활동’ 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참여했나요?**  
 각 참여방식에 대해 참여했는지, 참여했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해당되는 곳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참여방식	참여도		
	참여하지 않았음	소극적으로 참여함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1	2	3
②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	1	2	3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으로 참여	1	2	3
④ 교내-교외(지역사회)연계활동으로 참여	1	2	3
⑤ 청소년단체활동(걸/보이스카우트,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RCY, 아람/누리/한별단 등)으로 참여	1	2	3
⑥ 온라인동아리활동으로 참여	1	2	3
⑦ 종교활동(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를 통해서)으로 참여	1	2	3
⑧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1	2	3

**문 10. 최근 1년간 학교 안팎에서 ‘사회참여활동’ 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참여했나요?**

☞ 사회참여활동 : 지역사회의 어른들이나 정치인에게 청소년들의 생각을 건의하는 활동

- ① 예 → 「문 10-1」로 가세요
- ② 아니요 → 「문 11」로 가세요

**문 10-1. 다음 중 어떤 참여방식을 통해 ‘사회참여활동’ 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참여했나요?**  
 각 참여방식에 대해 참여했는지, 참여했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해당되는 곳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참여방식	참여도		
	참여하지 않았음	소극적으로 참여함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1	2	3
②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	1	2	3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으로 참여	1	2	3
④ 교내-교외(지역사회)연계활동으로 참여	1	2	3
⑤ 청소년단체활동(걸/보이스카우트,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RCY, 아람/누리/한별단 등)으로 참여	1	2	3
⑥ 온라인동아리활동으로 참여	1	2	3
⑦ 종교활동(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를 통해서)으로 참여	1	2	3
⑧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1	2	3

문 11. 문 1부터 문10까지 응답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교육을 받았나요?**  
해당되는 곳에 동그라미(O) 표시를 해주세요.

	받은 적이 없다	받은 적이 있다	매번 받았다	잘 모르겠다
1) 체험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교육을 받았나요?	1	2	3	4
2) 체험활동에 참여한 후에 교육을 받았나요? (예: 포트폴리오작성, 만족도조사, 보고서작성, 체험결과발표 등)	1	2	3	4

문 12. **최근 1년간 참여하고 싶었지만, 참여하지 못한 체험활동이 있나요?**

- ① 있다 → 「문 12-1」로 가세요  
 ② 없다 → 「문 13」으로 가세요

문 12-1. 만약 **최근 1년간 참여하고 싶은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해당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②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③ 참가비용이 부담돼서  
 ④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⑤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⑥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  
 ⑦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⑧ 같이 참여할 친구가 없어서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_\_\_\_\_)

**문 13. 체험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해당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체험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
- ② 체험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③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학생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
- ④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
- ⑤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 ⑥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 ⑦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
- ⑧ 체험활동 참가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 ⑨ 체험활동에 참여한 기록을 학교 성적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⑩ 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 상을 주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 ⑪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_\_\_\_\_)

**문 14.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나 자주 이용했나요?  
해당되는 곳에 동그라미(O) 표시를 해주세요.**

	이용한 적 없음	1년에 1-2번 정도	1년에 3-4번 정도	1달에 1번 정도	1달에 2-3번 정도	1주일에 1번 정도	1주일에 2-3번 정도	거의 매일
1)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센터 등	1	2	3	4	5	6	7	8
2) 유스호스텔*, 야영장	1	2	3	4	5	6	7	8
3) 도서관	1	2	3	4	5	6	7	8
4) 사회복지관	1	2	3	4	5	6	7	8
5) 수목림, 수목원, 자연휴양림	1	2	3	4	5	6	7	8

 유스호스텔이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연과 친숙해지고 건전한 야외활동을 갖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비영리) 숙박시설

## 문 15.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문화예술 행사를 직접 관람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몇 번 정도인가요?

☞ 특정 장소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직접 본 경우는 '보기 ①'에 응답,  
TV나 인터넷 등 특정 매체를 통해서 본 경우에는 '보기 ②'와 '보기 ③'에 응답해 주세요.

	관람한 적이 없다	관람한 적이 있다	최근 1년간 총 관람 횟수
1) 문학행사(도서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등) 관람	1	2	___회
2)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전시회 및 박람회(미술, 사진, 건축, 디자인, 서예 등) 관람	1	2	___회
3) 음악연주회(클래식, 오페라, 재즈 등) 관람			
① 극장, 공연홀 등에서	1	2	___회
② TV, 비디오, DVD 등을 통해서	1	2	___회
③ 인터넷을 통해서	1	2	___회
4) 전통예술공연(국악, 풍물, 민속극 등) 관람			
① 극장, 공연홀 등에서	1	2	___회
② TV, 비디오, DVD 등을 통해서	1	2	___회
③ 인터넷을 통해서	1	2	___회
5) 연극, 뮤지컬 공연 관람			
① 극장, 공연홀 등에서	1	2	___회
② TV, 비디오, DVD 등을 통해서	1	2	___회
③ 인터넷을 통해서	1	2	___회
6) 무용 공연(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등) 관람			
① 극장, 공연홀 등에서	1	2	___회
② TV, 비디오, DVD 등을 통해서	1	2	___회
③ 인터넷을 통해서	1	2	___회
7) 영화관람			
① 영화관 또는 기타 상영관 등에서	1	2	___회
② TV, 비디오, DVD 등을 통해서	1	2	___회
③ 인터넷을 통해서	1	2	___회
8) 대중가요콘서트(비보잉 등 '발레 및 무용'을 제외한 모든 춤 포함), 연예(방송 프로그램 및 마술쇼 등) 관람			
① 극장, 공연홀 등에서	1	2	___회
② TV, 비디오, DVD 등을 통해서	1	2	___회
③ 인터넷을 통해서	1	2	___회

**문 16.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몇 번 정도인가요?**

	참여한 적이 없다	참여한 적이 있다	최근 1년간
			총 참여 횟수
1) 문학행사(도서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등) 참여	1	2	____회
2) 문예창작 및 발표 / 독서토론	1	2	____회
3) 미술활동(그림, 조각, 디자인, 도예, 공예, 만화, 건축, 서예 등) 창작 및 발표활동	1	2	____회
4) 서양악기연주, 작곡 및 노래교실(성악, 가곡 등 클래식 또는 오페라 관련) 참여 및 발표	1	2	____회
5) 전통예술배우기(전통악기연주, 전통노래 배우기, 전통무용, 풍물, 민속극 등)	1	2	____회
6) 사진촬영(디지털카메라 포함) 및 발표활동	1	2	____회
7) 무용(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등) 창작 및 발표활동	1	2	____회
8) 영화, 연극, 뮤지컬 등 공연 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	1	2	____회
9) 연예(대중음악에 대한 작곡, 노래, 춤 등) 관련 창작 및 발표활동	1	2	____회
10)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팬미팅, 팬카페활동	1	2	____회

**문 17.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진로체험을 한 적이 있나요?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해당되는 곳에 동그라미(O) 표시를 해주세요.**

	경험이 없다	경험이 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직업현장에서의 실제 업무 체험	0	1	2	3	4
2) 일터, 직업관련 홍보관, 기업체 견학	0	1	2	3	4
3)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서의 실습·견학	0	1	2	3	4
4) 진로캠프(진로심리검사, 상담, 멘토링 특강 등의 종합적 프로그램)	0	1	2	3	4
5) 직업인 초청 강연	0	1	2	3	4
6) 직업인 인터뷰 및 멘토링(상담)	0	1	2	3	4
7) 시청각 자료를 통한 진로체험	0	1	2	3	4
8) 직업모의체험(제과제빵, 모의법정 등)	0	1	2	3	4
9) 아르바이트 경험	0	1	2	3	4

문 18. 다음은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체험활동' 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모든 체험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1	2	3	4
2) 나는 체험활동 시간이 기다려진다	1	2	3	4
3) 나는 체험활동을 하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1	2	3	4
4) 더 많은 체험활동을 하고 싶다	1	2	3	4
5) 다시 해 보고 싶은 체험활동이 있다	1	2	3	4
6)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감이 생겼다	1	2	3	4
7) 체험활동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1	2	3	4
8) 체험활동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다	1	2	3	4
9) 체험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넓어졌다	1	2	3	4
10) 체험활동을 통해 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웠다	1	2	3	4
11) 체험활동을 통해 선생님과 친해졌다	1	2	3	4
12) 체험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친해졌다	1	2	3	4
13) 나는 체험활동 때문에 학교생활이 즐겁다	1	2	3	4
14) 체험활동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1	2	3	4
15) 체험활동은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1	2	3	4
16) 체험활동이 나의 공부에 도움이 된다	1	2	3	4

문 19. 다음은 '내가 공부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공부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화를 내시므로 공부한다	1	2	3	4
2) 나는 공부를 하면 부모님이 상(용돈, 선물, 칭찬 등)을 주시므로 공부한다	1	2	3	4
3) 나는 공부를 하면 선생님이 칭찬을 하시므로 공부한다	1	2	3	4
4) 나는 공부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벌(야단, 체벌)을 주시므로 공부한다	1	2	3	4
5) 나는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시키시므로 공부한다	1	2	3	4
6) 나는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시키시므로 공부한다	1	2	3	4
7) 나는 공부하는 것을 즐기므로 공부한다	1	2	3	4
8) 나는 어려운 도전들로부터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공부한다	1	2	3	4
9) 나는 지식을 키우는 것이 재미있어서 공부한다	1	2	3	4
10) 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공부한다	1	2	3	4
11) 나는 생각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한다	1	2	3	4
12) 나는 모르는 것에 대한 해답을 알고 싶어서 공부한다	1	2	3	4
13) 나는 내가 학교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1	2	3	4
14) 나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1	2	3	4
15) 나는 솔직히 학교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1	2	3	4
16) 나는 왜 학교에 가는지 모르겠고, 솔직히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1	2	3	4
17) 인생에서 공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1	2	3	4
18) 공부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1	2	3	4

문 20. 다음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2) 나는 내가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1	2	3	4
3)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	2	3	4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처럼 일을 잘할 수 있다	1	2	3	4
5) 나는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1	2	3	4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1	2	3	4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1	2	3	4
8)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1	2	3	4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	2	3	4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문 21. 다음은 '내가 직업과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원하는 직업(전공)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1	2	3	4
2)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	1	2	3	4
3) 직업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1	2	3	4
4) 내가 잘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5) 내가 관심 있는 진로나 전공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적이 있다	1	2	3	4
6)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이메일, 전화 등)해 본 적이 있다	1	2	3	4
7) 직업 자체가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은 아니다	1	2	3	4
8)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9)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다	1	2	3	4
10) 부모님이 반대하시더라도 내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1	2	3	4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1) 나의 진로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1	2	3	4
12) 내가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13) 나의 성격에서 나쁜 점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14) 돈을 많이 벌수만 있다면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다	1	2	3	4
15) 진로선택은 어른들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좋다	1	2	3	4
16) 힘든 일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선택할 것이다	1	2	3	4
17) 나의 성격에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18)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	1	2	3	4
19) 나는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계획을 세운다	1	2	3	4
20) 진로선택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내 생각이 중요하다	1	2	3	4
21)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1	2	3	4
22) 어떤 직업을 가지게가 미래의 나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1	2	3	4
23) 내가 알고 있는 진로지식이 정확한지 알아본 적이 있다	1	2	3	4
24) 나는 어른들의 결정보다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택할 것이다	1	2	3	4
25) 내가 관심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26) 나의 진로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	1	2	3	4
27) 나는 내 또래에 비해서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1	2	3	4

문 22.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2) 나는 학교생활을 좋아한다	1	2	3	4
3) 나의 삶에 만족한다	1	2	3	4
4)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	1	2	3	4
5) 나는 주변사람과 잘 어울린다	1	2	3	4
6)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외롭다	1	2	3	4
7)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나는 행복하다	1	2	3	4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경문항 1.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해 주세요(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 ① 할아버지/외할아버지
- ② 할머니/외할머니
- ③ 아버지
- ④ 어머니
- ⑤ 형제 또는 자매
- ⑥ 친척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⑧ 없음

배경문항 2.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 이 아닙니다.  
예)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2)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0	1	2	3	4	5	6	7	8
2. 어머니	0	1	2	3	4	5	6	7	8

배경문항 3. 부모님께서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신가요?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직업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1)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있음	없음
1. 아버지	0	1	2
2. 어머니	0	1	2

배경문항 4. 학생의 학업 성적(2014년 1학기)이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나요?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1	2	3	4	5

배경문항 5. 학생의 가정 형편(경제 수준)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 산다		보통 수준			매우 잘 산다	
1	2	3	4	5	6	7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학급 기초 정보 기록표

문 1) 조사대상 학급은 남녀 합반입니까 별반입니까?(남학교인 경우 ②, 여학교인 경우 ③)

- ① 남녀합반                      ② 남학생반                      ③ 여학생반

문 2) 조사대상 학급의 재적인원은 몇 명입니까?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 응답해주세요.

- ① 남학생:   명                      ② 여학생:   명

문 3) 조사대상 학급의 오늘(조사당일) 출석인원은 몇 명입니까?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 응답해주세요.

- ① 남학생:   명                      ② 여학생:   명

문 4) 조사대상 학급의 특성을 설명하는 다음 보기 중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개에 해당되면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해당되는 특성이 없으면, ①해당없음에 체크하여주시고, 보기 값 외에 특이사항이 있다면 ⑥기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① 해당 없음  
 ① 수준별 편성학급  
 ② 취업반  
 ③ 진학반  
 ④ 특수학급  
 ⑤ 대학학점 선 이수반(Advanced Placement)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_\_\_\_\_)

문 5) (고등학교만) 조사대상 학급의 계열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나누어져 있지 않음(공통, 1학년)  
 ① 인문계(문과)  
 ② 자연계(이과)  
 ③ 예체능계

※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만 응답)**

문 6) 귀 학교는 자유학기제 시범학교입니까? 그렇다면, 현재 조사대상 학급의 학생들은 과거 또는 현재 자유학기제 적용 대상입니까?

- ① 자유학기제 시범학교 아님  
 ① 자유학기제 시범학교이나, 지금의 우리 반 학생들은 과거 또는 현재 자유학기제 적용대상이 아님  
 ② 자유학기제 시범학교이고, 지금의 우리 반 학생들은 과거 또는 현재 자유학기제 적용대상임( \_\_\_\_\_ 학년 \_\_\_\_\_ 학기 적용대상)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표 1

2014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문항내용 및 출처

영역	내용	출처	
체험활동 참여변인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여부	· 건강·보건활동 · 봉사활동 · 과학정보활동 · 직업체험활동 · 교류활동 · 환경보존활동 · 모험·개척활동 · 자기(인성)개발활동 · 문화예술활동 · 사회참여활동	· 여성가족부(2013)의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분류를 토대로 작성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방식	· 8개 참여방식에 대한 참여여부 및 참여도 (소극적 참여와 적극적 참여로 응답)	· 김현철 외(2013) 수정·보완
	체험활동 참여전후 교육여부	· 사전교육 · 사후교육	· 안선영 외(2013) 수정·보완
	체험활동 장애요인 및 요구	· 참여하고 싶은 활동 중 참여하지 못한 활동 유무 · 참여하지 못한 이유(1, 2, 3순위로 응답) · 체험활동 적극 참여를 위해 필요한 것 (1, 2, 3순위로 응답)	· 임지연 외(2009) 수정·보완
	체험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 체험활동 관련 시설 이용 경험 정도 (5개 시설 각각에 대한 이용경험)	· 여성가족부(2012a)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작성
	문화예술 행사 관람 및 참여	· 문화예술 행사 관람여부 및 관람횟수 · 문화예술 행사 참여여부 및 참여횟수	· 문화체육관광부(2012)를 참고하여 작성
	진로체험 경험여부	· 진로체험 유형별 경험여부 및 도움정도	· 서울시교육청(2014)의 진로체험 유형과 안선영 외(2013)를 참고하여 작성
정 의 특 성 변 인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15개 문항)	· 김현철 외(2012)	
	자아존중감(10개 문항)	· Rogenberg(1965)	
	동기	· 외재적 동기(6개 문항) · 내재적 동기(6개 문항) · 무동기(6개 문항)	· 김아영(2008)
	진로 성숙도	· 계획성(5개 문항) · 독립성(5개 문항) · 태도(5개 문항) · 자신지식(6개 문항) · 진로행동(6개 문항)	· 한국고용정보원(2006)
	행복감	· 주관적 행복(6개 문항) · 행복도(1개 문항)	·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10)

**표 2** 체험활동 폭에 따른 태도

단위: 점

체험활동 폭	전체(N)	평균(표준편차)	F	사후검정결과 <sup>†</sup>
0	34	0.68 (0.782)	53.725***	a
1	197	1.25 (0.856)		b
2	478	1.41 (0.674)		b c
3	733	1.54 (0.683)		b c d
4	904	1.63 (0.663)		c d e
5	829	1.74 (0.635)		d e f
6	637	1.84 (0.607)		d e f g
7	423	1.95 (0.625)		f g
8	255	1.92 (0.660)		e f g
9	149	2.10 (0.550)		g
10	163	2.04 (0.723)		g

\*  $p < 0.05$ , \*\*  $p < 0.01$ , \*\*\*  $p < 0.001$

† Scheffe 사후검정결과 부집단(a < b < c < d < e < f < g 집단으로 표시)

부  
록

**표 3** 체험활동 폭에 따른 동기(외재적 동기)

단위: 점

체험활동 폭	전체(N)	평균(표준편차)	F	사후검정결과 <sup>†</sup>
0	35	0.66 (0.751)	3.574***	a b
1	197	0.63 (0.622)		a
2	484	0.69 (0.585)		a b
3	734	0.69 (0.575)		a b
4	912	0.74 (0.612)		a b
5	834	0.74 (0.597)		a b
6	639	0.74 (0.600)		a b
7	424	0.69 (0.602)		a b
8	257	0.74 (0.594)		a b
9	149	0.85 (0.631)		a b
10	163	0.92 (0.710)		b

\*  $p < 0.05$ , \*\*  $p < 0.01$ , \*\*\*  $p < 0.001$

† Scheffe 사후검정결과 부집단(a < b 집단으로 표시)

표 4 체험활동 폭에 따른 동기(내재적 동기)

단위: 점

체험활동 폭	전체(N)	평균(표준편차)	F	사후검정결과 <sup>†</sup>
0	35	0.67 (0.855)	33.007***	a b
1	196	0.59 (0.729)		a
2	483	0.81 (0.720)		a b c
3	734	0.89 (0.727)		a b c d
4	913	0.95 (0.734)		b c d e
5	833	1.11 (0.754)		c d e f
6	638	1.19 (0.747)		d e f
7	424	1.26 (0.760)		e f
8	258	1.34 (0.748)		f
9	151	1.28 (0.801)		e f
10	163	1.41 (0.812)		f

\*  $p < 0.05$ , \*\*  $p < 0.01$ , \*\*\*  $p < 0.001$

† Scheffe 사후검정결과 부집단(a < b < c < d < e < f 집단으로 표시)

표 5 체험활동 폭에 따른 동기(무동기)

단위: 점

체험활동 폭	전체(N)	평균(표준편차)	F	사후검정결과 <sup>†</sup>
0	34	0.90 (0.901)	9.242***	a
1	197	1.08 (0.877)		a
2	481	1.16 (0.829)		a
3	732	1.11 (0.796)		a
4	911	1.08 (0.781)		a
5	836	0.96 (0.748)		a
6	637	0.91 (0.731)		a
7	424	0.86 (0.717)		a
8	258	0.82 (0.751)		a
9	151	0.87 (0.772)		a
10	162	0.91 (0.781)		a

\*  $p < 0.05$ , \*\*  $p < 0.01$ , \*\*\*  $p < 0.001$

† Scheffe 사후검정결과 부집단(a < b < c < d < e < f < g 집단으로 표시)

**표 6** 체험활동 폭에 따른 진로성숙도(계획성)

단위: 점

체험활동 폭	전체(N)	평균(표준편차)	F	사후검정결과 <sup>†</sup>
0	35	1.08 (0.933)	31,202***	a
1	197	1.31 (0.800)		a b
2	481	1.52 (0.681)		b c
3	735	1.60 (0.656)		c d
4	909	1.67 (0.639)		c d e
5	835	1.75 (0.604)		c d e
6	636	1.84 (0.604)		d e
7	421	1.92 (0.628)		e
8	259	1.90 (0.602)		e
9	149	1.91 (0.655)		e
10	164	1.96 (0.772)		e

\*  $p < 0.05$ , \*\*  $p < 0.01$ , \*\*\*  $p < 0.001$

† Scheffe 사후검정결과 부집단(a < b < c < d < e 집단으로 표시)

부  
록

**표 7** 체험활동 폭에 따른 진로성숙도(독립성)

단위: 점

체험활동 폭	전체(N)	평균(표준편차)	F	사후검정결과 <sup>†</sup>
0	35	1.73 (0.554)	11,375***	a
1	197	1.86 (0.573)		a b
2	475	2.02 (0.537)		b c
3	732	2.03 (0.529)		b c
4	910	2.09 (0.544)		b c
5	837	2.13 (0.509)		c
6	637	2.14 (0.552)		c
7	422	2.21 (0.539)		c
8	259	2.20 (0.517)		c
9	149	2.13 (0.545)		c
10	164	2.07 (0.534)		b c

\*  $p < 0.05$ , \*\*  $p < 0.01$ , \*\*\*  $p < 0.001$

† Scheffe 사후검정결과 부집단(a < b < c 집단으로 표시)

**표 8** 체험활동 폭에 따른 진로성숙도(태도)

단위: 점

체험활동 폭	전체(N)	평균(표준편차)	F	사후검정결과 <sup>†</sup>
0	35	1.84 (0.472)	13.300***	a
1	197	1.94 (0.514)		a b
2	481	2.02 (0.465)		a b c
3	732	2.00 (0.485)		a b c
4	913	2.08 (0.492)		b c d
5	835	2.13 (0.479)		b c d
6	637	2.15 (0.474)		b c d
7	423	2.24 (0.486)		d
8	259	2.21 (0.502)		c d
9	150	2.15 (0.524)		b c d
10	164	2.05 (0.549)		a b c d

\*  $p < 0.05$ , \*\*  $p < 0.01$ , \*\*\*  $p < 0.001$

† Scheffe 사후검정결과 부집단(a < b < c < d 집단으로 표시)

**표 9** 체험활동 폭에 따른 진로성숙도(자신지식)

단위: 점

체험활동 폭	전체(N)	평균(표준편차)	F	사후검정결과 <sup>†</sup>
0	34	1.39 (1.035)	25.028***	a
1	197	1.69 (0.775)		b
2	478	1.94 (0.566)		b c
3	731	1.95 (0.558)		c d
4	908	2.03 (0.548)		c d e
5	831	2.07 (0.509)		c d e
6	634	2.11 (0.513)		c d e
7	422	2.19 (0.533)		d e
8	255	2.21 (0.521)		e
9	150	2.23 (0.520)		e
10	162	2.13 (0.679)		c d e

\*  $p < 0.05$ , \*\*  $p < 0.01$ , \*\*\*  $p < 0.001$

† Scheffe 사후검정결과 부집단(a < b < c < d < e 집단으로 표시)

표 10 체험활동 폭에 따른 진로성숙도(진로행동)

단위: 점

체험활동 폭	전체(N)	평균(표준편차)	F	사후검정결과 <sup>†</sup>
0	35	0.95 (0.893)	37.034***	a
1	196	1.19 (0.747)		a b
2	478	1.44 (0.621)		b c
3	731	1.47 (0.590)		c d
4	903	1.55 (0.594)		c d e
5	832	1.65 (0.558)		c d e f
6	635	1.73 (0.586)		d e f
7	423	1.78 (0.600)		e f
8	259	1.83 (0.559)		f
9	147	1.79 (0.591)		e f
10	164	1.87 (0.666)		f

\*  $p < 0.05$ , \*\*  $p < 0.01$ , \*\*\*  $p < 0.001$

† Scheffe 사후검정결과 부집단(a < b < c < d < e < f 집단으로 표시)

부  
록

표 11 진로체험 경험의 다양성에 따른 진로성숙도(계획성)

단위: 점

체험활동 폭	전체(N)	평균(표준편차)	F	사후검정결과 <sup>†</sup>
0	1,062	1.54 (0.731)	25.807***	a
1	766	1.64 (0.659)		a
2	637	1.66 (0.631)		a b
3	498	1.73 (0.600)		a b c
4	357	1.86 (0.594)		b c d
5	316	1.90 (0.599)		c d
6	182	1.87 (0.668)		b c d
7	154	1.90 (0.660)		c d
8	191	1.99 (0.596)		d
9	331	1.95 (0.644)		c d

\*  $p < 0.05$ , \*\*  $p < 0.01$ , \*\*\*  $p < 0.001$

† Scheffe 사후검정결과 부집단(a < b < c < d 집단으로 표시)

**표 12** 진로체험 경험의 다양성에 따른 진로성숙도(독립성)

단위: 점

체험활동 폭	전체(N)	평균(표준편차)	F	사후검정결과 <sup>†</sup>		
0	1,058	1.98 (0.550)	10.691***	a		
1	767	2.13 (0.534)		a	b	c
2	641	2.13 (0.532)		a	b	c
3	498	2.15 (0.532)		a	b	c
4	357	2.21 (0.513)				c
5	316	2.14 (0.497)		a	b	c
6	182	2.12 (0.517)		a	b	c
7	154	2.07 (0.552)		a	b	c
8	190	2.16 (0.547)			b	c
9	332	1.99 (0.546)		a	b	

\*  $p < 0.05$ , \*\*  $p < 0.01$ , \*\*\*  $p < 0.001$

† Scheffe 사후검정결과 부집단(a < b < c 집단으로 표시)

**표 13** 진로체험 경험의 다양성에 따른 진로성숙도(태도)

단위: 점

체험활동 폭	전체(N)	평균(표준편차)	F	사후검정결과 <sup>†</sup>		
0	1,064	2.00 (0.492)	15.180***	a	b	
1	767	2.09 (0.482)		a	b	c
2	639	2.14 (0.468)			b	c
3	498	2.18 (0.491)				c
4	357	2.21 (0.453)				c
5	315	2.16 (0.491)				c
6	182	2.16 (0.463)				c
7	154	2.14 (0.546)			b	c
8	191	2.16 (0.491)				c
9	333	1.93 (0.517)		a		

\*  $p < 0.05$ , \*\*  $p < 0.01$ , \*\*\*  $p < 0.001$

† Scheffe 사후검정결과 부집단(a < b < c 집단으로 표시)

표 14 진로체험 경험의 다양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자신지식)

단위: 점

체험활동 폭	전체(N)	평균(표준편차)	F	사후검정결과 <sup>†</sup>
0	1,060	1.91 (0.654)	13.100***	a
1	759	2.02 (0.553)		a b
2	636	2.03 (0.529)		a b
3	498	2.10 (0.511)		b c
4	356	2.16 (0.502)		b c
5	312	2.14 (0.540)		b c
6	181	2.09 (0.599)		a b c
7	154	2.13 (0.523)		b c
8	191	2.24 (0.511)		c
9	331	2.07 (0.558)		a b c

\*  $p < 0.05$ , \*\*  $p < 0.01$ , \*\*\*  $p < 0.001$

† Scheffe 사후검정결과 부집단(a < b < c 집단으로 표시)

표 15 진로체험 경험의 다양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진로행동)

단위: 점

체험활동 폭	전체(N)	평균(표준편차)	F	사후검정결과 <sup>†</sup>
0	1,057	1.38 (0.664)	44.082***	a
1	765	1.51 (0.610)		a b
2	639	1.55 (0.567)		a b c
3	499	1.64 (0.542)		b c d
4	355	1.73 (0.554)		c d e
5	312	1.83 (0.566)		d e
6	181	1.75 (0.638)		d e
7	153	1.92 (0.590)		e
8	191	1.91 (0.559)		e
9	331	1.86 (0.600)		e

\*  $p < 0.05$ , \*\*  $p < 0.01$ , \*\*\*  $p < 0.001$

† Scheffe 사후검정결과 부집단(a < b < c < d < e 집단으로 표시)

표 16 체험활동 폭에 따른 자아존중감

단위: 점

체험활동 폭	전체(N)	평균(표준편차)	F	사후검정결과 <sup>†</sup>	
0	34	1.83 (0.560)	7.843***	a	b
1	198	1.74 (0.465)		a	
2	484	1.81 (0.484)		a	b
3	735	1.82 (0.480)		a	b
4	910	1.82 (0.500)		a	b
5	835	1.90 (0.487)		a	b
6	637	1.90 (0.499)		a	b
7	420	1.94 (0.520)		a	b
8	255	2.00 (0.481)			b
9	150	1.95 (0.566)		a	b
10	162	1.94 (0.476)		a	b

\*  $p < 0.05$ , \*\*  $p < 0.01$ , \*\*\*  $p < 0.001$

† Scheffe 사후검정결과 부집단(a < b 집단으로 표시)

부  
록

표 17 체험활동 폭에 따른 행복감

단위: 점

체험활동 폭	전체(N)	평균(표준편차)	F	사후검정결과 <sup>†</sup>		
0	35	1.77 (0.884)	11.534***	a		
1	197	1.87 (0.662)		a	b	
2	480	2.00 (0.575)		a	b	c
3	731	2.05 (0.553)			b	c
4	909	2.06 (0.554)			b	c
5	836	2.14 (0.549)				c
6	636	2.15 (0.549)				c
7	424	2.21 (0.565)				c
8	258	2.21 (0.554)				c
9	150	2.23 (0.587)				c
10	162	2.22 (0.610)				c

\*  $p < 0.05$ , \*\*  $p < 0.01$ , \*\*\*  $p < 0.001$

† Scheffe 사후검정결과 부집단(a < b < c 집단으로 표시)

## Abstract

### The Survey of Youth's Participation in Hands-on Activities I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urrent situation of youth's participation in hands-on activities in order to provide a rationale for an evidence-based policy and to explore adequate measures for promoting youth's participation in hand-on activities. To do this, we carried out a literature review, expert consultation, a survey of expert opinions, expert workshops, a questionnaire survey, and suggested alternative policies for promoting youth participation in hands-on activities.

We found that most youth were participating in one or more domains of hands-on activities: about half of them in four domains of hands-on activities and most youth in hands-on activities in a group organized by schools. Some factors including two parent households, high academic performance, and high economic status increased youth's participation rates, also when they were participating in art and cultural activities. With regard to career experience, more youth participated in indirect career experience than work-based activities, even though most youth responded that the latter is more helpful. Youth from socio-economically advantaged family background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diverse activities; they also performed their activities with greater enthusiasm and used the relevant facilities more frequently. Moreover, we verified that participation in diverse hand-on activities contributes to the positive development of youth. Specifically,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ange of hand-on activities youth participated and their emotional characteristics, we determined that they need to participate in more than four hands-on activities, with at least two, for positive development.

Finally, we suggested several alternative policies: implementing an integrated and systematic youth activity policy, managing quality of hands-on activities, coordinating with other departments' policies, connecting communities and schools, supporting deprived youth, promoting youth participation in hands-on activities, and exploring evidence-based policy-making system for promoting youth activities.

Keywords: Youth activities, hands-on activities, Cultural activities, Work-based activities, Range of hands-on activities



##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14-R0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안선영·황여정·이수정·이로사
- 14-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 임희진·송병국
- 14-R03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I / 이경상·박선영·조남익
- 14-R04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김정주·김정숙
- 14-R05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 박영균·조흥식
- 14-R06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1) : 총괄보고서 / 김형주·권재기
- 14-R06-1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2) : 조사결과 자료집 / 김형주
- 14-R07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이창호·신나민
- 14-R08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이유진·이창훈·강지명
- 14-R09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승경·송미경
- 14-R1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지연·정소연
- 14-R11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 / 배상률
- 14-R12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조혜영·이태주·이덕난
- 13-R13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손병덕
- 14-R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총괄보고서 / 김경준·김희진·이민희·김유나
- 14-R14-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 김경준·이호균·서여정·김광혁·김형욱·윤상석·박병식·이석구
- 14-R14-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201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경준·김희진
- 14-R14-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청소년 인권 의식에 관한 구조 분석 / 천정웅
- 14-R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지역사회 진단·분석 / 김지경·하현주·김옥태
- 14-R15-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 김영한·임영식·김민
- 14-R16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 양계민·신현욱·박주희
- 14-R16-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박주희
- 14-R17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오해섭·맹영임
- 14-R17-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견조사 / 오해섭·맹영임·문호영
- 14-R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사업보고서 / 이종원·황진구·모상현·정은주·강현철·한영근·허효주·문은옥·이영화
- 14-R18-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Ⅰ - 청소년 생활시간 추이 분석 / 정은주
- 14-R18-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Ⅱ -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 및 추이 분석 / 모상현
- 14-R18-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Ⅲ -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참여 실태와 추이 분석 / 황진구·허효주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I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2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I 데이터 분석 보고서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3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I / 김지영·전영실·박성훈 (자체번호 14-R19-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성은모·백혜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 : IEA ICCS 2016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성은모·백혜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측정 도구개발 / 김태준 (자체번호 14-R20-2)

## 수 시 과 제

- 14-R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 / 이유진·배규한
- 14-R22 청소년분야 자격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모상현·이진숙
- 14-R23 청소년지도자 인권의식 함양방안 / 김희진
- 14-R24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백혜정·임희진
- 14-R25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배상률
- 14-R26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황진구
- 14-R27 청소년정책연구 동향 분석 및 과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5년간의 연구과제 분석을 중심으로 / 김정숙

## 수 탁 과 제

- 14-R28 디지털교과서 활용 행태 및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 성은모
- 14-R29 근로청소년 유형 분석 및 유형별 정책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박창남
- 14-R30 학교 밖 위기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진로 실태조사 / 김지경·이상준
- 14-R31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기본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 14-R32-1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 14-R32-2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인프라 구축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 14-R33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 조혜영·양계민
- 14-R33-1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활용편 :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매뉴얼 / 조혜영·양계민
- 14-R34 201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한·이유진

- 14-R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김지경·김지연·김정주
- 14-R36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윤철경·김혁진·김범구·정다정
- 14-R36-1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 / 윤철경·하시연
- 14-R37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총괄보고서 / 성은모
- 14-R37-1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통일체험 활동 운영매뉴얼 / 성은모
- 14-R38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평가 체계개발 및 프로그램 분석 / 양계민
- 14-R39 지역아동센터아동패널조사2014 / 황진구·이종원·김희진
- 14-R40 2014년도 공동생활가정평가 사후관리 / 김지연·이경상
- 14-R41-1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예방매뉴얼(1-1)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2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1-2)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3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1-3)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4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진단도구 개발(1-4) / 정제영·강태훈·류성창·변수용
- 14-R42 2014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김경준
- 14-R43 대안교육포럼 / 윤철경·오해섭·백혜정·김희진
- 14-R44 2014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 임희진·백혜정·김희진·황여정
- 14-R45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모델 확대 방안 / 황진구
- 14-R46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지연·김동일·김태완·윤철경
- 14-R47 고용차별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 성은모
- 14-R48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 및 정책에 관한 연구 / 이창호·윤철경·최금해·김욱태
- 14-R49 2014년 또래조정사업 / 서정아·김영한·이유진
- 14-R50 201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돌봄 연계 모형 개발 연구 / 양계민
- 14-R51 청소년우대정책관련 하위법령 개정추진 기초연구 / 이창호·조혜영·김용훈
- 14-R52 신고·인증제 정착을 위한 청소년수련활동 개념 정립 및 분류 체계 연구 / 임지연·김민
- 14-R53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 / 성은모
- 14-R54 약물사이버중독 안전내용체계안 개발연구 / 이창호·왕석순
- 14-R55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검정교과목정비 및 표준교수요목에 관한 연구 / 김경준·오해섭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4-S01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 I (1/6~10)
- 14-S0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 II (1/13~17)
- 14-S03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공청회 (1/21)
- 14-S0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원집중 연수 (2/4~7)
- 14-S05 미래연구에서의 시나리오 방법론 (2/20)
- 14-S06 제1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4)
- 14-S07 제2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11)

- 14-S08 학업중단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 일본의 최근동향 (3/13)
- 14-S09 STATA를 이용한 공간분석의 기초 (3/21)
- 14-S10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방법론 (3/26)
- 14-S11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워크숍 (4/3~4)
- 14-S1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학교장 특별연수 (4/14~16)
- 14-S13 학업중단예방 시·도 담당자 워크숍 (4/11~12)
- 14-S14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과제 (4/23)
- 14-S15 행복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진단지표 (4/29)
- 14-S16 복잡표본조사에서 가치치 산출 (5/8)
- 14-S17 다문화시대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시민교육 (5/12)
- 14-S18 시군구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7)
- 14-S19 지역사회 지표를 통한 청소년 정책개발 및 정책의 실제 활용 (5/26)
- 14-S20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플릿러닝의 적용 가능성 (5/26)
- 14-S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워크숍 (5/30)
- 14-S22 위기청소년을 위한 숲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모색 (5/30)
- 14-S23 청소년 통일 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Action Learning의 적용가능성 (5/29)
- 14-S2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모색 (6/13)
- 14-S25 Mplus를 활용한 자료분석 (7/4)
- 14-S26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 데이터 분석 세미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7/11)
- 14-S27 질적연구방법론 : CQR (7/21)
- 14-S28 가정폭력사건의 회복적사법 도입가능성 (7/29)
- 14-S29 2014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자격 하계합숙연수 (7/22~25)
- 14-S3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수사례(중등) 발표 워크숍 (8/7, 8/10)
- 14-S31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8/29)
- 14-S32 표본조사의 올바른 모수 추정법 (8/14)
- 14-S33 학업중단 다수발생 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8/21)
- 14-S34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담당자 2차 워크숍 (8/28~29)
- 14-S35 대안교실 담당 교원 심화연수 (8/18~22)
- 14-S36 질적연구방법론 : 근거이론 (8/29)
- 14-S37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영역별 정책방안 도출 (9/19)
- 14-S38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9/19)
- 14-S39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 역량 강화 방안 (9/30)
- 14-S40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4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향 : 정책과 실천 (9/25~26)
- 14-S41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방안 탐색 공동세미나 (9/25)
- 14-S42 학교 사이버불링 실태와 대책방안 토론회 (11/3)
- 14-S43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30)
- 14-S44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간평가 및 정책토론회 (11/12)
- 14-S45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1/7)
- 14-S46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11/17)
- 14-S47 국회다정다감포럼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11/07)
- 14-S48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에 대한 전문가워크숍 (11/29)

##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제7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2호(통권 제7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3호(통권 제7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75호)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1호 :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2호 :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강화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3호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4호 :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5호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 -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6호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3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4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5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6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7호 :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실태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8호 : 한중일미 4개국 청소년의 과학에 관한 의식조사 : 주요 연구결과

##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 집 필 진 ◆

(가나다 순)

강 현 철 (호서대학교 정보통계학과 · 교수)

전 명 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경영지원본부 · 본부장)

### ◆ 자 문·협 력 진 ◆

(가나다 순)

길 은 배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 교수)

김 남 희 (서울특별시교육청 · 장학사)

김 민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 교수)

김 진 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 교수)



연구보고 14-R02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

**인 쇄** 2014년 12월 24일

**발 행** 2014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2)503-3223 대표 유채란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008-3 93330